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 변이 연구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朴 美 慧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 변이 연구

지도교수 김 성 규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 미 혜

박미혜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정 승 철 ㊞

부위원장 김 현 ㊞

위 원 임 석 규 ㊞

위 원 이 진 호 ㊞

위 원 김 성 규 ㊞

<한국어 초록>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 변이 연구

박미혜

본고는 咸北 六鎭 방언의 변종인 中國 吉林省 琿春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에 따른 음운 현상과 성조형의 변화 과정, 변화 추세 및 변화하는 기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을 밝혔고 본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 성과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조사 자료와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음소 및 성조소 목록에 대해 기술하였다. 함북 육진 방언의 자음 목록은 19개의 자음 음소로 이루어졌고 이 지역어는 /y/, /w/ 두 개의 활음을 가지고 있으며 8개의 단모음이 존재한다. 함북 육진 방언의 음소 목록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음소 목록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역어는 저조[L]와 고조[H] 두 가지 성조소를 가지고 있다.

3장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 보이는 음운 현상의 변화 과정, 변화 추세 및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음조화, 움라우트, 전설모음화, 자음군단순화, 어간말 'ㄹ' 탈락과 같은 음운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각 음운 현상을 살펴봄에 있어 먼저 80대 화자를 대상으로 한 노년층에서의 실현 양상을 기술한 다음 세대별 화자들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모음조화 현상부터 보면 이 지역의 80대 화자에게서는 잘 지켜지다가 60대 화자에게서부터 모음조화가 파괴되거나 수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움라우트, 어

간말 ‘ㄹ’ 탈락의 경우 또한 이 지역의 80대 화자에게는 필수적인 현상이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비교적 낮은 실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전설모음화 현상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80대 화자에게서는 전설모음화가 적용된 개신형이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20대 화자에게서는 거의 80%에 달하는 실현율을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보이는 개신형의 출현은 순수한 언어 내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교육에 의한 표준어의 차용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음군단순화 현상에 대해 살펴본 데 의하면, ‘ㄼ’ 말음 체언 어간과 ‘ㄺ’ 말음 용언 어간은 ‘ㄹ’이 탈락하여 ‘ㅂ’ 또는 ‘ㄱ’으로 단순화되던 데로부터 ‘ㅂ’, ‘ㄱ’이 탈락하면서 ‘ㄹ’로 단순화를 겪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적용 양상이 달라진 것이 확인된다.

4장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에 대해 살펴본 뒤 곡용형과 활용형에서 보이는 세대별 성조 실현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함북 육진 방언의 성조를 기술함에 있어 80대 화자의 성조형을 이 지역의 기본 성조형으로 보고 먼저 노년층의 성조형에 대해 살펴본 다음 체언과 용언 성조형에서 보이는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체언의 성조형을 어간 음절수에 따라 살펴보면 1음절의 경우 L형과 H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곡용형에서 보이는 어간 성조를 함께 고려하면 H형 또한 H1형과 H2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지역의 2음절 체언 어간 성조형은 LL형, LH형, HL형으로 나타나고, 3음절 체언 어간 성조형은 LLL형, LLH형, LHL형, HLL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4음절 체언 어간 성조형은 LLLL형, LLLH형, LLHL형과 같이 나타난다.

용언의 성조형을 어간 음절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음절의 경우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1유형은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 실현되는 고정적 저조형이고, 제2유형은 어간 성조가 항상 고조로만 나타나는 고정적 고조형이며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은 결합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 성조가 저조 또는 고조로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이 지역의 2음절 용언 어간이 보이는 성조형은 LL형, LH형, HL형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고, 3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은 LLL형, LHL형, HLL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함북 육진 방언의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언·용언 성조형의 세대 간 변화는 크게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는 성조 변화’와 ‘특

정 조사·어미와의 결합에서만 나타나는 성조 변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5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본고의 한계 및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함북 육진 방언, 경흥 지역어, 음운 현상, 세대별 변이, 성조형
학 번: 2017-38423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사 개관 ····· 2
1.3. 조사 자료 ····· 7
1.4. 논의의 구성 ····· 10

2. 음운 목록 ····· 11
2.1. 음소 목록 ····· 11
2.1.1. 자음 ····· 11
2.1.2. 활음 ····· 14
2.1.3. 모음 ····· 15
2.2. 성조소 목록 ····· 18

3. 음운 현상의 세대별 변이 ····· 20
3.1. 모음조화 ····· 20
3.1.1. 노년층 모음조화 ····· 21
3.1.2. 모음조화의 세대별 변이 ····· 26
3.2. 움라우트 ····· 36
3.2.1. 노년층 움라우트 ····· 37
3.2.2. 움라우트의 세대별 변이 ····· 40
3.3. 전설모음화 ····· 46
3.3.1. 노년층 전설모음화 ····· 46
3.3.2. 전설모음화의 세대별 변이 ····· 47

3.4. 자음군단순화 ····· 50
3.4.1. 노년층 자음군단순화 ····· 50
3.4.2. 자음군단순화의 세대별 변이 ····· 55
3.5. 어간말 'ㄹ' 탈락 ····· 65
3.5.1. 노년층 어간말 'ㄹ' 탈락 ····· 65
3.5.2. 어간말 'ㄹ' 탈락의 세대별 변이 ····· 66

4.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 및 세대별 변이 ····· 70
4.1. 노년층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 ····· 70
4.1.1. 체언의 성조형 ····· 70
4.1.2. 용언의 성조형 ····· 83
4.2. 체언과 용언 성조형의 세대별 변이 ····· 104
4.2.1. 체언 성조형의 세대별 변이 ····· 104
4.2.2. 용언 성조형의 세대별 변이 ····· 123

5. 결론 ····· 142

참고문헌 ····· 147

<中文摘要> ····· 153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咸北 六鎭 방언[1]의 변종인 中國 吉林省 琿春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세대별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에 따른 음운 현상과 성조형의 변화 과정, 변화 추세 및 변화하는 기제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어는 언어의 개신파가 미치기 어렵다는 지리적 요인으로 20세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어에 비하여 보수적인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2] 그러나 언어는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現代 韓國語도 中世 韓國語나 近代 韓國語가 수백 년간에 걸쳐 변화해 온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근 30여 년 사이 훈춘 지역어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 이 지역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현저한 세대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의 노년층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음운 현상과 성조 등에 있어서 중세 한국어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용하는 언어가 노년층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하여 이 지역어에는 기타 방언에서 이미 완료된 음운 변화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이 지역의 세대별 화자들의 음운

1) 함북 육진 방언이란 두만강 연안에 위치한 함경북도 북부의 會寧, 鍾城, 穩城, 慶源, 慶興에서 쓰이는 동북 방언의 한 하위 방언으로(방언연구회 2001: 281) 다른 방언에 비해 殘滓的인 요소와 異質的인 요소를 많이 지닌 孤立方言(isolated dialect)의 성격을 띤다(곽충구 1994: 11).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주로 원 慶興 지역어에 기반한 자료들이다. 즉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함북 경흥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2) 언어 변화는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고립된 곳일수록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Holmes 1992: 235, 이익섭 1994/2015: 170).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직접적인 관찰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공시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훈춘 지역어의 음운 목록, 음운 현상 및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現場時間 方法(apparent-time method)으로 이 지역의 언어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3] 현장시간의 방법에 의한 연구는 여러 연령층의 언어를 비교할 수 있어 언어의 변화 과정을 검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언어의 변화 추세나 변화의 원인 제공에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본고가 기존 논의와 가장 크게 변별되는 점은 음운 현상에 대한 세대별 변화 양상과 세대 차이에 의한 성조형의 변화 양상을 함께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이 지역어의 음운 변화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연구사 개관

한국어 방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의 연구는 언어지리학적인 연구로 방언학 전반에 대해 다루면서 함경도 방언의 특징을 언급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그 뒤로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등장하면서 음운, 형태, 문법 등으로 분류하여 함경도 방언에 대해 통시적 또는 공시적으로 기술하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 개별 방언의 음운 변이에 대해 세대별로 고찰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원인에 대해 밝히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는 함경도 방언에 대해 최초로 조사 및 연구한 小倉進平(1917) <京元·咸鏡鐵道沿線方言> 논의에 의해 비로소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現場時間(apparent time)이란 實際時間(real time)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한 시기의 두 다른 세대가 實際時間을 반영해 준다고 하여 설정된 개념으로서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연령 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시간을 가리킨다(이익섭 1994/2015: 152).

이 논문은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咸南의 영흥, 고원, 문천, 원산, 안변과 江原의 평강과 철원 및 京畿의 연천 등 三道接境地域의 방언 특징을 조사하여 각 지역의 방언 차이를 음운, 어휘, 어법으로 나누어 비교한 보고서 성격의 글이다. 그 뒤로 1920년대에 들어서 小倉進平은 함경남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통해 함경남북도 방언의 음운, 어휘, 어법에 대한 小倉進平(1927) <咸鏡南北道方言>을 발표하였다(곽충구 1992).

북한 학자들의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음운론에 대한 연구로는 정용호(1959, 1963, 1988), 한두복(1962), 리극로(1963, 1966) 등이 있다. 정용호(1959)에서는 함경남도 방언에서의 '이' 모음에 의한 음운현상(구개음화와 '이' 모음 역행동화)을 다루고 있고 정용호(1963)에서 역시 함경남도 방언에서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두복(1962)는 함경도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함북 육진 지역의 음운과 형태에 대해 다루고 있고 리극로(1963, 1966)은 북청 방언의 악센트에 대해 다룬 논의이다. 정용호(1988)에서는 함북의 육진 지역과 함남의 문천, 안변을 제외한 함경남북도 전 지역의 음운, 형태, 문법적 특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해당 논의에서는 음운사적인 현상에 대하여 북한 문화어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음운 변화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4)]

중국 학자들이 북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이룬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황대화(1986)에서는 함경도와 강원도 해안 지역의 방언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음운, 형태론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전학석(1993)은 함북 회령, 경성과 함남 함주 지역어의 성조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고 연구한 것으로 함경도 방언의 성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이다. 한진건(2000)은 1958년, 1960년 및 1996년에 북한에서 직접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음운, 형태, 통사 등으로 나누어 육진 방언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에서의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는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함경도 출신들을 조사하거나 문헌에서 나타나는 방언 자료를 통해

4) 정용호(1988)을 제외한 정용호(1959, 1963), 한두복(1962), 리극로(1963, 1966) 등과 같은 선행 연구에 관한 논의는 곽충구(1992)를 참조했다.

그 연구가 이루어졌다.

천시권(1958)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상성이 함경도 방언에서는 고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Ramsey(1974, 1978)에서는 북청 방언을 일본어와 같이 악센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중세 한국어와의 통시적 대응 관계, 동남 방언 성조와의 대응 관계, 복합어의 악센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북청 방언의 성조를 분석하였다. Ramsey(1974:116)에서는 현대 함경남도 북청 지역과 경상도 김해 지역의 성조와 중세 한국어의 성조 대응을 통해 경상 방언의 성조는 중세 한국어와 정연한 대응을 보이는 함남 방언 성조에서 '액센트 標識를 왼쪽으로 한 음절 옮긴다'라는 '액센트 推移 法則(Accent Shift Rule)'을 세웠다.

김태균(1981)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함경북도 鍾城郡의 1000개 어휘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김태균(1982)에서는 육진 방언의 음운, 어휘상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태균(1983)에서는 조사 지역을 확대시켜 함경북도 전역의 음운, 형태, 어휘를 조사하였고 함북방언의 하위 방언구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조사 연구를 걸쳐 1986년에 <咸北方言辭典>을 편찬하였다.

이기동(1987)은 1950년 이전에 함경남도 북청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청 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함경남도 북청 방언의 음운 체계와 음운 결합 및 음운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곽충구(1991/1994)는 육진 방언 중에서도 경흥지역어에 기반을 둔 20세기 초 러시아 Kazan에서 발행한 문헌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 육진 방언 음운론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의는 육진 방언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와 통시적인 연구를 병행하면서 육진 방언의 악센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다룬 육진 방언의 음운론에 대한 정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중국과 한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뒤로부터 그동안 직접적인 현지 조사가 어려웠던 함경도 방언에 대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함경도 방언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곽충구(2001, 2003, 2005) 등과 같은 일련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곽충구(2001)에서는 20세

기 초 러시아 Kazan에서 발행한 육진 방언에 관한 문헌과 육진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훈춘지역에서 조사한 방언 자료에 기대어 육진 방언의 구개음화의 발생 층위 및 지리적 확산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 층위를 다루면서 육진 방언 'ㅈ'의 음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 훈춘지역의 노년층 화자들은 'ㅈ'을 [ts]와 [ʧ] 두 가지로 조음하고 40대 이하 연령층은 [ts]로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이음 [ʧ]이 [ts]에 합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곽충구(2003)에서는 1세기 전 육진 방언의 문헌 자료와 중국 훈춘지역에서 사용하는 육진 방언의 자료를 바탕으로 육진 방언에서 보이는 어휘에 따른 /ㅡ/>/ㅜ/로의 변화 그리고 /ㅗ/의 저설화 등과 같은 모음 체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곽충구(2005)에서는 20세기 초의 육진 방언과 현재의 육진 방언 두 시기의 음운 체계 및 19가지 음운 현상을 대조하여 이 방언에서 겪고 있는 음운 변화의 유형과 변화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곽충구(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은 저자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동안 30여 차례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진행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약 3만 2천여 개에 이르는 표제어를 포함한 사전이다. 이 사전에 수록된 방언 어휘들은 대부분 함북 육진 지역 및 육진 지역에 인접한 무산, 길주, 명천 지역에서 이주해온 노년층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반영한다. 사전에서는 표제어의 성조를 비롯한 음성 실현 양상 및 지역별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이 양상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대한 양의 표제어를 검토하면서 조사항목 설정에 참고가 되었고 또한 다양한 예문 속에서 곡용형과 활용형의 성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는 중국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하여 함북 북부 언어에 대한 음운, 문법, 어휘, 성조에 대해 기술한 논의이다. 채옥자(2002)는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圖們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조선어의 음운 체계, 음운 연쇄, 음운 현상 및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에 대해 공시론적으로 다룬 논의이다. 오선화(2015)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龍井지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시론적 관점에서 함북 부령지역어의 음운 변화에 대해 자음의 변화(어중자음, 구개음화, 비음 탈락, 'ㄴ' 첨가, 어간말 자음의 변화, 특

수 교체 어간)와 모음의 변화(모음 체계의 변화, 상향이중모음의 변화, 원순모음화, 모음조화, 움라우트)로 나누어 기술한 논의이다.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 변이와 음운 변화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原 함북 경흥 지역어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훈춘지역에서 각 연령대별로 조사 연구를 진행한 소신애(2002, 2005) 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소신애(2002)에서는 훈춘지역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개음화의 발생 층위, 음성 변화의 과정, 구개음화의 어휘 확산 과정 및 그 기제, 그리고 사회적 변인들과 구개음화 간의 상관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신애(2005)는 현재 육진 방언의 각 연령대별 자료와 20세기 초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통시적 음운 변화가 공시적 음운 변이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입증한 논의이다. 소신애(2005)에서는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에 대해 '교체 지배 변이 및 변화'와 '기저형 지배 변이 및 변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5]. 이 논의에서는 ㄷ 구개음화, ㄷ 뒤 y 탈락, 어두 ㄴ 탈락, ㄴ 뒤 y 탈락, ㅅ 뒤 y 탈락, ts 뒤 y 탈락, ㅕ→ㅖ→ㅔ, ㅑ→ㅒ→ㅐ 등과 같은 관련 음운 현상으로부터 교체 지배 변이 및 변화의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박진혁(2003, 2014)는 함북 육진 방언의 성조에 관한 연구이다. 박진혁(2003)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조사와 어미의 성조 목록을 제시하고 체언과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에 대해 관찰한 다음 그들이 결합할 때 보이는 표면 성조 실현을 '표면 성조 배열 제약'과 '성조 변동 규칙'에 따른 성조 변동 과정의 결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합성어와 파생어의 성조를 다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어기와 접사의 기저 성조를 확인한 뒤 결합할 때 나타나는 성조 변동을 표면 성조 배열 제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진혁(2014)는 함북 육진 경흥지역어의 공시적 음성 자료를 대상으로 이 지역어 성조의 실현 양상을 성조 실현 단위(음운론적 단어 단위와 음운론

5) '교체 지배 변이 및 변화'와 '기저형 지배 변이 및 변화'의 개념에 대해 소신애(2005) 원문의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교체 지배 변이란, 수의적 음운 교체에 의한 변이, 즉 공존하는 상이한 표면형들 간의 관계가 공시적인 음운 과정으로써 설명되는 경우의 변이를 가리킨다. 교체 지배 변화란 도출 과정상 적용된 음운 교체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소신애 2005: 59). 기저형 지배 변이란, 기저형의 수의적 선택에 의한 변이, 즉 공존하는 상이한 표면형들 간의 관계가 공시적인 음운 과정으로써 설명되지 않는 경우의 변이를 가리킨다. 기저형 지배 변화란, 도출 과정상의 음운 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재해석, 단일화, 차용 및 유추 등으로 인하여 기저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소신애 2005: 285).

적 단어 이상 단위)를 중심으로 이 지역어 성조의 음운론적 성격 및 유형, 그 실현 원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박진혁(2018)에서는 함경도 방언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함경도 방언의 음고에 대한 음운론적 이해 및 그 유형론을 검토하여 함경도 방언의 음고가 진정한 의미의 '성조'라고 밝히고 있다.

이문규(2017)에서는 함경도 방언 성조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함경도 방언 성조의 기저 성조형을 설정하고 성조형 실현 및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면 성조형을 성조 변동 규칙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으로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론 및 성조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자료 및 방법을 참고하여 함북 육진 방언에서 나타나는 여러 음운 현상 및 성조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지역어에서의 세대별 음운 변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1.3. 조사 자료

1.3.1. 조사 지역 개관

본고에서 선정한 조사 지점은 3개 지점이고 그들은 각각 두만강 하류에 위치해 있는 中國 吉林省 琿春市, 中國 吉林省 琿春市 敬信鎭 二道泡村, 中國 吉林省 琿春市 敬信鎭 回龍峰村이다. 본고는 회룡봉촌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생활했던 사람 혹은 그들의 후손들을 제보자로 선정했다.

回龍峰村은 琿春市에서 남으로 약 40 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함경북도 慶興郡 阿吾地邑과 마주하고 있다. 回龍峰村은 19세기 80년대부터 시작하여 慶興郡 출신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개척된 곳이다.

본고의 조사 지점인 中國 吉林省 琿春市, 敬信鎭, 回龍峰村의 지리적 위치를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조사 지점

1.3.2. 조사 일시 및 제보자 목록

본고에 제시된 방언 자료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지 조사를 걸쳐 수집한 자료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일시와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 목록, 제보자 연령, 학력, 출생지, 先代 거주지 등의 제보자 인적 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도표로 제시한다.[6]

6) M_1(1935년 생-2018년 작고) 제보자를 제외한 기타 제보자들의 연령은 2020-2021년 조사 당시 기준으로 표시하였고 M_1 제보자의 연령은 2016년 조사 당시 연령으로 표시한다. M_1 제보자에 대한 자료는 2016-2018년 사이에 수차례 진행한 방언 조사 자료를 1차 자료로 사용하면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빈 칸 부분에 대해서는 곽충구(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1, 2"에서의 경3(본고에서의 M_1과 동일 인물) 제보자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표 1] 조사 일시 및 제보자 목록

제보자 약호	연령	학력	출생지	先代 거주지	조사 일시	조사 지점
M_1	82	小學校 4學年	回龍峰村	慶興郡	2016-2018	琿春市
F_1	81	小學校	回龍峰村	慶興郡	2016.10.2. - 10.3. 2021.1.6. - 1.7.	琿春市
F_2	78	中學校 1學年	回龍峰村	慶興郡	2020.12.28. - 12.30.	琿春市
M_2	74	中學校	回龍峰村	慶興郡	2021.1.18.	回龍峰村
M_3	72	中學校	回龍峰村	慶興郡	2020.12.21. -12.23.	琿春市
F_3	71	中學校	回龍峰村	慶興郡	2016.10.4. - 10.5. 2021.1.4.	琿春市
F_4	67	中學校 2學年	回龍峰村	慶興郡	2016.10.6. - 10.7. 2021.1.30. - 1.31.	琿春市 通信(電話)
M_4	66	中學校	回龍峰村	慶興郡	2021.01.12.	回龍峰村
F_5	64	高等學校	敬信鎭	慶興郡	2021.01.13.	敬信鎭
M_5	60	中專[7]	回龍峰村	慶興郡	2016.8.26. - 8.28. 2021.1.3.	琿春市
M_6	56	高等學校	回龍峰村	慶興郡	2020.12.12.	琿春市
F_6	55	中學校	回龍峰村	慶興郡	2020.12.14.	回龍峰村
M_7	54	大學校	琿春市	慶興郡	2020.12.13.	琿春市
F_7	53	中學校	敬信鎭	慶興郡	2020.12.16.-12.17.	琿春市
M_8	49	中學校	敬信鎭	會寧郡	2020.12.19.	琿春市
M_9	46	大專[8]	回龍峰村	慶興郡	2016.8.26. - 8.28. 2021.1.14.	琿春市
F_8	44	中專	回龍峰村	慶興郡	2016.10.8, 2021.1.17.	琿春市
F_9	42	中學	回龍峰村	慶興郡	2020.12.24.	琿春市
M_{10}	37	大專校	敬信鎭	慶興郡	2020.12.27.	琿春市
F_{10}	36	高等學校	回龍峰村	慶興郡	2021.1.20.	琿春市
M_{11}	35	大學校	琿春市	鍾城郡	2021.1.16.	琿春市
F_{11}	33	大學校	琿春市	慶興郡	2021.1.11.	琿春市
F_{12}	29	大學校	琿春市	慶興郡	2017.2.5, 2020.12.20.	琿春市
M_{12}	26	大學校	琿春市	鍾城郡	2020.12.26.	琿春市
F_{13}	23	大學校在籍	回龍峰村	慶興郡	2021.1.15.	琿春市

1.3.3. 조사 방법

본고에서는 이 지역의 80대부터 20대까지의 남녀 제보자 총 25명을 주제보자로

7) 中專은 중등전문학교(9-12學年)를 가리킨다.
8) 大專은 전문대학을 가리킨다.

선정하여 일대일 면담 조사를 실행하였다.[9] 본고에서 선정한 제보자는 해당 지역에서 3대 이상 정착하여 생활해온 토박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다.

음운 현상에 필요한 조사 항목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음운 현상별로 용언 어간, 체언 어간들을 선택하였고 성조 조사 항목은 '國語超分節音素調査表'(大韓民國學術院, 1989)을 바탕으로 필자가 덜고 보태면서 이 지역어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제보자들의 동의하에 SONY SX-2000으로 조사하는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녹취된 음성 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음소와 초분절음소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1장과 5장은 각각 서론과 결론이다. 2장에서는 음소 목록과 성조소 목록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모음조화, 움라우트, 전설모음화, 자음군단순화, 어간말 'ㄹ' 탈락 현상과 같은 함북 육진 방언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음운 현상을 통하여 이 지역어의 음운 변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체언 성조형과 용언 성조형에 대해 살펴본 뒤 곡용형과 활용형에서 보이는 세대별 성조 실현의 차이에 대해 다룰 것이다.

본고에서 함북 육진 방언의 세대별 음운 변이를 살펴보기 위해 선택된 다섯 가지 음운 현상 및 성조형의 변이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검토 및 필자의 방언 조사 자료에 의해 선택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음운 현상은 현시점에서 방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가장 뚜렷한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 자료에 근거하여 선정되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제2장 음운 목록 부분에서 후술하겠지만 음운 목록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차이는 현저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함북 육진 방언에 대한 기타 음운 현상 및 음성적인 논의는 기존 연구 성과로 충분한 것로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음운 현상의 세대별 변이 및 성조형의 변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9) 본고에서는 이 지역어의 세대별 음운 변화 연구에 대해 세대라는 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접근하기 위해 특정한 연령대에 따라 세대 구분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음운 목록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 변이 양상에 대해 기술하기 전에 이 지역어의 음운 목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 목록에 대하여 자음 목록, 활음 목록, 단모음 목록, 이중 모음 목록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함북 육진 방언은 성조 방언이므로 최소대립쌍을 제시할 때 성조도 고려하면서 음운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에는 최소대립쌍을 바탕으로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음소 목록

2.1.1. 자음

함북 육진 방언의 자음 목록은 아래 (1), (2)와 같은 최소대립쌍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은 어두에서의 음소 대립을 보인 것이고 (2)는 음절말에서의 음소 대립을 보인 것이다.

(1) ㅂ:ㅃ:ㅍ　　불′(火):뿔′(角):풀′(草)
ㄷ:ㄸ:ㅌ　　달′(月):딸′(女兒):탈′(假面)
ㄱ:ㄲ　　굴′(洞):꿀′(蜜)
ㄲ:ㅋ　　깔′(蘆):칼′(刀)
ㅅ:ㅆ　　살′(肉):쌀′(米)

ㅈ:ㅉ:ㅊ　　자′두(眠):짜′두(編):차′두(蹴)
ㅎ:(ㅂ):(ㄷ)　　혹′(贅):복′(福):독′(毒)
ㄴ:ㅁ　　날′(刃):말′(斗)
ㅁ:ㄹ　　미′용(美容):리′용(利用)
(2) ㄴ:ㅁ　　논′(畓):놈′(者)
ㅇ:ㄹ　　망′(网):말′(語)

위의 (1), (2)를 통해 함북 육진 방언에는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ㅆ, ㅈ, ㅉ, ㅊ, ㅁ, ㄴ, ㄹ, ㅇ[ŋ], ㅎ/ 19개의 자음 음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어에서는 /ㅈ, ㅉ, ㅊ, ㅅ, ㅆ/가 치조음으로 실현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ㅈ/의 경우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ts], [ʧ]와 같은 두 변이음을 가지는데 /i, y/ 앞에서는 [ʧ]으로 실현되고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ts]으로 실현된다. 곽충구(2001)에서는 이 지역의 노년층 화자들은 'ㅈ'을 [ts]와 [ʧ] 두 가지로 조음하고 기타 연령층의 화자들은 어느 환경에서나 'ㅈ'을 [ts]로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이음 [ʧ]가 [ts]에 합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어에서는 어두에 '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경우는 외래어 또는 한자어이며 그것은 중국에서의 표기법 및 표준발음법의 규범화와 연관되어 이 지역의 전 연령층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 조선어 어문규범인 <조선말규범집(2016)>을 살펴보면 'ㄹ'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라지오′(radio)　로시아(Russia)
락하산(落下傘)　렬′거하ㅡ(列擧)
로동′(勞動)　론′문(論文)　리자′(利子)　리′용(利用)

또한 이 지역의 노년층 화자들의 발화에서 어두에 'ㄴ+ㅣ' 음운 연쇄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어두에서의 'ㄴ'이 탈락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4) 니′빨(齒) 니르/닑-(讀) 닐굽′(七) 닢′(葉)

다음으로 용언의 활용형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후두 파열음 /ㆆ[ʔ]/을 음소로 함북 육진 방언의 자음 목록에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10] 아래 '걸-(掛)', '잃-(失), '걷-(步)'와 같은 어간들과 어미 '-구', '-더라', '-ㄴ/는다', '어서', '-(으)무'가 결합할 때에 실현되는 이 지역어의 음성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5) 가. [걸′구, 거′더라, 건′다, 거러′서, 걸′무](걸-, 掛)
나. [일쿠′, 일터′라, 일른다′, 이러′서, 이르′무](잃-, 失)
다. [걸′꾸, 걸′떠라, 걸′른다, 거러′서, 거르′무](걷-, 步)

(5가)는 'ㄹ' 말음 어간 '걸-(掛)'의 활용형이고 (5나)는 'ㅭ' 자음군 어간 '잃-(失)'의 활용형이며 (5다)는 표준어에서의 'ㄷ' 불규칙 용언인 '걷-(步)' 어간이 이 지역에서의 활용 양상이다. (5가)와 (5다)를 비교해보면 어간과 어미 '-어서'가 결합할 때의 표면형이 동일하여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 '-더라', '-ㄴ/는다', '-(으)무'와 같은 다른 어미와 결합할 때의 음성형을 통하여 구분이 가능해진다. (5다)를 보면 어간이 '-구', '-더라'와 결합할 때 어미초의 'ㄱ', 'ㄷ'이 경음화하여 [걸′꾸], [걸′떠라]로 실현된다. 이로부터 (5다)의 어간은 'ㄹ' 말음 어간이 아닌 'ㄹ+C' 말음 어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C'가 /ㅎ/이라면 (5나)와 같이 어미 '-구', '-더라'와 결합할 때 격음화하여 [일쿠′], [일터′라]와 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인데 후행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경음으로 실현되므로 'C'를 /ㆆ/으로 보는 것

10) 임석규(2007: 14-16)에서 정리한 'ㆆ'의 연구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ㆆ'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김완진(1972)에서부터다. 김완진(1972)에서는 유음화의 간접 동화를 시사하면서 관형사형 어미의 기저형을 'ㅭ'로 설정해야 함을 간단히 제시하였는데, 이를 활용 어간의 기저형에 도입한 것은 강릉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이익섭(1972)이 처음이다. 다만 이익섭(1972)에서는 'ㅅ' 불규칙 용언의 경우에는 그 기저형의 말음을 'ㆆ'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후 최명옥(1978, 1982)에서 'ㆆ' 말음 어간을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ㆆ/은 이 지역어의 (5다)와 같은 음성형을 분석할 때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5다)를 비롯한 다른 경우에도 표면에 직접 실현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지역어의 자음 목록 기저 음소에 /ㆆ/을 설정하지 않는다.[11]

이상에서 논의된 이 지역의 자음 목록을 음성적인 특징을 고려하면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함북 육진 방언의 자음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유기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	
	마찰음	평음		ㅅ		
		유기음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유기음		ㅊ		
		경음		ㅉ		
공명음	비음	–	ㅁ	ㄴ	ㅇ	
	유음	–		ㄹ		

2.1.2. 활음

활음은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항상 모음과의 계기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12] 함북 육진 방언에는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활음 /y/, /w/가 있다. 이들은 최소대립쌍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

11) 이진호(2017: 565)에 의하면 /ㆆ/은 표면에 직접 실현되는 경우가 없어서 /ㆆ/을 형태음운으로만 인정하고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 논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것은 /ㆆ/이 기저형에서만 나타나고 표면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12) 활음은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전이음이라 하여 또 '과도음(過度音), 경과음(經過音), 미끄럼소리' 등으로 불린다(이진호 2017: 559).

(6) ㅓ:ㅕ　　얼′구(凍):열′구(開)
　　ㅏ:ㅘ　　간′(肝):관′(棺)
　　ㅑ:ㅘ　　양(羊):왕(王)

이 지역의 활음 목록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함북 육진 방언의 활음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전설	후설
평순	y	
원순		w

2.1.3. 모음

함북 육진 방언의 모음 목록에 대하여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2.1.3.1. 단모음

함북 육진 방언에는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와 같은 8개의 단모음이 있고 단모음 ‘ㅚ[ø]’와 ‘ㅟ[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어의 단모음 목록은 아래와 같은 최소대립쌍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7) ㅏ:ㅗ　　밤′(夜):봄′(春)
　　ㅜ:ㅗ　　술′(匙):솔′(刷)
　　ㅓ:ㅡ　　널′구(晾):늘′구(增)
　　ㅓ:ㅗ　　덜′구(減):돌′구(旋)
　　ㅡ:ㅜ　　끌′구(引):꿀′구(跪)
　　ㅐ:ㅔ　　개′(犬):게′(蟹)
　　ㅗ:ㅣ　　골′(頭):길′(路)

먼저 이 지역의 단모음 /ㅔ/와 /ㅐ/에 대해 살펴보면 /ㅔ/와 /ㅐ/는 이 지역어에서 항상 분명한 대립을 이룬다. 다음과 같은 예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8) 가. 재′(灰):제′(저)
나. 매대′(賣臺)[13]:메지′(豉)
다. 깔개′(褥):털게′(毛蟹)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ㅐ/와 /ㅒ/는 (8가)에서처럼 뚜렷한 최소대립쌍이 존재하고 (8나), (8다)와 같이 어두 음절 위치 또는 비어두 음절 위치에서 항상 변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ㅐ/와 /ㅒ/에 대한 변별은 세대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다음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ㅚ/에 대한 표면 음성형을 살펴보면 [wɛ] 또는 [we]로 실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이 지역의 60대 이상 화자들은 /ㅚ/를 [wɛ] 또는 [we]로 발음하고 기타 연령층의 화자들은 /ㅚ/를 [we]로 발음한다.

(9) 가. 쇠′때[쇄때](鐵), 외′가[왜개](外家), 죄′[좨](罪)
나. 쇠′[쉐](牛)
(10) 쇠′때[쉐때](鐵), 외′가[웨가](外家), 죄′[줴](罪), 쇠′[쉐](牛)

(9가)는 이 지역의 60대 이상 화자들이 /ㅚ/를 [wɛ]로 발음하는 예들이고,[14] (9나)는 이 지역의 60대 이상 화자들이 /ㅚ/를 [we]로 발음하는 예들이다.[15] 이와 달리 60대 이하 화자들은 /ㅚ/를 항상 [we]로 발음하는데 이는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3) 팔 물건을 벌여 놓은 대(곽충구 2019: 1367).
14) 이중 모음 'ㅚ[oy]'가 /ㅈ/이 치조음으로 실현되는 방언권인 함북 육진 방언에서만 [wɛ]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 곽충구(2003: 72-73)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곽충구(2003: 72-73) 논의에서는 음성학적으로 봤을 때 설면이 구개를 향해 올라가는 경구개 자음([+high]) 뒤에서는 구개화된 고모음이 유인될 수 있지만 설면이 아래로 내려가는 설첨 또는 설단 자음 뒤에서는 고모음보다는 저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ㅚ/가 [wɛ]로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15) 이 지역의 'ㅚ[oy]'가 [we]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 곽충구(2003: 72) 논의에서는 이중 모음 'ㅚ[oy]'가 단모음 [ö]로 변해가는 과도기 단계(oy>we>ö)의 음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함북 육진 방언의 단모음 목록을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함북 육진 방언의 단모음

혀의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입술 모양 / 혀의 높이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ㅡ	ㅜ
중모음	ㅔ		ㅓ	ㅗ
저모음	ㅐ		ㅏ	

2.1.3.2. 이중 모음

앞에서 살펴본 바로 이 지역어에는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y/, /w/와 같이 두 개의 활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지역어의 이중 모음은 y계 이중 모음과 w계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y계 이중 모음에는 /ㅖ, ㅒ, ㅕ, ㅑ, ㅠ, ㅛ/가 있고 w계 이중 모음에는 /ㅟ, ㅞ, ㅙ, ㅝ, ㅘ/가 있다.

(11) 가. 예쉰′(六旬), 옛′말(古語)

나. 얘′기, 얘싹하구′~얘쌕하구′[16]

다. 여끼′(狐), 역′세질,[17] 열′콩(稱)

라. 야듧′(八), 약하다′사구(瘦), 양′짝(兩邊)

마. 유리′(琉璃), 뉴끼′~유끼′(柵)[18]

바. 요(褥), 욕′심(慾), 뾰′족하구(尖)

(12) 가. 귀′(耳), 위(胃)

나. 궤′짝(櫃), 궹장하구′(宏壯-)

16) '얘싹하구′~얘쌕하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① 몹시 거슬려 싫증이 나거나 짜증스럽다. ② 한기(寒氣)에 몸이 오싹 움츠러들어 거슬리다. ③ 되풀이하여 말하거나 보이거나 하여 싫증이 나다(곽충구 2019: 2499).

17) 육체적인 힘을 들여서 하는 일(곽충구 2019: 2593).

18) 콩윷.

다. 괘′씸하구, 왜지′(紫桃)
라. 권′하구(勸-), 원디′(豌豆), 원자필′(圓珠筆)
마. 과′실(果實), 환′갑(還甲)

(11)은 y계 상향 이중 모음 목록을 살필 수 있는 예들이고 (12)는 w계 이중 모음 목록을 관찰할 수 있는 예들이다. (11)로부터 이 지역어에서 단모음 /ㅐ/, /ㅔ/의 대립이 명확하므로 따라서 /ㅐ/, /ㅔ/의 변별도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어에는 y계 하향 이중 모음인 /ㅢ/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두 또는 비어두에서의 /ㅢ/는 [i]로 실현되고 속격 조사 /ㅢ/는 주로 [e]로 실현된다.

(13) 가. 무늬′[무니](紋), 의자′[이자](椅子), 의′사[이사](醫師)
나. 집의[지베]

(13)을 통해 이 지역어에서 y계 하향 이중 모음 /ㅢ/는 /ㅣ/ 또는 /ㅔ/로 실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2. 성조소 목록

지금까지 연구된 함경도 방언의 성조 자료는 Martin, S.E.(1954), 이극로(1963, 1966), Ramsey(1974, 1978), 곽충구(1994, 1997, 2019), 전학석(1993), 김차균(1996), 최명옥 외(2002), 박진혁(2003, 2014, 2018), 채옥자(2005), 이문규(2017)등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기존 논의와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함북 육진 방언 성조에는 저조[L]와 고조[H] 두 개의 음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성조는 대체적으로 중세 한국어의 성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去聲과 上聲은 이 지역에서 고조[H]로만 실현되어 이 지역의 성조는 중세 한국어의 간소화된 상태를 보여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성조소를 최소 대립쌍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말(馬)[L] : 말(斗)[H]
배(梨)[L] : 배(腹)[H]

이 지역어의 성조형에 대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중세 한국어 성조와 함북 육진 방언 성조소의 대응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성조소 대응

	平聲	去聲	上聲
중세 한국어 성조	말(馬)	말(斗)	말(語)
함북 육진 방언 성조	말(馬)[L]	말(斗)[H]	말(語)[H]

3. 음운 현상의 세대별 변이

3.1.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20세기 초반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모음조화가 지니는 성격, 모음조화 규칙과 모음 체계의 합치 여부에 대한 초창기 연구에서부터 현대 한국어 음운론 연구에서의 빼놓을 수 없는 음운 현상으로 활발한 연구가 행해졌다.

모음조화란 한 단어 내에서 같은 부류의 모음끼리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음조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형태소 경계에서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시에도 나타난다. 같은 부류로 묶이는 모음은 특정 자질을 공유하는 모음들인데 일반적으로 '음양'으로 나누어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9] 함북 육진 방언의 경우 양성 모음에는 'ㅏ, ㅗ, ㅐ'가 있고 나머지 모음은 음성 모음에 속한다. 그러나 음성 모음 중의 'ㅜ, ㅡ, ㅣ'가 음절 위치에 따라 후행하는 문법 형태소의 교체에 관여하지 않고 중성 모음[20]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관찰

19) 이진호(2017: 162)에 의하면 한국어 모음조화에 대해 '음양'의 대립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훈민정음』에서 역학의 음양 원리를 활용하여 모음조화에 참여하는 모음들의 특성을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 중세 한국어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형태소 내부 또는 경계에서 'ㅏ, ㅗ, ㆍ'는 양성 모음, 'ㅓ, ㅜ, ㅡ'는 음성 모음 그리고 어느 한 편에 구속되지 않고 두 모음의 부류와 다 어울릴 수 있는 'ㅣ'를 중성 모음으로 기술하고 있다(김성규·정승철 2013: 222).

된다.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활용에서 보이는 모음조화는 어간의 음절수,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의 구조에 따라 실현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 용언 어간에 어미 '-아X', '-어X'가 결합되는 경우 '-아/어'가 선택되는 조건에 대해 환경별로 면밀히 검토한 다음 세대에 따른 변화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1. 노년층 모음조화

함북 육진 방언의 세대별 모음조화 실현 양상을 다루기에 앞서 이 부분에서는 80대 화자를 대상으로 이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 현상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단음절 어간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15) 가. 차-아서→[차'서](차갑-, 冷, 차'구)
막-아서→[마가'서](막-, 防, 막꾸')
담-아서→[다마'서](담-, 盛, 담'꾸)
짭-아서→[짜'바서](짜-, 咸, 짝'꾸)
나. 보-아서→[봐'서~바'서](보-, 見, 보구')
봛-아서→[볼바'서](봛-, 踏, 복'꾸)
높-아서→[노파'서](높-, 高, 녹꾸')
곱-아서→[고'바서](곱-, 麗, 곡'꾸)
다. 매-아서→[매애'서](매-, 系, 매구')
맺-아서→[매자'서](맺-, 結, 맥꾸')
맵-아서→[매바'서](맵-, 辛, 맥꾸')
(16) 가. 얼-어서→[어러'서](얼-, 凍, 얼'구)
넘-어서→[너머'서](넘-, 越, 넘'꾸)
덥-어서→[더버'서](덥-, 暑, 덕'꾸)
나. 추-어서→[춰'서~처'서](추-, 跳舞, 추'구)
누-어서→[눠'서](누-, 尿, 누구')
두-어서→[뒤'서](두-, 置, 두구')
울-어서→[우러'서](울-, 哭, 울'구)

웃-어서→[우서′서](웃-, 笑, 욱′꾸)
굽-어서→[구버′서](굽-, 炙, 국′꾸)
다. 크-어서→[커′서](크-, 大, 크′구)
즐-어서→[즈러′서](질-, 泥, 즐구′)
늡-어서→[느버′서](눕-, 躺, 늑꾸′)
라. 비-어서→[베에′서](비-, 空, 비′구)
신-어서→[시너′서](신-, 穿, 신′꾸)
닙-어서→[니버′서](입-, 穿, 닉꾸′)
깁-어서→[기버′서](깁-, 縫, 긱′꾸)
밉-어서→[미버′서](밉-, 憎, 믹꾸′)
마. 메-어서→[메에′서](메-, 肩負, 메′구)
베-어서→[베에′서](베-, 枕, 베′구)

(15)는 단음절 용언 어간 뒤에 어미 '-아/어X'가 결합된 예들이다. (15가)~(15다)는 어간말 모음이 'ㅏ, ㅗ, ㅐ'인 경우이고 (16가)~(16마)는 어간말 모음이 'ㅓ, ㅜ, ㅡ, ㅣ, ㅖ'인 경우이다. (15)에서와 같이 이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모음이 'ㅏ, ㅗ, ㅐ'일 때 어미 '-아X'가 결합하고 (16)에서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ㅓ, ㅜ, ㅡ, ㅣ, ㅖ'인 경우에는 어미 '-어X'를 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5)에서의 '짭-', '곱-', '맵-'와 (16)에서의 '덥-', '굽-', '늡-', '깁-', '밉-'를 보면 ㅂ-불규칙 어간들이 이 지역어에서 규칙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음절 ㅂ-불규칙 어간들은 이 지역어에서 항상 규칙적인 활용을 보이고 있고 기타 1음절 어간들과 마찬가지로 어간말 모음에 따라 '-아/어X' 선택 양상의 차이를 살필 수 있다.

다음은 다음절 어간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17) 가. 자빠디-어서→[자빠′데서](자빠지-, 倒, 자빠′디구)
나. 두두리-어서→[두두′레서](두드리-, 敲, 두두′리구)
그리-어서→[그′레서](그리-, 畫, 그′리구)

(17)은 어간말 모음이 'ㅣ'인 경우 어미 '-아/어X' 선택 양상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어간말 모음이 'ㅣ'일 때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에 관계없이 항상 어미 '-어X'와

결합한다.

(18) 가. 따르-아서→[따라′서](따르-, 跟隨, 따르구′)
고르-아서→[골′라서](고르-, 選, 고′르구)
나. 흐르-어서→[흘러′서](흐르-, 流, 흐르구′)
(19) 가. 가늘-어서→[가′느러서](가늘-,細, 가′늘구)
맨들-어서→[맨드′러서],(만들-, 造, 맨들′구)
흔들-어서→[흔드′러서],(흔들-, 搖, 흔들′구)

(18)과 (19)는 어간말 모음이 'ㅡ'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8)은 어간말 모음이 'ㅡ'이면서 개음절인 경우이고 (19)는 어간말 모음이 'ㅡ'이면서 폐음절인 경우이다. (18)을 보면 어간말 모음이 'ㅡ'이고 개음절인 경우 후행하는 어미는 어간말 모음 'ㅡ'에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 즉 (18가)에서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ㅡ'이면서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이 'ㅏ' 또는 'ㅗ'일 때 '-아X' 어미와 결합하고 선행하는 음절 모음이 'ㅡ'이고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이 'ㅡ'인 경우 어미 '-어X'가 결합한다. (19가)를 보면 어간말 모음이 'ㅡ'이면서 폐음절인 경우에는 어간말 모음 'ㅡ'에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어미 '-어X'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가. 바꾸-아서→[바꽈′서~바까′서](바꾸-, 換, 바꾸′구)
아푸-아서→[아파′서](아프-, 痛, 아푸구′)
나쁘-아서→[나빠′서](나쁘-, 惡, 나쁘구′)
고푸-아서→[고파′서](고프-, 餓, 고푸구′)
모두-아서→[모돠′서~모다′서](모으-, 集, 모두′구)
배우-아서→[배와′서](배우-, 學, 배우′구)
나. 절구-어서→[절궈′서](절이-, 鹽, 절구′구)
두추-어서→[두춰′서~두처′서](들추-,索, 두추′구)
기쁘-아서→[기뻐′서](기쁘-, 喜, 기쁘구′)
게우-어서→[게워′서](게우-, 吐, 게우′구)
씌우-어서→[씨워′서](씌우-, 套, 씨우′구)
비우-어서→[비워′서](비우-, 使空, 비우′구)

(21) 가. 가물-어서→[가'무러서](가물-, 旱, 가'물구)
나. 구불-어서→[구부러'서](구르-, 轉, 구불구')
구불-어서→[구부'러서](굽-, 曲, 구불'구)
시굴-어서→[시구'러서](시쿨-, 酸, 시굴'구)

(20)과 (21)의 예들은 2음절 어간에서 어간말 모음이 'ㅜ'인 경우이다. (20)은 개음절 어간인 예들이고 (21)은 폐음절 어간인 예들이다. (20)에서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ㅜ'이고 개음절 어간일 때 어간말 모음 'ㅜ'에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 종류에 따라 어미 '-아/어X'가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을 보면 어간말 모음이 'ㅜ'이고 그에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이 'ㅏ, ㅗ, ㅐ'일 때 어미 '-아X'가 결합하고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이 'ㅓ, ㅜ, ㅖ, ㅣ'인 경우 어미 '-어X'가 결합한다. 그리고 (21)에서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ㅜ'이면서 폐음절 어간인 경우에는 항상 어미 '-어X'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가. 말리우-아서→[말리와'서](말리우-, 使乾, 말리우'구)
꼼치우-아서→[꼼치와'서](곰치우-, 隱, 꼼치우'구)
내리우-아서→[내리와'서](내리우-, 使降, 내리우'구)
나. 얹히우-어서→[언치워'서](얹히우-, , 언치우'구)
쓰리우-아서→[쓰리워'서](쓰리우-, , 쓰리우'구)

(22)는 어간말 모음이 'ㅜ'인 3음절이고 개음절 어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2가)에서와 같이 어간말 모음 'ㅜ'에 선행하는 음절 모음이 중성 모음 'ㅣ'일 때 어두 음절의 모음이 'ㅏ, ㅗ, ㅐ'이면 어미 '-아X'가 결합하고 어두 음절의 모음이 'ㅓ' 또는 'ㅡ'이면 어미 '-어X'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어간말 모음이 'ㅜ'이고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이 'ㅣ'인 경우 어간말 모음 'ㅜ'와 그에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 'ㅣ'는 어미 '-아/어X'의 선택에서 있어서 비관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두 음절의 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가. 마랍-아서→[마라'바서], (마렵-, 催, 마락'꾸)
해깝-아서→[해까바'서], (가볍-, 輕, 해깍꾸')

사무럽-아서→[사무′러바서], (사납-, 猛, 사무′럭꾸)
나. 어둡-아서→[어드′바서], (어둡-, 暗, 어득′꾸)
더럽-아서→[더′러바서], (더럽-, 髒, 더′럭꾸)
승겁-아서→[승거바′서](싱겁-, 淡, 승걱꾸′)
보드랍-아서→[보드′라바서], (보드랍-, 細膩, 보드′락꾸)
시끄럽-아서→[시끄′러바서], (시끄럽-, 煩雜, 시끄′럭꾸)

(23)은 표준어에서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다음절 용언 어간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23)에서와 같이 이 지역에서는 표준어에서 ㅂ-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어간들이 항상 규칙적인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3)을 보면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그에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어미 '-아X'를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 지역의 노년층에서 보이는 함북 육진 방언 모음조화의 실현 양상을 어간의 음절수,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 구조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함북 육진 방언 노년층의 모음조화

어간 음절수	어간말 모음의 종류		어간 음절 구조	어미
1음절	ㅏ, ㅗ, ㅐ		개/폐음절	아
	ㅓ, ㅜ, ㅡ, ㅣ, ㅔ		개/폐음절	어
2음절	ㅣ	ㅣ	개음절	어
	ㅡ	ㅏ, ㅗ+ㅡ	개음절	아
		ㅡ, ㅣ+ㅡ	개음절	어
		ㅡ	폐음절	어
	ㅜ	ㅏ, ㅗ, ㅐ+ㅜ	개음절	아
		ㅓ, ㅜ, ㅣ, ㅔ+ㅜ	개음절	어
		ㅜ	폐음절	어
	ㅂ-불규칙(정칙 활용)		폐음절	아
3음절	ㅜ	ㅏ, ㅗ, ㅐ+ㅣ+ㅜ	개음절	아
		ㅓ, ㅡ+ㅣ+ㅜ	개음절	어
	ㅂ-불규칙(정칙 활용)		폐음절	아

3.1.2. 모음조화의 세대별 변이

함북 육진 방언 모음조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차이를 어간말 모음 또는 그에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어간 모음이 'ㅔ-ㅜ'인 경우

	게우-	데우-	메우/메꾸-	세우-	케우-
M_1(82)	게워'서	데워'서	메워'서	세워'서	케워'서
F1(81)	게워'서	데워'서	메워'서	세워'서	케워'서
F2(78)	게워'서	데워'서	메꿔'서	세워'서	케워'서
M_2(74)	게워'서	데워'서	메꿔'서	세워'서	케워'서
M_3(72)	게워'서	데워'서	메꿔'서	세워'서	케워'서
F_3(71)	게워'서	데워'서	메꿔'서	세워'서	케워'서
F_4(67)	게워'서	데워'서	메워'서	세와'서	케워'서
M_4(66)	게워'서	데워'서	메꿔'서	세워'서	케워'서
F_5(64)	게워'서	데워'서	메꿔'서	세와'서	케워'서
M_5(60)	게워'서	데워'서	메꿔'서	세와'서	케워'서
M_6(56)	게워'서	데워'서	메꿔'서	세와'서	케워'서
F_6(55)	게와'서	데와'서	메꿔'서	세와'서	케와'서
M_7(54)	게와'서	데와'서	메워'서~ 메와'서	세와'서	케와'서
F_7(53)	게와'서	데워'서	메꿔'서	세와'서	케와'서
M_8(49)	게와'서	데와'서	메꿔'서	세와'서	케와'서
M_9(46)	게워'서~ 게와'서	데워'서~ 데와'서	메꺼'서	세와'서	케와'서
F_8(44)	게와'서	데와'서	메와'서	세와'서	케와'서
F_9(42)	게와'서	데와'서	메와'서	세와'서	케와'서
M_{10}(37)	게와'서	데와'서	메꽈'서	세와'서	케와'서
F_{10}(36)	게와'서	데와'서	메와'서	세와'서	케와'서
M_{11}(35)	게와'서	데와'서	메와'서	세와'서	케와'서
F_{11}(33)	게와'서	데와'서	메꽈'서	세와'서	케와'서
F_{12}(29)	게와'서	데와'서	메꽈'서	세와'서	케와'서
M_{12}(26)	게와'서	데와'서	모름	세와'서	케와'서
F_{13}(23)	게와'서	데와'서	모름	세와'서	케와'서

[표 7]은 어간말 모음이 'ㅜ'이고 선행하는 모음이 'ㅟ'인 경우 모음 어미 '-아/어X'의 선택 양상을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 모음이 'ㅟ-ㅜ'일 때 '-아X' 또는 '-어X'가 선택되는 세대 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표 8] 어간 모음이 'ㅣ-ㅜ'인 경우

	띄우-	비우-	씌우-	티/치우-	피우-
M_1(82)	띠워'서	비워'서	씨워'서	티워'서	피워'서
F1(81)	띠워'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F2(78)	띠워'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M_2(74)	띠워'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M_3(72)	띠워'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F_3(71)	띠워'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F_4(67)	띠와'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M_4(66)	띠워'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F_5(64)	띠와'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M_5(60)	띠와'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M_6(56)	띠워'서	비워'서	씨워'서	치워'서	피워'서
F_6(55)	띠워'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M_7(54)	띠와'서	비워'서	씨워'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F_7(53)	띠와'서	비워'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M_8(49)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워'서	피와'서
M_9(46)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워'서
F_8(44)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F_9(42)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M_{10}(37)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F_{10}(36)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M_{11}(35)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F_{11}(33)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F_{12}(29)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M_{12}(26)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F_{13}(23)	띠와'서	비와'서	씨와'서	치와'서	피와'서

[표 8]은 어간말 모음이 'ㅜ'이고 선행하는 모음이 'ㅣ(ㅢ)'인 경우 모음 어미 '-

아/어X'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양상을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 모음이 'ㅣ(ㅢ)-ㅜ'인 경우 어미 '-아X' 또는 '-어X'가 선택되는 세대 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표 9] 어간 모음이 'X-ㅣ-ㅜ'인 경우

	말리우-	꼼치우-	내리우-	얹히우-	쓰리우-
M_1(82)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F1(81)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F2(78)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M_2(74)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M_3(72)	말리와'서	곰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F_3(71)	말리와'서	꼼치와'라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F_4(67)	말리와'서	꼼치와'라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M_4(66)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F_5(64)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M_5(60)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워'서
M_6(56)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워'서	쓰리와'서
F_6(55)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M_7(54)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F_7(53)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M_8(49)	말리와'서	꼰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M_9(46)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F_8(44)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F_9(42)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M_{10}(37)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F_{10}(36)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M_{11}(35)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F_{11}(33)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F_{12}(29)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M_{12}(26)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F_{13}(23)	말리와'서	꼼치와'서	내리와'서	언치와'서	쓰리와'서

[표 9]는 어간말 모음이 'ㅜ'이고 선행하는 모음이 'ㅣ'인 3음절 어간인 경우 모음 어미 '-아/어X'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양상을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 모음이 'X-ㅣ-ㅜ'인 경우 어미 '-아X', '-어X'는 어두 음절의 모음에 따라 선택되는 세대 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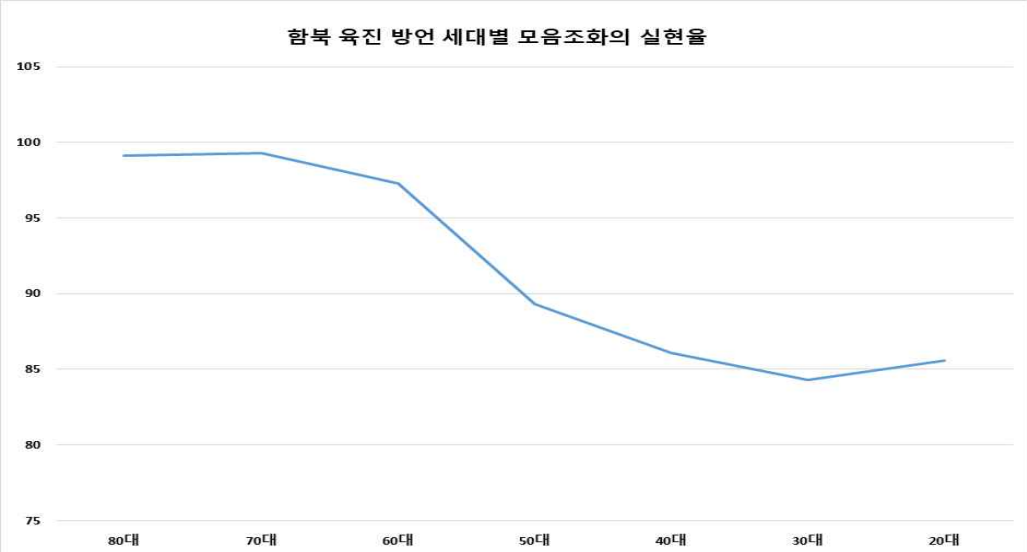
[표 10] 1음절 ㅂ-불규칙 활용 어간, ㅍ 말음 및 ㄻ 말음 어간인 경우

	덥-	씁-	칩/춥-	싶-	섧-	퇿/뚧-
M_1(82)	더버′서	쓰′버서	치′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버서	털′버서
F1(81)	더버′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버서	털′버서
F2(78)	더버′서	쓰′버서	치′버서	시′퍼서	설′버서	터‘버서
M_2(74)	더버′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버서	털′버서
M_3(72)	더버′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버서	떨′버서
F_3(71)	더버′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버서	털′버서
F_4(67)	더버′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버서	떨′버서
M_4(66)	더버′서	쓰′버서	치′버서	시′퍼서	설′버서	떨′버서
F_5(64)	더버′서~ 더′바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버서	털′버서
M_5(60)	더버′서~ 더′바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바서	털′바서
M_6(56)	더′바서	쓰′바서	치′바서	시′퍼서	설′바서	떨′바서
F_6(55)	더′버서	쓰′바서	치′바서	시′퍼서	설′바서	떨′바서
M_7(54)	더′바서	쓰′버서~ 쓰′바서	치′바서	시′퍼서	설′버서	털′바서
F_7(53)	더′버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바서	털′바서
M_8(49)	더′버서	쓰′버서	치′바서	시′퍼서	설′바서	털′바서
M_9(46)	더′바서	쓰′바서	치′바서	시′파서	설′바서	떨′바서
F_8(44)	더′바서	쓰′바서	치′바서	시′퍼서	설′바서	떨′바서
F_9(42)	더′바서	쓰′바서	치′바서	시′퍼서	설′바서	떨′바서
M_{10}(37)	더′바서	쓰′바서	치′바서	시′파서	설′바서	떨′바서
F_{10}(36)	더′바서	쓰′바서	추′바서	시′퍼서	설′바서	털′바서
M_{11}(35)	더′바서	쓰′바서	치′바서	시′파서	설′바서	떨′바서
F_{11}(33)	더′바서	쓰′바서	추′바서	시′파서	설′바서	떨′바서
F_{12}(29)	더′바서	쓰′바서	추′바서	시′파서	설′바서	떨′바서
M_{12}(26)	더′바서	쓰′바서	치′바서	시′파서	모름	모름
F_{13}(23)	더′바서	쓰′바서	추′바서	시′파서	모름	모름

[표 10]은 1음절 ㅂ-불규칙 활용 어간, 1음절 ㅍ 말음 어간 또는 ㅙ 말음 어간인 경우 모음 어미 '-아/어X'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양상을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말 모음에 따라 어미'-아/어X'가 선택되던 데로부터 어간말 모음에 상관없이 어미 '-아X'를 취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표 7]~[표 10]은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세대별 차이를 나타내는 모음조화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함북 육진 방언의 세대별 모음조화 실현 양상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차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7], [표 8], [표 9]는 다음절 어간이고 어간말 모음이 'ㅜ'이며 선행하는 모음이 'ㅐ, ㅣ(ㅢ)'거나 'ㅕ-ㅣ'일 때 어미 '-어X'와 결합하던 데로부터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아X'가 결합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다른 하나는 [표 10]과 같이 1음절 ㅂ-불규칙 활용 어간, 1음절 ㅍ 말음 어간 또는 ㅙ 말음 어간이면서 어간말 모음이 'ㅕ, ㅡ, ㅣ'일 때 어미 '-어X'가 결합되던 데로부터 '-아X'가 결합하는 세대별 변화 양상이다.

본고에서 조사한 조사 항목을 대상으로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모음조화 실현율을 연령층에 따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21]



[그림 2] 함북 육진 방언 세대별 모음조화의 실현율

21) 본고에서 모음조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조사 항목은 총 113개이고 함북 육진 방언 세대별 모음조화 실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 제보자에게서 보이는 수의적(치′버서~치′바서)인 양상은 모음조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이 지역의 80대, 70대에서의 모음조화 실현율은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60대부터 점차 모음조화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30대와 20대에서는 대략 85%의 모음조화 실현율을 보인다. 이 지역의 모음조화는 위에서 [표 7]~[표 10]으로 세대별 실현 양상을 제시했듯이 다음절 'ㅜ' 말음 어간, 1음절 ㅂ-불규칙 어간, 1음절 ㅛ 말음 어간 및 ㅙ 말음 어간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래에는 함북 육진 지역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이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언어 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모음조화에 관한 기존 논의 한영균(1994), 김아름(2008)에 의하면 15, 16세기 용언 어간과 '-아/어', '오/우'계 어미 결합에서도 모음조화의 예외형들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한영균(1994: 67-69), 김아름(2008: 40) 논의에서의 예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4) 밧긔 와 들**아**지라 ᄒᆞ야ᄂᆞᆯ<釋譜詳節 24: 3a>
世尊ᄭᅴ 내 ᄠᅳ들 펴**아** ᄉᆞᆯᄫᅡ쇼셔<釋譜詳節 6: 6a>
훙졍바지ᄃᆞᆯ히 길흘 몯 녀**아**<月印千江之曲 86>
오래 셔**아**이셔 ᄇᆞ라더니<釋譜詳節 11: 29b>
舍利弗의 그에 무**라**<月印千江之曲 86>

한영균(1994), 김아름(2008)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양성 모음 어간에 어미 '-어X'가 결합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성 모음 어간일 때 어미 '-아X'가 결합되는 양상이 활발히 나타난다고 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주로 음성 모음 어간 뒤에 양성 어미 '-아X'가 결합하는 것이 특징인 것에 대해 기존 논의들에서는 '형태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의 단일화'로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모음조화의 붕괴 역시 어간말 모음 또는 그에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 종류에 따라 어미 '-어X', '-아X'가 규칙적으로 선택되던 데로부터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음성 모음 어간 뒤에 어미 '-아X'가 결합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 또한 '형태소의 단일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는 함북 육진 지역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는 언어 외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중국 조선어 어문 규범', '한국어 어문 규범' 및 함경도 방언의 모음조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중국 조선어 어문 규범의 내용부터 보도록 한다.

[표 11] 중국 조선어 어문 규범-『조선말규범집(2016)』

조선말 맞춤법(제3장 어간과 토 적기)	붙임
제9항 일부 용언에서 어간과 토가 어울릴 때에 어간의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여지는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5) 어간의 끝소리 'ㅂ'을 '우'로 적는 경우 덥다: 덥고 덥지 더우니 더워 어둡다: 어둡고 어둡지 어두우니 어두워 춥다: 춥고 춥지 추우니 추워	다만 '곱-, 돕-'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토 '-아'가 결합되여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곱다: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제10항 용언 어간이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 때에는 그 어간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갈라 적는다. 3) 어간의 모음이 'ㅣ, ㅐ, ㅔ, ㅚ, ㅟ, ㅢ'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에는 '여, 였'으로 적는다.	그러나 어간이 받침으로 끝난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맺다: 맺어 맺었다 벗다: 벗어 벗었다

[표 11]은 '조선말 맞춤법' 제3장의 일부분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11]을 보면 '조선말 맞춤법'에는 ㅂ-불규칙 활용 어간이 규칙적인 활용이 아닌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본고의 조사 내용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1음절 ㅂ-불규칙 활용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어간말 모음에 따라 어미 '-아/어X'가 선택되는 것을 규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함북 육진 방언에서 보이는 어미 '-어X'>'-아X' 변화는 '중국 조선어 어문 규범' 즉 교육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한 한글 맞춤법(제4장) 내용과 근래 남한 방언의 모음조화 변화 양상에 대해 다룬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12] 한국어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6. 어간 끝 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굽다(炙): 구워 구우니 구웠다 밉다: 미워 미우니 미웠다 가깝다: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표 12]는 한국어 어문 규범 중의 '한글 맞춤법' 제4장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한글 맞춤법' 내용에 근거하면 1음절 ㅂ-불규칙 활용 어간들은 어간말 모음에 따라 어미 '-아/어X'가 선택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절 어간인 경우에는 어간말 모음에 상관없이 항상 어미 '-어X'가 결합된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내용으로부터 함북 육진 방언에서 보이는 어미 '-아X'>'-어X'의 변화는 매체를 통한 한국 표준어에 의한 영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남한 방언의 모음조화 변화 양상에 관한 최근 연구 자료 김동은(2020, 2021)은 1980년대의 방언 자료 《한국방언자료집》과 《지역어 조사 보고서》에 있는 2010년 전후의 방언 자료를 비교하여 경상 남북도 방언에서의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에 대해 다룬 논의이다. 어간말 음절이 'ㅜ'인 다음절·개음절 어간이 대체적으로 어미 '-아X'를 취하는 것은 기존 논의를 통해 잘 알려진 동남 방언 특징 중의 하나이다. 김동은(2020, 2021)에 의하면 어간말 음절이 'ㅜ'인 다음절·개음절 어간에 어미의 '-아X'>'-어X' 변화는 경상 남북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2)]

22) 김동은(2020, 2021)에 의하면 경상 남북도 방언에는 어간말 음절이 'ㅜ'이고 다음절·개음절 어간인 경우 어미 '-아X'가 결합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한글 맞춤법의 내용이나 최근 남한 방언에서의 모음조화 변화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한 방언에서의 '-아X'>'-어X' 변화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미 '-아X'가 선택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함북 육진 방언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붕괴 현상은 중국과 한국의 수교 이래 방송 매체를 통한 한국 표준어의 영향 또는 남한 기타 방언의 영향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함경도 방언의 모음조화에 대해 다룬 기존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함경도 방언의 모음조화에 대해 다룬 기존 논의로는 곽충구(1994), 채옥자(2002), 최명옥 외(2002), 김봉국(2004), 김춘자(2008), 오선화(2015) 등이 있다.

[표 13] 함경도 방언 모음조화 연구 자료 제보자 인적사항

	자료	제보자 출신 지역	제보자 거주지	제보자 출생연도
1	채옥자 (2002)	부모: 함경북도 온성군 제보자: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1920년대
2	최명옥 외 (2002)	부모: 경흥/온성/경원/종성/회령/나진 제보자: 중국-훈춘시/도문시/용정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도문시/용정시	1920~1930년대
3	김춘자 (2008)	부모: 함경남도 삼수군 제보자: 중국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십삼도구(삼수골)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십삼도구(삼수골)	1920년대
4	오선화 (2015)	함경북도 부령군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24세 때 이주)	1920년대

[표 13]은 함경도 방언의 모음조화에 대해 다룬 기존 논의들에서의 제보자 인적사항이다. 기존 논의들에서의 제보자 인적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은 제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조사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경상북도 상주 또는 경상남도 창녕·산청·하동 등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의식적인 발화에서 어미 '-어X'를 취하는 개신형이 보이고 자유발화에서는 '-아X'를 선택하거나 '-아X'~'-어X'가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14] 함경도 방언 모음조화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의 실현 양상

	어간 모음	채옥자 (2002) (함북 온성)	최명옥 외 (2002) (함북 북부)	김춘자 (2008) (함남 삼수군)	오선화 (2015) (함북 부령)	본고 (2022) (함북 경흥)
어간말 모음 'ㅜ'	ㅟ-ㅜ	-아X	-어X~-아X	-아X	-아X	-어X→-아X
	ㅣ-ㅜ	-아X	-어X~-아X	-아X	-아X	-어X→-아X
	X-ㅣ-ㅜ	-어X	-어X~-아X	-아X	-아X	-어X→-아X
ㅂ-불규칙 1음절 어간	덥-	-어X~-아X	X	-아X	-어X→-아X	-어X→-아X
	칩-	-어X~-아X	X	-어X→-아X	-아X	-어X~-아X →-아X

[표 14]는 함경도 방언의 모음조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서 보이는 어간말 모음이 'ㅜ'인 경우와 1음절 ㅂ-불규칙 어간이 어미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모음조화의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23]

위의 표로 제시한 함경도 방언의 모음조화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본고에서의 조사 지점과 인접한 지역의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된 논의들이다. 기존 논의에서의 제보자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이 대체적으로 80대~90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절이고 어간말 모음이 'ㅜ'인 경우와 1음절 ㅂ-불규칙 어간인 경우 어미 '-아X'를 취하거나 어미 '-어X~-아X'가 수의적으로 선택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조사한 지점에서보다 '-어X'>'-아X'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가 비교적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기술한 함북 육진 방언 모음조화의 세대별 양상에서 나타나는 '-어X'>'-아X'로의 변화는 어쩌면 순수한 언어 내적인 변이가 아닌 인접 지역과의 접촉으로 인한 인근 지역 타 방언형의 차용으로 볼 수도 있다.

23) 표준어에서의 ㅂ-불규칙 활용 어간은 [표 14]에서 언급한 기존 논의들에서 전부 규칙 활용을 보인다.

3.2. 움라우트

한국어의 움라우트는 동화주 'i, y'에 의하여 앞 음절의 모음이 같은 높이의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이숭녕 1935). 이는 선행하는 후설 모음이 후행하는 'i, y'의 조음 위치를 닮아 가는 모음 동화의 일종으로 '이-모음 역행 동화'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어의 움라우트에 대해서는 함북 방언을 다룬 田島泰秀(1918)에서 이 현상의 규칙성이 최초로 제기되었고 이숭녕(1935)에서 움라우트에 대한 대체적인 기제가 밝혀지면서 중앙어를 비롯한 여러 개별 방언에서도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김완진(1963, 1971), 이병근(1970, 1971), 최명옥(1988, 1989), 최전승(1986, 1989) 등과 같은 기존 논의에서는 움라우트 규칙에 관여하는 동화주, 피동화주 및 개재자음의 제약에 대해 체계화하고 움라우트의 공시성과 통시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으며 움라우트 제약의 예외에 대한 분석까지도 다루어지면서 움라우트 현상은 한국어 음운론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움라우트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반드시 개재자음이 있어야 하고 그 개재자음이 대체적으로 [+grave] 자질을 가진 자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선행 연구에서의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김영배(1985)에서는 평안도 방언의 경우, 곽충구(1986)에서는 20세기 초의 함북 북부방언 자료, 최전승(1989)에서는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의 자료를 통하여 개별 방언에서의 개재자음 제약을 무시하는 예를 제시하면서 개재자음 제약의 확산 정도와 강도가 개별 방언에 따라 다르므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에 주목하면서 함북 육진 방언에서 보이는 움라우트 현상의 세대별 변이 및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 노년층에서의 움라우트 실현 양상에 대해 검토한 다음 이 지역 세대별 화자들 간에서 보이는 움라우트의 실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만약 차이가 발견되면 그 실상에 대해 더 심화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3.2.1. 노년층 움라우트

함북 육진 방언의 세대별 움라우트 실현 양상을 다루기에 앞서 이 부분에서는 80대 화자를 대상으로 이 지역어의 형태소 내부 및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 실현 양상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래에는 개재자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피동화주가 '아[a]', '어[ə]'인 경우의 예를 제시한다.[24)]

(25) 가. 넹긴′다(넘기-, 咽)
쟁긴′다(잠기-, 浸)
메긴′다(먹이-, 吃)
배긴′다(박히-, 嵌)[25)]
나. 개낀′다(갇기-, 囚)
대낀′다(닫기-, 關)
매낀′다(맡기-, 委)
뻬낀′다(벗기-, 脫)
세낀′다(섞이-, 雜)
다. 재핀′다(잡히-, 執)
매킨′다(막히-, 塞)
배킨′다(박히-, 撞)[26)]

(26) 가. 헤빈′다(허비-, 撓)
뎀빈′다(덤비-, 扑)
예빈′다(여위-, 瘦)
나. 댕긴′다(당기-, 引)
애낀′다(아끼-, 惜)

---

24) '모기(목-이, 項)', '고비(곱-이, 脂)', '모미(몸-이, 身)'와 같이 피동화주가 '오'일 때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이 지역어의 모음 목록에는 그에 대립되는 전설 원순 모음 '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주로 피동화주가 '아' 또는 '어'인 경우에서의 움라우트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5)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다(박히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조사한 것이고 뜻풀이는 곽충구(2019: 1687)를 참고했다.

26) '박다'의 피동사로 '굴러오거나 날아온 주먹이나 돌 따위에 얻어맞다', '어떤 물체에 부딪히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조사하였고 뜻풀이는 곽충구(2019: 1690)를 참고했다.

(25)는 동사 어간에서 확인되는 단어 내부에서의 움라우트 실현 양상이다. 기존 논의 최명옥(1982: 73-76), 김성규(1987: 46-49)에 의하면 (25가)~(25다)와 같은 동사 어간에 '-이, -히, -기'와 같은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하는 움라우트 현상은 공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최명옥(1988: 69)에서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이라면 그 현상이 공시적으로 형태소의 교체에 의하여 일어나야 하는데 피·사동 접미사는 활용 어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사동 접미사에 의한 움라우트 규칙을 공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25)는 개재자음이 [+grave] 자질을 가진 예들이다. (25가)는 개재자음이 'ㄱ'이고 피동화주가 '아' 또는 '어'인 경우, (25나)는 개재자음이 'ㄲ'이고 피동화주가 '아', '어'인 경우, (25다)는 개재자음이 'ㅍ' 또는 'ㅋ'이고 피동화주가 '아'일 때 움라우트가 실현된 예들이다. 이와 같이 피동화주가 '아[a]', '어[ə]'이고 개재자음이 'ㄱ, ㄲ, ㅍ, ㅋ' 등과 같은 [+grave] 자질을 가지는 경우 함북 육진 방언에서는 움라우트가 실현된다.

(26)을 보면 (26가)와 (26나)는 동사 어간에서 확인되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 실현 양상이고 (26) 또한 개재자음이 [+grave] 자질을 가진 예들이다. (26가)는 개재자음이 'ㅂ'이고 피동화주가 '어'인 경우, (26나)는 개재자음이 'ㄱ', 'ㄲ'이고 피동화주가 '아'일 때 움라우트가 실현된 예들이다.

(27) 가. 애니′다(아니-, 非)
나. 데딘′다(더디-, 投)
다. 채린′다(차리-, 備)
대린′다(다리-, 熨)

앞서 다룬 (25), (26)과 달리 (27)은 개재자음이 [-grave] 자질을 가진 예들이다. (27가)는 개재자음이 'ㄴ'이고 피동화주가 '아'인 경우이고 (27나)는 개재자음이 'ㄷ'이고 피동화주가 '어'인 경우이며 (27다)는 개재자음이 'ㄹ'이고 피동화주가 '아'일 때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예들이다.[27] 이와 같이 함북 육진 방언에서는 피동화주가 '아'

27) 최명옥(1989:26)에서 'ㄹ'은 'i, y'에 선행할 때 [-high, -back]의 자질을 가진 탄설음 [ɾ]로 실현될 경우에 한하여 움라우트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기술한 바가 있다.

또는 ‘어’이고 개재자음이 ‘ㄴ’, ‘ㄷ’, ‘ㄹ’과 같은 [−grave] 자질을 가진 경우에도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8) 가. 애비′(아비, 父)
에′미(어미, 母)
디패막때기′(지팡이, 杖)
덩개′(정강이, 膝)
오′래비(오라비, 兄弟)
나. 재′비(자비, 自費)
채비′(차비, 車費)
핵꾜′(학교, 學校)

(28)은 체언 어간이고 형태소 내부에서 보이는 움라우트 실현 양상이다. (28)의 예들은 개재자음이 [+grave] 자질을 가진 것이다. (28가)는 피동화주가 ‘아’ 또는 ‘어’이면서 개재자음이 ‘ㄱ, ㅁ, ㅂ, ㅍ, ㆁ[ŋ]’ 인 경우이고 (28나)는 피동화주가 ‘아’이고 개재자음이 ‘ㄲ, ㅂ’일 때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예들이다. 이와 같이 함북 육진 방언에서는 피동화주가 ‘아’ 또는 ‘어’이고 개재자음이 ‘ㄱ, ㄲ, ㅁ, ㅂ, ㅍ, ㆁ[ŋ]’과 같은 [+grave] 자질을 가진 자음인 경우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28가)와 (28나)의 다른 점이라면 (28나)가 한자어라는 것이다. 김완진(1971: 106-107)에 의하면 한자어는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어간과 같으므로 매 음절 사이에 단어 경계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 경계가 화자들에게 단일 어간으로 인식되면서 형태론적 제약에서 벗어난다고 기술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함북 육진 방언 화자들이 ‘재′비(自費)’, ‘채비′(車費)’, ‘핵꾜′(學校)’와 같은 단어를 단일 어간으로 인식하면서 움라우트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9) 쌔미′(쌈−이, 包)
태′기(탁−이, 顎)
게′비(겁−이, 怯)
베′이(병−이, 病)

(29)는 형태소 경계를 두고 체언 어간과 주격 조사 '-이'의 결합에서 움라우트가 실현된 예이다. 체언 어간과 주격 조사 '-이'의 결합에서 보이는 움라우트 현상은 함북 육진 방언에서 보이는 공시적인 성격을 가진 움라우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9)는 피동화주가 '아', '어'이면서 개재자음이 'ㄱ, ㅁ, ㅂ, ㅇ[ŋ]' 인 경우이며, (29)와 같은 예를 통해 함북 육진 방언에서 피동화주가 '아' 또는 '어'이고 개재자음이 'ㅁ, ㄱ, ㅂ, ㅇ[ŋ]'과 같은 [+grave] 자질을 가진 자음인 경우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3.2.2. 움라우트의 세대별 변이

이 부분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 움라우트 현상의 세대별 차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환경 조건에 따라 세대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로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 통시적인 규칙으로서의 움라우트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은 동사 어간과 피·사동 접미사의 결합이나 동사 어간 또는 체언 어간의 형태소 내부에서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시적인 성격의 움라우트 실현은 체언 어간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움라우트 실현 양상을 연령별로 보여 줄 수 있는 21개의 어휘 항목을 표로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01: 넘기- 02: 잠기- 03: 먹이- 04: 박히- 05: 갇기-[28] 06: 닫기- 07: 맡기-
08: 벗기- 09: 섞이- 10: 잡히- 11: 막히- 12: 박히- 13: 아니- 14: 더디-[29]
15: 차리- 16: 다리- 17: 허비- 18: 덤비- 19: 여비- 20: 당기- 21: 아끼-

28) 함북 육진 방언에서 '갇기-'의 세대별 활용 양상은 '개끼-(갇기-), 가키-(각히-), 가치-(갇히-)'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29) 함북 육진 방언에서 '던지-'의 세대별 활용 양상은 '데디->덴지->던지-'와 같이 세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실현된다.

[표 15] 움라우트 세대별 실현 양상1 (○: 실현 됨 X: 실현 안 됨)[3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M_1(82)	○	○	○	○	○	○	○	○	○	○	○	○	○	○	○	○	○	○	○	○	○
F1(81)	○	○	○	○	○	○	○	○	○	○	○	○	○	○	○	X	○	○	○	○	○
F2(78)	○	○	○	○	○	○	○	○	○	○	○	○	○	○	○	X	○	○	○	○	○
M_2(74)	○	○	○	○	○	○	○	○	○	○	○	○	○	○	○	X	○	○	○	○	○
M_3(72)	○	○	○	○	○	○	○	○	○	○	○	○	○	○	○	X	○	○	○	○	○
F_3(71)	○	○	○	○	○	○	○	○	○	○	○	○	○	○	○	X	○	○	○	○	○
F_4(67)	○	○	○	○	○	○	○	○	○	○	○	○	○	○	○	X	○	○	○	○	○
M_4(66)	○	○	○	○	○	○	○	○	○	○	○	○	○	○	○	X	○	○	○	○	○
F_5(64)	○	○	○	○	○	○	○	○	○	○	○	○	○	○	○	X	○	○	○	○	○
M_5(60)	○	○	○	○	○	○	○	○	○	○	○	○	○	○	○	X	○	X	○	○	○
M_6(56)	○	○	○	○	○	○	○	○	○	○	○	○	○	○	○	X	○	○	○	○	○
F_6(55)	○	○	○	○	○	○	○	○	○	○	○	○	○	○	○	X	○	○	○	○	○
M_7(54)	○	○	○	○	X	○	○	○	○	○	○	○	X	○	○	X	○	X	○	○	○
F_7(53)	○	○	○	○	X	○	○	○	○	X	X	○	X	X	X	X	X	X	X	○	X
M_8(49)	○	○	○	○	X	○	○	○	○	X	○	○	X	○	○	X	X	○	○	○	X
M_9(46)	○	X	○	○	○	○	○	○	X	X	○	○	X	○	X	X	X	○	○	○	X
F_8(44)	○	○	○	○	○	○	○	○	X	○	○	○	X	○	X	X	○	○	○	○	○
F_9(42)	X	X	○	○	○	○	X	○	○	X	X	○	X	○	X	X	X	X	○	○	○
M_{10}(37)	X	X	○	○	X	X	X	○	X	X	X	○	X	X	X	X	X	X	X	○	X
F_{10}(36)	X	○	○	○	X	○	X	○	○	X	X	○	X	X	X	X	X	X	X	○	○
M_{11}(35)	X	X	○	○	X	X	X	○	X	X	X	○	X	X	X	X	X	X	X	○	X
F_{11}(33)	X	X	○	○	X	X	X	○	X	X	X	○	X	X	X	X	X	X	X	○	X
F_{12}(29)	X	X	○	○	X	X	X	○	X	X	X	○	X	X	X	X	X	X	X	○	X
M_{12}(26)	X	X	○	○	X	X	X	○	X	X	X	○	X	X	X	X	X	X	X	X	X
F_{13}(23)	X	X	○	○	X	X	X	○	X	X	X	○	X	X	X	X	X	X	X	X	X

30) 박경래(1993: 157-158) 논의에서의 기술 방식을 참고하였다.

[표 15]를 보면 개재자음이 'ㄹ'인 '다리-(熨)'와 같은 경우 80대에서부터 움라우트 실현 양상이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은 개재자음이 'ㅂ'인 경우 60대에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재자음이 'ㄲ, ㅍ, ㅋ'와 'ㄴ, ㄷ, ㅈ'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0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개재자음이 'ㄱ'인 경우에는 40대에서부터 움라우트 실현 양상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표 15]에서도 나타나듯이 피동화주가 같고 개재자음이 같은 경우라도 어휘 항목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 [표 16]은 체언 어간이고 형태소 내부에서 보이는 함북 육진 방언 움라우트 현상의 세대별 실현 양상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6] 움라우트 세대별 실현 양상2 (○: 실현 됨 X: 실현 안 됨)

	아비	어미	자비(自費)	차비(車費)	학교	디팡이	덩강이	오라비
M_1(82)	○	○	○	○	○	○	○	○
F1(81)	○	○	○	○	○	○	○	○
F2(78)	○	○	○	○	○	○	○	○
M_2(74)	○	○	○	○	○	○	○	○
M_3(72)	○	○	○	○	○	○	○	○
F_3(71)	○	○	○	○	○	○	○	○
F_4(67)	○	○	○	○	○	○	○	○
M_4(66)	○	○	○	○	○	○	○	○
F_5(64)	○	○	○	○	○	○	○	○
M_5(60)	○	○	○	○	X	○	○	○
M_6(56)	○	○	○	○	○	○	○	○
F_6(55)	○	○	○	○	○	○	○	○
M_7(54)	○	○	○	○	X	○	○	○
F_7(53)	○	○	○	○	○	○	○	○
M_8(49)	○	○	○	○	○	○	○	△
M_9(46)	○	○	○	X	X	○	○	△
F_8(44)	○	○	○	○	○	○	○	△
F_9(42)	○	○	○	○	X	○	○	△
M_{10}(37)	○	○	○	○	○	○	○	△

F_{10}(36)	○	○	○	X	X	○	○	△
M_{11}(35)	○	○	○	X	X	○	○	△
F_{11}(33)	○	○	○	X	X	○	○	△
F_{12}(29)	○	○	○	X	X	○	○	△
M_{12}(26)	○	○	○	X	X	○	○	*
F_{13}(23)	○	○	*	X	X	X	○	*

△: 사용하지 않음. *: 어휘를 모름.

[표 16]은 형태소 내부 체언 어간에서 나타나는 이 지역에서의 세대별 움라우트 실현 양상이다. [표 16]을 보면 60대에서부터 움라우트 실현 양상이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표 15] 동사 어간이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세대별 움라우트 실현 양상과 비교했을 때 체언 어간에서 움라우트 실현의 동요가 비교적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동요 정도도 용언 어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움라우트 세대별 실현 양상3 (○: 실현 됨 X: 실현 안 됨)

	쌈-이	탁-이(턱)	겁-이	병-이
M_1(82)	○	○	○	○
F1(81)	○	○	○	○
F2(78)	○	○	○	○
M_2(74)	○	○	○	○
M_3(72)	○	○	○	○
F_3(71)	○	○	○	○
F_4(67)	○	○	○	○
M_4(66)	○	○	○	○
F_5(64)	○	○	○	○
M_5(60)	○	○	X	○
M_6(56)	○	○	○	○
F_6(55)	○	○	○	○
M_7(54)	○	○	X	○
F_7(53)	○	○	○	○

M_8(49)	○	○	X	○
M_9(46)	○	○	X	○
F_8(44)	○	○	○	○
F_9(42)	○	○	○	○
M_{10}(37)	○	○	○	○
F_{10}(36)	○	○	X	○
M_{11}(35)	○	○	X	○
F_{11}(33)	○	○	X	○
F_{12}(29)	○	○	X	○
M_{12}(26)	○	○	X	○
F_{13}(23)	○	○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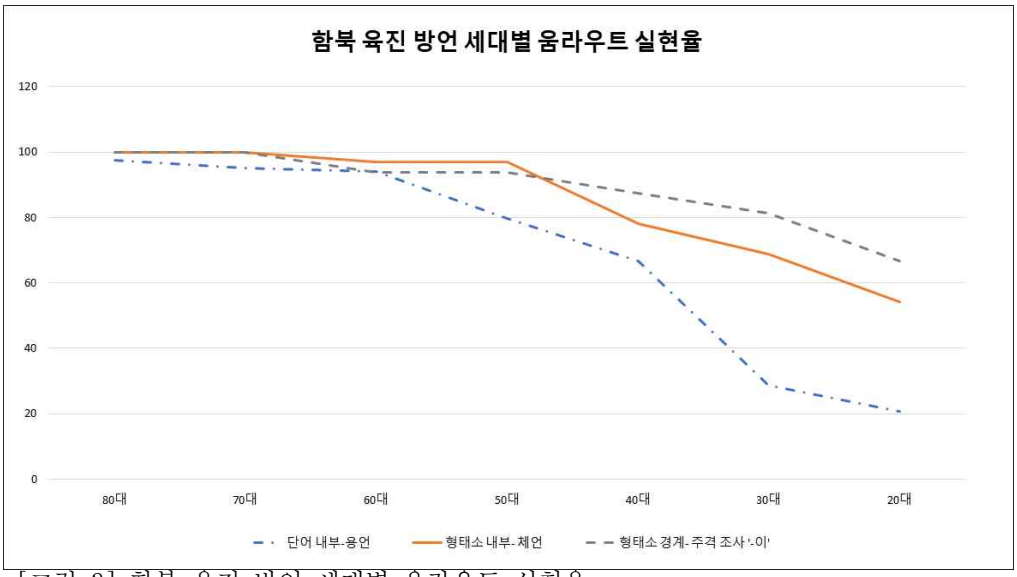
[표 17]은 형태소 경계이고 체언 어간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움라우트 현상의 세대별 변화 양상이다. 이는 본고에서 관찰한 함북 육진 방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시적인 성격을 가진 움라우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항목 4개 중에서 3개 어휘 항목이 함북 육진 방언을 사용하는 대다수 연령층 화자들에게서 움라우트 현상이 실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로써 비록 형태소 경계에서 보이는 움라우트 현상이지만 이 지역 화자들에게는 형태론적으로 화석화되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으로 앞서 살펴 본 단어 내부(용언), 형태소 내부(체언) 및 형태소 경계(주격 조사 '-이')에서 함북 육진 방언의 움라우트 실현 정도를 연령층에 따라 비율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8] 함북 육진 방언의 세대별 움라우트 실현율(%)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단어 내부-용언	97.6	95.2	94.0	79.8	66.7	28.6	20.6
형태소 내부-체언	100	100	96.9	96.9	78.1	68.8	54.2
형태소 경계-주격 조사 '-이'	100	100	93.8	93.8	87.5	81.3	66.7

함북 육진 방언의 움라우트 실현율을 연령층에 따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함북 육진 방언 세대별 움라우트 실현율

위의 [표 18]과 [그림 3]의 그래프를 보면 이 지역의 80대부터 60대까지의 움라우트 실현 정도는 항상 90%~100%에 달하는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 20대에서는 20%~60%의 실현율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환경 조건에 따르면 동사 어간에서 확인되는 단어 내부에서의 세대별 움라우트 실현율은 80대에서는 97.6%, 20대에서는 20.6%로 나타나면서 비교적 큰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교육에 의한 표준어의 차용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체언 어간에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움라우트의 실현 정도를 관찰해보면 80대부터 50대까지의 실현율은 90%~100%에 달하고 20대에서도 60% 이상의 실현율을 보인다. 형태소 경계를 두고 체언 어간과 주격 조사 '-이'와의 결합형에서 움라우트 실현율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20대에서의 실현율도 66.7%로 기타 환경에서 실현되는 움라우트에 비해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 현상이나 이 지역 화자들에게는 형태론적으로 화석화되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3. 전설모음화

전설모음화는 특정한 자음에 의한 후설 평순 고모음인 'ㅡ'가 전설 모음인 'ㅣ'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즉 선행 자음에 의한 후행 모음의 동화로서 순행 동화에 속한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전설모음화를 일으키는 자음은 방언에 따라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자음 'ㅅ, ㅆ, ㅈ, ㅉ, ㅊ' 뒤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언에 따라 선행하는 자음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이 현상을 가리키는 술어는 지금까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 논의들에서는 선행하는 자음의 자질에 따라 '전설모음화', '전부모음화', '전설고모음화', '구개모음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고는 'ㅅ, ㅈ, ㅊ' 아래에서 후행 모음이 'ㅡ'가 'ㅣ'로 변화하는 현상은 선행 자음의 구개성(口蓋性)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논의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ㅅ, ㅈ, ㅊ'이 치조음으로 발음되므로 '구개모음화'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개모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모음 체계를 구개음과 비구개음의 대립 체계로 보아야 한다는 무리도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개모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설모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 노년층의 전설모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검토한 뒤 이 지역의 세대별 화자들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3.1. 노년층 전설모음화

함북 육진 방언의 세대별 전설모음화 실현 양상 및 차이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이 지역의 80대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지역어의 전설모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30) 가. 스리'다(시리-, 凉)
슬'타(싫-, 厭)
승겁따'(싱겁-, 淡)
나. 즐다'(질-, 泥)
쯛'는다(찢-, 撕)

어′즈럽따(어지럽-, 亂)
머금′즈가다(먹음직하-)
다. 츠′다(치-, 鏟)

(31) 가. 정슴(점심, 午)
나. 즘승(짐승, 禽)
즛′(짓, 行爲)
안즉′(아직, 依舊)
버즘′(버짐, 癬)
마즈막(마지막, 末)
다. 메츨′(며칠, 幾日)
아츰(아침, 朝)
기츰′(기침, 咳)

위의 (30)은 용언 어간인 경우 전설모음화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 지역의 80대에서는 전설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들이고 (31)은 체언 어간 형태소 내부에서 전설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예들이다. (30)부터 보면 (30가)~(30다)에서의 선행 자음 'ㅅ, ㅈ, ㅉ, ㅊ'과 모음 'ㅡ'가 결합한다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31)의 경우 역시 체언 어간에서 선행 자음이 'ㅅ, ㅈ, ㅊ'일 때 모음 'ㅡ'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30), (31)과 같은 예를 통하여 이 지역의 'ㅅ, ㅈ, ㅉ, ㅊ'은 모음 'ㅡ' 앞에서 치조음으로 발음되고 이 지역의 80대에서는 전설모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2. 전설모음화의 세대별 변이

이 부분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 전설모음화의 세대별 차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여 선행하는 자음이 'ㅅ, ㅈ, ㅉ, ㅊ'인 경우 세대 간의 전설모음화 실현 양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01: 시리- 02: 싫- 03: 싱겁- 04: 질- 05: 찢- 06: 어지럽- 07: 먹음직하-
08: 치- 09: 정심 10: 지금 11: 짓- 12: 아직 13: 버짐 14: 마지막 15: 며칠
16: 아침 17: 기침

[표 19] 전설모음화 세대별 실현 양상 (○: 실현 됨 X: 실현 안 됨)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M_1(82)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F1(81)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F2(78)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M_2(74)	X	X	X	X	X	X	X	X	○	○	X	X	X	X	X	○	X
M_3(72)	X	X	X	X	X	X	X	X	○	○	X	X	X	X	X	○	X
F_3(71)	X	X	X	X	X	X	X	X	○	○	X	X	X	X	X	X	X
F_4(67)	X	X	X	X	X	X	X	X	○	○	X	X	X	X	X	○	X
M_4(66)	X	X	X	X	X	X	X	X	○	X	X	X	X	X	X	○	X
F_5(64)	X	X	X	X	X	X	X	X	○	○	X	X	X	X	X	○	X
M_5(60)	X	○	X	X	X	X	X	X	○	○	X	○	X	○	X	○	X
M_6(56)	X	○	X	X	X	X	X	X	○	○	X	○	X	X	X	○	X
F_6(55)	X	X	X	X	X	X	X	X	○	○	X	X	X	X	X	○	X
M_7(54)	○	○	X	X	X	X	X	X	○	○	X	○	X	X	○	○	○
F_7(53)	○	X	X	X	X	○	○	X	○	○	X	○	X	○	○	○	○
M_8(49)	○	X	X	X	X	X	X	X	○	○	X	○	X	○	○	○	○
M_9(46)	○	○	X	X	X	○	○	X	○	○	○	○	X	○	○	○	○
F_8(44)	○	○	X	X	X	X	X	X	○	○	X	○	○	○	○	○	○
F_9(42)	○	○	X	X	X	X	X	X	○	○	X	○	○	○	○	○	○
M_{10}(37)	○	○	X	X	X	○	○	X	○	○	○	○	○	○	○	○	○
F_{10}(36)	○	○	X	X	X	○	○	X	○	○	○	○	○	○	○	○	○
M_{11}(35)	○	○	X	X	X	○	○	X	○	○	○	○	○	○	○	○	○
F_{11}(33)	○	○	X	X	X	○	○	X	○	○	○	○	*	○	○	○	○
F_{12}(29)	○	○	X	X	X	○	○	X	○	○	○	○	○	○	○	○	○
M_{12}(26)	○	○	X	X	○	○	○	X	○	○	○	○	*	○	○	○	○
F_{13}(23)	○	○	X	X	○	○	○	X	○	○	○	○	*	○	○	○	○

*어휘를 모름.

위의 [표 19]는 선행 자음이 'ㅅ, ㅈ, ㅉ, ㅊ'인 경우 용언 어간, 체언 어간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전설모음화 실현 양상을 세대별로 제시한 표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지역의 80대에서는 전설모음화가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70대 화자들부터 어휘 항목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설모음화가 적용된 어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개 조사 항목을 대상으로 함북 육진 방언의 전설모음화 실현율을 연령층에 따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함북 육진 방언 세대별 전설모음화의 실현율

위의 그래프를 통하여 이 지역의 80대에서 나타나는 전설모음화 실현율은 0%이고 20대에서의 전설모음화 실현율은 거의 80%에 달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이 지역의 자음 체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세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 지역의 전 연령층 화자들은 /ㅅ, ㅈ, ㅉ, ㅊ/을 모음 'ㅡ' 앞에서 치조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보이는 개신형의 출현은 순수한 언어 내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교육에 의한 연변 표준어의 차용으로 추측할 수 있다.

3.4. 자음군단순화

현대 한국어에는 음절말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는 음절 구조 제약이 존재한다. 즉 현대 한국어에서의 자음군단순화란 음절말에 놓인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자음군단순화는 강력한 음절 구조 제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용 환경이 조성되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음운 현상이다.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자음군단순화의 적용 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진호(2010: 563)에 의하면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군이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형태소와 결합할 때 또는 뒤에 휴지가 올 때 음절말에 자음군이 놓이게 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선행 형태소가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지만 후행하는 형태소와의 결합 과정에서 음절말에 자음군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는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군에 대한 전형적인 자음군단순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80대 화자를 대상으로 함북 육진 방언의 자음군단순화 실현 양상에 대해 검토한 다음 세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4.1. 노년층 자음군단순화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노년층에서 볼 수 있는 어간말 자음군으로는 'ㄱ씨, ㅂ씨, ㄹ씨, ㄺ, ㄻ, ㄾ, ㅈ, 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체언 어간말 자음군과 용언 어간말 자음군으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한다.

3.4.1.1. 체언의 경우

함북 육진 방언에 존재하는 체언 어간말 자음군은 총 5개이고 그중에서 장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으로 'ㄱ씨, ㅂ씨',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으로 'ㄺ, ㄻ, ㄹ씨'이 있다. 장애음이 선행하는 'ㄱ씨', 'ㅂ씨'의 예부터 보도록 한다.

(32) 가. 넉씨/넉: 넉뚜', 넉씨'~너기', 넉쓰'(넋, 魂)
　　목씨/목: 목뿌터', 목씨'~모기', 목쓰'(몫, 份)
　나. 갑씨: 갑'뿌터, 갑'씨, 갑'쓰(값, 價)

(32가)는 어간말 자음군이 'ㄱㅆ'인 어간 '넉ㅆ', '목ㅆ'이 조사 '-두', '-부터', '-이', '-으'와 결합할 때의 곡용형이고 (32나)는 어간말 자음군이 'ㅂㅆ'인 어간 '갑ㅆ'의 곡용형이다. (32가)에서는 'ㄱㅆ'을 가진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두', '-부터'와 결합할 때 후행 자음 'ㅆ'이 탈락하고 'ㄱ'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이'와의 결합에서 이 지역의 80대에서는 '넉씨′~너기′′, '목씨′~모기′′와 같은 표면형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1]

(33) 가. 닭: 닥뿌터′, 달기′, 달그′(닭, 鷄)
흙: 흑뿌터′, 흘기′, 흘그′(흙, 土)
나. 야듧: 야듭′뿌터, 야득′깨, 야들′비(여덟, 八)
다. 돌ㅆ: 돌′부터, 돌′씨, 돌′쓰(돌, 周歲)

(33)은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ㄽ, ㄹㅆ'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어간들이다. (33가)는 'ㄺ'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 '닭', '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부터'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고 'ㄱ'이 남게 되는 자음군단순화의 예를 보여준 것이다. (33나)에서는 'ㄽ' 자음군을 가진 어간 '야듧'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또는 휴지 앞에서 'ㅂ'으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예를 보여준 것이다. (33다)를 통해 'ㄹㅆ' 자음군 어간 '돌ㅆ'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ㅆ'이 탈락하고 'ㄹ'로 단순화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함북 육진 방언의 체언 어간말 자음군단순화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간말 자음군 'ㄱㅆ', 'ㅂㅆ'과 같이 선행하는 자음이 장애음인 경우에는 항상 후행하는 자음이 탈락하고 선행하는 자음 'ㄱ', 'ㅂ'으로 자음군단순화 된다. 유음이 선행하는 어간말 자음군 'ㄺ', 'ㄽ'의 경우를 보면 선행하는 유음이 탈락하고 'ㄱ', 'ㅂ'으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하지만 유음이 선행하는 'ㄹㅆ'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는 'ㅆ'이 탈락하고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양상을 보인다.

31) 이 지역에서는 '넉'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주로 '넉이′ 낫다(넋이 빠졌다)', '넉이′ 떨어디다(넋이 나가다)', '넉으′ 먹다(겁을 먹다)'와 같이 사용한다(곽충구 2019: 661-662 참고).

3.4.1.2. 용언의 경우

함북 육진 방언에 존재하는 용언 어간말 자음군은 총 7개이고 그중에는 장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ㅂㅆ',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ㄵ, ㄶ',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ㄺ, ㄾ, ㅀ, ㄿ' 등 7가지가 확인된다. 먼저 장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ㅂㅆ'의 단순화 양상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34) 가. 업ㅆ-: 억'꾸, 업'떠라, 업'써서, 업'쓰무(없-, 無)

(34가)는 'ㅂㅆ'을 어간말 자음군으로 하는 어간 '업ㅆ-'의 활용형이다. '업ㅆ-' 어간은 자음 어미 '-구', '-더라'와 결합할 때 'ㅆ'이 탈락하고 'ㅂ'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다음은 비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 'ㄵ', 'ㄶ'의 활용 양상이다.

(35) 가. 앉-: 안꾸', 안떠'라, 안는다'(앉-, 坐) cf. 안자'서, 안즈'무
나. 많-: 만'냐(많-, 多) cf. 만'쿠, 만'터라, 마'내서, 마'느무

(35)은 'ㄴ'이 선행하는 자음군 어간 '앉-'와 '많-'의 활용형이다. (35가)에서와 같이 'ㄵ'을 어간말 자음군으로 가진 '앉-'는 '-구', '-더라', '-는다'와 결합할 때 'ㅈ'이 탈락하고 'ㄴ'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35나)는 'ㄶ'을 어간말 자음군으로 가지는 '많-'의 활용형이다. 'ㄶ'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많-'는 어미 '-냐'와 결합하는 경우 'ㅎ'이 탈락하고 'ㄴ'으로 단순화된다. 그리고 자음 어미 '-구', '-더라'와의 결합에서 'ㅎ'이 후행하는 자음을 격음화시켜 'ㅋ', 'ㅌ'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된다. '많-'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만ᄒᆞ-'였으므로 모음 어미 '-아X'와의 결합에서 'ᄒᆞ-'의 활용형 '해서'에 영향을 받아 이 지역에서 이전 시기 '만ᄒᆞ-'의 활용형 '마'내서'로 실현되는 것이다.[32]

유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 'ㄺ', ㄾ', 'ㅀ', 'ㄿ'의 단순화 실현 양상이다.

32) 이진호 (1997: 17)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에서의 'ㄶ' 자음군을 가진 '많-', '않-'는 중세 한국어의 '만ᄒᆞ-', '아니ᄒᆞ-'에서 온 것이다. 이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형 '만코(월석 10:23b)', 만타라(월석 10:23)' 등과 같은 활용형에 의해 재구조화가 일어나면서 'ㄶ'이 형성된 것이다.

(36) 가. 늙-: 늑꾸′, 늑떠′라, 늘거′서, 늘그′무(늙-, 老)
밝-: 박꾸′, 박떠′라, 발가′서, 발그′무(밝-, 明)
니르/닑-~닑-: 니르구′~닉꾸′, 니르더′라~닉떠′라, 닐거′서, 닐그′무(밝-, 明)
나. 닮-/딤-: 담′꾸, 담′떠라, 달마′서~담마′서, 달무′무~담무′무(닮-, 比)
삶-/삼-: 삼′꾸, 삼′떠라, 살마′서~삼마′서, 살무′무~삼무′무(삶-, 蒸)
다. 뚫-: 뚝꾸′, 뚭떠′라, 뚤버′서, 뚤부′무(뚫-, 穿)
볿-: 복′꾸, 봅′떠라, 볼바′서, 볼부′무(밟-, 踩)
라. 잃-: 일쿠′, 일터′라, 일른다′, 이러′서(잃-, 失)
핥-: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핥-, 舔)

(36가)에서의 'ㄺ'을 어간말 자음군으로 가진 어간 '늙-', '밝-'의 활용형을 보면 'ㄺ' 어간말 어간 '늙-', '밝-'는 자음 어미 '-구', '-더라'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늑꾸′, 늑떠′라', '박꾸′, 박떠′라'로 실현된다. (36가)에서 볼 수 있듯이 'ㄺ' 자음군 어간 '읽-'는 이 지역의 80대에서 '니르/닑-' 다중 기저형 어간과 '닑-' 어간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 자음군 어간 '닑-'인 경우 '늙-', '밝-'의 활용형과 마찬가지로 자음 어미 '-구', '-더라'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을 남기는 방향으로의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난다.

(36나)에서는 어간말 자음군 'ㄻ'을 가진 '닮-', '삶-' 활용형의 예를 보여준 것이다. '닮-', '삶-' 어간은 자음 어미 '-구', '-더라'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고 'ㅁ'으로 단순화되어 '담′꾸, 담′떠라', '삼′꾸, 삼′떠라'로 실현된다. (36나)에서 모음 어미 또는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하면 '담마′서', '삼마′서', '담무′무, 삼무′무'와 같이 나타나는 표면형으로부터 자음군 'ㄻ'이 'ㅁㅁ'으로 재구조화되어 이 지역의 80대에서 수의적인 실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34]

---

33) 곽충구(1994: 239)에 의하면 15세기 중앙어에서 '니르-/닐ㅇ-'는 '謂'의 의미를 지닌 어사로서 '讀'의 의미를 지닌 '닑-'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그러나 육진 방언에서는 '이르다(謂)'와 '읽다(讀)'의 방언형이 동일하게 '니르-'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육진 방언에서의 활용형은 15세기 중앙어에서 나타나는 '니르-/닐ㅇ-'(謂), '닑-'(讀)와 같은 어형 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34) 최명옥(1980: 230)에서는 경상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썰물>섬물', '밀물>밈물'과 같은 예로부터 'ㄻ>ㅁㅁ'의 음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논의로 이진호(2008: 157)에서는 함경도 방언이나 경상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삶-', '굶-'와 같은 어간은 매개 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형태 '살므X/굴므X, 살마X/굴머X'에

(36다)는 'ᄅᄇ' 자음군을 가진 어간 '뚧-',[35] '봃-'의 활용형이다. (36다) '둛-', '봃-' 어간은 자음 어미 '-구', '-더라'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하고 'ㅂ'으로의 자음군 단순화를 겪는다.

(36라)는 'ㄶ'을 어간말 자음군으로 가진 어간 '잃-', '핧-'의 활용형이다. (36라)를 보면 '잃-', '핧-' 어간은 자음 어미 '-구', '-더라'와의 결합에서 'ㅎ'이 후행하는 자음을 격음화하여 'ㅋ' 또는 'ㅌ'으로 실현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다'와의 결합에서는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된 후 유음화를 겪은 양상이 확인된다. 현대 한국어에서 'ㄾ'을 자음군으로 가진 어간 '핥-'가 이 지역의 80대에서는 'ㄶ' 자음군을 가진 '핧-'로 나타나는 데 이는 중세 한국어 시기의 어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상 함북 육진 방언 용언의 어간말 자음군단순화에 대해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음이 선행하는 어간말 자음군 'ㅂㅆ'은 후행하는 자음 'ㅆ'이 탈락하고 선행하는 장애음 'ㅂ'으로 자음군단순화 된다. 다음 비음이 선행하는 어간말 자음군 'ㄵ'은 비음 'ㄴ'으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마지막으로 유음이 선행하는 어간말 자음군 'ㄺ', 'ㄻ', 'ㄾ', 'ㄶ'을 보면 'ㄺ', 'ㄻ', 'ㄾ'은 선행하는 유음 'ㄹ'이 탈락하고 후행하는 자음으로의 단순화가 일어나고 'ㄶ'의 경우에는 비음이 선행하는 어미 '-는다'와 결합할 때 선행하는 유음 'ㄹ'로의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된다.

위에서 체언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 나누어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이 지역 노년층의 자음군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함북 육진 방언의 노년층 자음군 목록

자음군의 구조 / 어간	장애음 선행	비음 선행	유음 선행
체언	ㄱㅆ, ㅂㅆ		ㄺ, ㄾ, ㄹㅆ
용언	ㅂㅆ	ㄵ, ㄶ	ㄺ, ㄻ, ㄾ, ㄶ

'ㅁ'이 복사된 후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삼마', '굼머'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5) 중세 한국어 시기 어간말 자음군 'ㄹㅸ'이었던 '듧-'는 현대 한국어에서 'ㄶ'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되어 나타난다(배영환 2013: 79, 김수영 2021: 138). 김수영(2021: 130)에 의하면 'ㄹㅸ' 어간말 자음군은 동남 방언과 동북 방언을 중심으로 'ㄹㅸ>ㄾ'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3.4.2. 자음군단순화의 세대별 변이

이 부분에서는 3.4.1에서 다룬 노년층의 자음군단순화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어간 말 자음군을 가진 어간들의 곡용형 및 활용형으로부터 세대 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ㄻ' 말음 체언 어간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 'ㄻ' 말음 체언 어간-야듦/여덞(八)

	단독형	-보다	#개(個)	#시(時)
M_1(82)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1(81)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2(78)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M_2(74)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M_3(72)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_3(71)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_4(67)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M_4(66)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_5(64)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M_5(60)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M_6(56)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_6(55)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M_7(54)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_7(53)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M_8(49)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M_9(46)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_8(44)	야듭′	여덥′뽀다	여덕′깨	여덥씨′
F_9(42)	야듭′	여덥′뽀다	여덜′깨	여덥씨′
M_{10}(37)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_{10}(36)	야듭′	여덥′뽀다	여덕′깨	여덥씨′
M_{11}(35)	야듭′	야듭′뽀다	야득′깨	야듭씨′
F_{11}(33)	여덥′	여덥′뽀다	여덜′깨	여덥씨′
F_{12}(29)	여덥′	여덥′뽀다	여덜′깨	여덜씨′
M_{12}(26)	여덥′	여덥′뽀다	여덜′깨	여덥씨′
F_{13}(23)	여덥′	여덥′뽀다	여덜′깨	여덜씨′

[표 21]은 'ㄻ' 자음군 체언 어간 '야듧/여덟'의 단독형, 곡용형 또는 어휘 형태소 '개(個)', '시(時)'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세대별 실현 양상이다. [표 21]을 보면 'ㄻ' 자음군 어간 '야듧/여덟'은 단독형으로 발음되거나 또는 조사 '-보다'와의 결합에서는 항상 'ㄹ'이 탈락하고 'ㅂ'으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형태소 '개(個)', '시(時)'가 결합하는 경우에서이다. '야듧/여덟' 어간에 어휘 형태소 '개'가 결합할 때 이 지역의 80대부터 40대(F_9 제외)까지는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여 '야득'깨/여덕'깨'로 나타난다. 40대인 F_9 화자를 포함한 30대의 일부 및 20대들은 'ㅂ'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여덜'깨'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 '야듧/여덟' 어간에 어휘 형태소 '시'가 결합하는 경우를 보면 이 지역의 80대부터 20대 남성 화자까지는 'ㄹ'이 탈락하여 'ㅂ'으로 자음군단순화 되어 '야듭씨'/여덥씨''로 실현되지만 20대 여성 화자들은 'ㅂ'이 탈락하여 '여덜씨''로 발음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표 21]로부터 이 지역의 'ㄻ'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체언 어간 '야듧/여덟'은 단독형으로 발음하거나 조사 '-보다'와 결합할 때는 항상 'ㅂ'으로 자음군단순화 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형태소 '개', '시' 앞에서는 'ㄹ'이 탈락하고 'ㅂ'을 남기던 데로부터 반대로 'ㄹ'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방향으로 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ㄺ' 말음 자음군 용언 어간에 대해 보도록 한다.

[표 22] 'ㄺ' 말음 용언 어간

	긁-		늙-		니르/닑/읽-		맑-		밝-	
	-구	-더라	-구	-더라	-구	-더라	-구	-더라	-구	-더라
M1(82)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니르구'~닉꾸'	니르더'라~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1(81)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니르구'~닉꾸'	니르더'라~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2(78)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닉꾸'	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2(74)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닉꾸'	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3(72)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닉꾸'	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3(71)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닉꾸'	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4(67)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닉꾸′	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4(66)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닉꾸′	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5(64)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닉꾸′	닉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5(60)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6(56)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6(55)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7(54)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7(53)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8(49)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9(46)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8(44)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9(42)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M10(37)	글꾸′	극떠′라	늘꾸′	늑떠′라	일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10(36)	글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일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발꾸′	박떠′라
M11(35)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박꾸′	박떠′라
F11(33)	극′꾸	극떠′라	늑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막꾸′	막떠′라	발꾸′	박떠′라
F12(29)	극′꾸	극떠′라	늘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말꾸′	막떠′라	발꾸′	박떠′라
M12(26)	극′꾸	극떠′라	늘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말꾸′	막떠′라	발꾸′	박떠′라
F13(23)	극′꾸	극떠′라	늘꾸′	늑떠′라	익꾸′	익떠′라	말꾸′	막떠′라	발꾸′	박떠′라

[표 22]는 'ㄺ'을 어간말 자음군으로 가진 5개의 어간 '긁-, 늙-, 니르-/닑-/읽-, 맑-, 밝-'가 자음 어미 '-구', '-더라'와 결합할 때의 활용형에서 보이는 세대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에서는 이 지역의 80대부터 40대까지의 'ㄺ' 말음 어간이 자음 어미 '-구', '-더라'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고 'ㄱ'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규칙적인 실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30대 화자 M_{10}(37)부터 20대까지에서는 'ㄺ' 말음 어간에 자음 어미 '-구'가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고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적용받은 표면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비록 어휘에 따라 산발적으로 나타나지만 'ㄱ'으로의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80대부터

40대 화자들과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적용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어미 '-더라' 앞에서는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ㄺ' 말음 자음군 용언 어간의 경우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에 따라 탈락 자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6)]

'ㄻ', 'ㄾ', 'ㅀ' 말음 자음군 용언 어간에 대해 보도록 한다.

[표 23] 'ㄻ', 'ㄾ', 'ㅀ' 말음 용언 어간

	삶-		뚧-		볿-/밟-		핥-	
	-구	-더라	-구	-더라	-구	-더라	-구	-더라
M_1(82)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1(81)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2(78)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2(74)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3(72)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_3(71)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_4(67)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4(66)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_5(64)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5(60)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6(56)	삼′꾸	삼′떠라	뚝꾸′	뚭떠′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_6(55)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7(54)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_7(53)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8(49)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9(46)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_8(44)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_9(42)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M_{10}(37)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36) 이진호(2010: 572-573)에 의하면 용언 어간말 자음 'ㄺ', 'ㄾ'의 탈락 자음은 어간에 따라, 시기에 따라,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F_{10}(36)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꾸′	할떠′라
M_{11}(35)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쿠′	할터′라
F_{11}(33)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복′꾸	봅′떠라	할꾸′	할떠′라
F_{12}(29)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박꾸′	밥떠′라	할꾸′	할떠′라
M_{12}(26)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박꾸′	밥떠′라	할꾸′	할떠′라
F_{13}(23)	삼′꾸	삼′떠라	뚤쿠′	뚤터′라	발꾸′	밥떠′라	할꾸′	할떠′라

[표 23]은 'ㄺ', 'ㄽ', 'ㄾ'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삶-', '뚧-', '볿/밟-', '핥-'에 자음 어미 '-구', '-더라'가 후행할 때의 활용형에 대해 세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3]에서 'ㄺ' 어간말 자음군 '삶' 어간은 자음 어미 '-구', '-더라' 앞에서 항상 '삼′꾸, 삼′떠라'와 같은 실현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세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에 대해서는 세대별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서 후술하도록 한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뚧-' 어간은 자음 어미 '-구', '-더라'와 결합할 때 80대부터 50대 일부 화자(60대 중 M_4 제외)에게서는 'ㄹ'이 탈락하고 'ㅂ'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가 규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60대부터 20대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타 어미들과의 활용 양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3]을 보면 'ㄼ'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볿/밟-' 어간이 자음 어미 '-구', '-더라' 앞에서 대체적으로 'ㅂ'으로 단순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초반 여성 화자에게서만 '볿/밟-' 어간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구'가 결합하는 경우에만 'ㄹ'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지역의 20대에서 'ㄼ' 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 '볿/밟-'는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미의 두음에 따라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달리 적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ㄾ' 어간말 자음군 '핥-' 어간과 자음 어미 '-구', '-더라'와의 활용형으로부터 '할쿠′, 할터′라' 또는 '할꾸′, 할떠′라'와 같이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타 어미들과의 활용형을 세대별로 살펴보면서 확인할 것이

다.

먼저 'ㄻ' 어간말 자음군 어간이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세대별로 고찰하도록 한다.

[표 24] '삶-', '삶-', '삼-'의 세대별 활용 양상

	삶-	옮-	곪-	닮-	젊-	굶-
M_1(82)	살마′서~ 삼마′서	올마′서~ 옴마′서	골마′서~ 곰마′서	달마′서~ 담마′서	절머′서~ 점머′서	굴머′서~ 굼머′서
F1(81)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F2(78)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M_2(74)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M_3(72)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F_3(71)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F_4(67)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M_4(66)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F_5(64)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M_5(60)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M_6(56)	삼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F_6(55)	사마′서	옴마′서	곰마′서	담마′서	점머′서	굼머′서
M_7(54)	살마′서	올마′서	고마′서	다마′서	저머′서	구머′서
F_7(53)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M_8(49)	삼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M_9(46)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F_8(44)	사마′서	오마′서	고마′서	다마′서	절머′서	구머′서
F_9(42)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M_{10}(37)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구머′서
F_{10}(36)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M_{11}(35)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F_{11}(33)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F_{12}(29)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M_{12}(26)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F_{13}(23)	살마′서	올마′서	골마′서	달마′서	절머′서	굴머′서

[표 24]는 'ㄹ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삶-', '옮-', '곪-', '닮-', '젊-', '굶-'에 모음 어미 '-아/어서'가 결합할 때의 활용 양상을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자음 어미 '-구', '-더라'와의 결합에서 보인 세대별로 일치한 활용형과는 달리 세대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80대부터 50대의 일부 화자들에게서는 'ㄹㅁ' 말음 어간과 재구조화된 'ㅁㅁ' 말음 어간이 공존하거나 대체적으로 'ㅁㅁ' 말음 어간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고, 20대부터 40대 초반 화자들은 'ㄹㅁ' 말음 어간을 가진 용언 어간의 활용을 보여 준다. 그 사이 50대부터 30대까지의 일부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사마서, 오마서, 고마서, 다마서, 저머서, 구머서'와 같은 활용형으로부터 'ㄹㅁ' 말음 어간이 'ㅁ'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으로 'ㄹㅁ' 말음 어간은 이 지역에서 'ㅁㅁ' 또는 'ㅁ'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ㄼ' 말음 자음군 '뚧-'의 세대별 활용 양상에 대해 보도록 한다.

[표 25] '뚧-', '뚫-', '뚥-'의 세대별 활용 양상

	-구	-더라	-는다	-어서	-으니까	-으무
M_1(82)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	뚤부′무
F1(81)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까	뚤부′무
F2(78)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까	뚤부′무
M_2(74)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까	뚤부′무
M_3(72)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까	뚤부′무
F_3(71)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까	뚤부′무
F_4(67)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까	뚤부′무
M_4(66)	뚤쿠′	뚤터′라	뚤군′다	뚤궈′서	뚤구′니까	뚤구′무
F_5(64)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	뚤부′무
M_5(60)	뚝꾸′	뚭떠′라	뚬눈′다	뚤버′서	뚤부′니	뚤부′무
M_6(56)	뚝꾸′	뚤터′라	뚤군′다	뚤궈′서	뚤구′니까	뚤구′무
F_6(55)	뚤쿠′	뚤터′라	뚤군′다	뚤궈′서	뚤구′니까	뚤구′무
M_7(54)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뚤궈′서	뚤구′니까	뚤구′무
F_7(53)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M_8(49)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M_9(46)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뚤궈′서	뚜루′니까	뚜루′무
F_8(44)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F_9(42)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뚤궈′서	뚤구′니까	뚤구′무
M_{10}(37)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F_{10}(36)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M_{11}(35)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뚤궈′서	뚤구′니까	뚤구′무
F_{11}(33)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F_{12}(29)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M_{12}(26)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F_{13}(23)	뚤쿠′	뚤터′라	뚤룬′다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

[표 25]에서 보여주듯이 ‘뚧-’는 이 지역의 노년층에서 ‘ㄹㅂ’ 말음 자음군이었던 데로부터 세대에 따라 어간의 형태가 달리 실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80대부터 60대까지는 자음 어미 ‘-구’, ‘-더라’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하고 ‘ㅂ’으로 단순화 되어 ‘뚝꾸′, 뚭떠′라’와 같은 활용 양상을 보이지만 60대 일부 화자들부터 20대까지는 ‘뚤쿠′, 뚤터′라’와 같은 활용형으로 실현된다. 이로부터 ‘ㄹㅂ’ 어간말 자음군을 가졌던 어간이 이 지역의 60대부터 20대에서는 ‘ㄹㅎ’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표 25]에서 보여주는 모음 어미 또는 매개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을 관찰해보면 세대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을 세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다. 하나는 ‘ㄹㅂ’ 말음 어간 ‘뚧-’에 모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 ‘-아/어서’, ‘-(으)니까, -(으)무’가 결합할 때 ‘뚤버′서, 뚤부′니까, 뚤부′무’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ㄹㅎ’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어간 ‘뚫-’에 모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가 결합하면서 ‘뚜러′서, 뚜루′니까, 뚜루′무’로 실현된다. 세 번째 유형 ‘뚤궈′서, 뚤구′니까, 뚤구′무’와 같은 활용형도 관찰이 되는데 이는 ‘ㄹㅂ’ 말음 어간이 ‘Xㄹㄱ-~X구-’의 형태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37] 기존 논의 이진호(2012: 264), 김수영(2021: 129)에 따르면 ‘ㄹㅂ’ 말음 어간

37) 한성우(2006: 119)에 의하면 중부방언에서 ‘ㄹㅂ’ 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얇-’, ‘넓

이 'ㄹㅣ'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은 pk 교체가 관여하여 'ㄹㅸ>ㄹㅐ>ㄹㅣ'과 같은 변화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8]

[표 25]를 보면 'ㄹㅐ' 말음 자음군 어간 '뚧-'는 이 지역의 80대부터 60대까지에서는 'ㄹㅐ' 말음으로 실현되고 20대부터 30대 초반 화자에게서는 'ㄹㅎ'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 되어 실현되고 있지만 60대의 일부 화자부터 30대 일부 화자까지의 활용 양상을 보면 어간 '뚧-/뚫-'가 '뚥-~뚤구-' 어간과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ㅎ' 말음 자음군 '핧-'의 세대별 활용 양상에 대해 보도록 한다.

[표 26] '핧-', '핥-'의 세대별 활용 양상

	-구	-더라	-는다	-아서	-으니까	-으무
M_1(82)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	하르′무
F1(81)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F2(78)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M_2(74)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M_3(72)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F_3(71)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F_4(67)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M_4(66)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F_5(64)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M_5(60)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M_6(56)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F_6(55)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M_7(54)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할타′서	하르′니까	하르′무
F_7(53)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M_8(49)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할타′서	할트′니까	할트′무

-' 등은 평안도 의주 방언에서 '얄꾸, 얄구문, 얄과두'와 같이 'Xㄹㅣ-~X구-'로 재구조화된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 지역에는 'ㄹㅐ' 말음 어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38) 이진호(2012: 265)에 따르면 pk 교체는 유성 마찰음 'ㅸ'과 'ㅇ'이 'ㅂ, ㄱ'으로 남아 있는 동북 방언이나 동남 방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이 지역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서북 방언, 동북 방언, 남부 방언, 제주 방언 이 네 방언권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용언 어간의 말음에서 pk 교체가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어간말 자음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M_9(46)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할타′서	할트′니까	할트′무
F_8(44)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F_9(42)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M_{10}(37)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할타′서	할트′니까	할트′무
F_{10}(36)	할꾸′	할떠′라	할른′다	할타′서	할트′니까	할트′무
M_{11}(35)	할쿠′	할터′라	할른′다	하라′서	하르′니까	하르′무
F_{11}(33)	할꾸′	할떠′라	할른′다	할타′서	할트′니까	할트′무
F_{12}(29)	할꾸′	할떠′라	할는′다	할타′서	할트′니까	할트′무
M_{12}(26)	할꾸′	할떠′라	할른′다	할타′서	할트′니까	할트′무
F_{13}(23)	할꾸′	할떠′라	할는′다	할타′서	할트′니까	할트′무

[표 26]에서는 'ㆅ' 어간말 자음군 어간 'ᄒᆱ-'에 '-구', '-더라', '-는다', '-아서', '-(으)니까', '-(으)무'와 같은 어미가 결합할 때 실현 양상을 세대별로 제시하였다. 이 지역의 80대부터 50대까지에서는 대체적으로 'ㆅ' 말음 어간의 규칙적인 활용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의 80대부터 50대에서 중세 한국어 시기의 'ㆅ' 말음 활용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9] 그러다가 50대 화자 M_7의 표면형에서 보여주는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할타′서'로부터 'ㆅ' 말음이 'ㄹㅌ' 말음으로의 재구조화가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0대 화자(M_7) 및 40대 일부 화자들의 활용 양상으로부터 'ᄒᆱ-' 어간과 'ᄒᆰ-' 어간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23]에서 보여주듯이 이 지역의 20대, 30대에서는 'ㆅ' 말음 어간이 'ㄹㅌ'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실현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39) 'ᄒᆱ-'는 중세 한국어 시기의 어형이고 현대 한국어에서의 'ᄒᆰ-'는 근세 한국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ᄒᆱ->ᄒᆰ-'의 변화에 대해 곽충구(1980: 65)에서는 'ᄒᆱ-' 어간과 자음 어미 '-다, -더니, -디, -도록, -다가'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할타, 할터니, 할티, 할토록, 할타가'와 같은 활용형에 이끌려 'ᄒᆰ-'로 재분석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5. 어간말 'ㄹ' 탈락

용언의 어간말 자음인 'ㄹ'이 후행하는 활용 어미와 통합할 때 일정한 부류의 자음들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어간말 'ㄹ' 탈락이라고 한다(곽충구 1994: 174). 곡용 어간과 조사의 통합에서는 이러한 탈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활용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ㄹ' 탈락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37) 알-+-니까 →[아니까], 알-+-는 →[아는], 알-+-으신다→[아신다]
살-+-니까 →[사니까], 살-+-는 →[사는], 살-+-으신다→[사신다]

(37)에서와 같이 용언 어간에 적용되는 'ㄹ' 탈락은 'ㄴ, ㅅ'과 같은 [+설정성] 자음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ㄴ, ㅅ' 앞에서의 유음 탈락 또한 이 지역의 전 연령층에 적용되는 음운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80대 화자를 대상으로 함북 육진 방언의 어간말 'ㄹ' 탈락의 실현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 세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5.1. 노년층 어간말 'ㄹ' 탈락

중세 한국어 시기 어간말 'ㄹ' 탈락 규칙의 적용 환경은 'ㄴ, ㄷ, ㅅ, ㅈ, ㅿ' 앞이었으나 현대 한국어 표준어에서는 'ㄷ, ㅈ, ㅿ' 앞에서의 'ㄹ' 탈락 현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거의 소멸 직전에 있는 'ㄷ', 'ㅈ' 앞에서의 'ㄹ' 탈락 현상을 이 지역의 노년층의 발화에서는 관찰이 가능하다. 아래 이 지역의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ㄷ, ㅈ' 및 'ㅁ' 앞에서의 어간말 'ㄹ' 탈락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38) 가. 울-(哭): 울-+-디 마라→우′디 마라
멀-(遠): 멀-+-디 아니하오→머′대니오
즐-(泥): 즐-+-디 아니하오→즈대′니오
모딜-(粗): 모딜-+-디 아니하오→모′디대니오
드물-(稀): 드물-+-디→드′무디
맨들-(作): 맨들-+-디→맨드′디
나. 맨드-(作): 맨들-+-쟈→맨드′쟈(만들자), 맨들-+-지→맨드′지

붙들-(捕): 붙둘-+-지 마라→부뚜지′ 마라
다. 울-(哭): 울-+-(으)무→울′무~우′무
길-(長): 길-+-(으)무→기′무
맨드-(作): 맨들-+-(으)무→맨드′무
자불-(困): 자불-+-(으)무→자부무′
구불-(曲): 구불-+-(으)무→구부무′

(38)에서 볼 수 있듯이 (38가)는 어간말 'ㄹ'이 'ㄷ' 앞에서 탈락된 예이고, (38나)는 'ㅈ' 앞에서 탈락된 예이며 (38다)는 'ㅁ' 앞에서 어간말 'ㄹ'이 탈락한 예이다.[40]

기존 논의 곽충구(1994, 2005, 2012), 소신애(2008, 2021)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ㄹ'이 어간말에서 탄설음([ɾ])으로 발음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가 있다. 함북 육진 방언의 구술 발화 자료로 어간말 'ㄹ'의 음성·음운론적 변이에 대해 다룬 소신애(2021: 31-32)에 따르면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음절말 'ㄹ' 탈락에 대해 'ㄷ, ㅈ'과 같은 중자음 앞에서의 어간말 'ㄹ' 탈락 현상은 'ㄹ'이 탄설음([ɾ])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

3.5.2. 어간말 'ㄹ' 탈락의 세대별 변이

어간말 'ㄹ' 탈락에 대한 조사 항목 30여 개 중의 6개 어휘 항목 '살-, 몰-, 길-, 가물-, 드물-, 맨들-' 어간에 어미 '-더라'가 결합한 활용형의 실현 양상에 대해 [표 24]를 보도록 한다.

40) (38)에서 보여준 예들은 대부분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이고 그중 (38ㄴ)에서의 '만드′쟈'는 곽충구 (2019: 1383)를 참고한 자료이다.

[표 27] ‘ㄷ’ 앞에서의 어간말 ‘ㄹ’ 탈락 실현 양상

	살-	몰-	길-	가물-	드물-	맨들-
M_1(82)	사′더라	모′더라	기′더라	가′무더라	드′무더라	맨드′더라
F_1(81)	사′더라	모′더라	기′더라	가′무더라	드′무더라	맨드′더라
F_2(78)	사′더라	모′더라	기′더라	가′무더라	드′무더라	맨드′더라
M_2(74)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맨드′더라
M_3(72)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맨드′더라
F_3(71)	살′더라	모′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맨드′더라
F_4(67)	살′더라	모′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무더라	맨드′더라
M_4(66)	살′더라	모′더라	기′더라	가′무더라	드′무더라	맨드′더라
F_5(64)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무더라	드′무더라	맨드′더라
M_5(60)	살′더라	모′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맨들′더라
M_6(56)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무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F_6(55)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무더라	드′무더라	맨드′더라
M_7(54)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F_7(53)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드′더라
M_8(49)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M_9(46)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F_8(44)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F_9(42)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M_{10}(37)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F_{10}(36)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M_{11}(35)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F_{11}(33)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F_{12}(29)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M_{12}(26)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F_{13}(23)	살′더라	몰′더라	길′더라	가′물더라	드′물더라	만들′더라

‘ㅁ’ 앞에서의 어간말 ‘ㄹ’ 탈락에 대해 세대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8] ‘ㅁ’ 앞에서의 어간말 ‘ㄹ’ 탈락 실현 양상

	길-	돌-	울-	구불-	시굴/시쿨-	자불-
M_1(82)	기′무	도′무	울′무~우′무	구부무′	시구′무	자부무′
F_1(81)	기′무	도′무	우′무	구부무′	시구′무	자부무′
F_2(78)	기′무	도′무	우′무	구부무′	시구′무	자부무′
M_2(74)	길′무	돌′무	울′무	구부무′	시쿠′무	자부무′
M_3(72)	기′무	도′무	울′무	구부무′	시구′무	자부무′
F_3(71)	길′무	돌′무	우′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F_4(67)	길′무	돌′무	우′무	구부무′	시구′무	자불무′
M_4(66)	기′무	도′무	우′무	구부무′	시구′무	자부무′
F_5(64)	길′무	돌′무	울′무	구부무′	시쿠′무	자부무′
M_5(60)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M_6(56)	길′무	돌′무	울′무	구부무′	시쿨′무	자불무′
F_6(55)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쿠′무	자부무′
M_7(54)	기′무	돌′무	우′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F_7(53)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M_8(49)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M_9(46)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F_8(44)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F_9(42)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M_{10}(37)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F_{10}(36)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M_{11}(35)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F_{11}(33)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F_{12}(29)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M_{12}(26)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F_{13}(23)	길′무	돌′무	울′무	구불′무	시쿨′무	자불′무

위의 [표 27], [표 28]은 'ㄷ', 'ㅁ' 앞에서 어간말 'ㄹ'이 탈락하는 양상을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은 이 지역어에서 80대와 F_2(78) 70대 화자에게서는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50대 이하 화자들에게서는 'ㄷ' 또는 'ㅁ' 앞에서의 'ㄹ' 탈락형으로 실현되는 활용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기존 논의 곽충구(2005: 187)에서는 1세기 전의 함북 육진 방언은 어느 환경에서나 'ㄹ'이 탄설음([ɾ])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함북 육진 방언에서는 노년층에서만 자음과 휴지 앞에서 탄설음으로 실현될 뿐 대체로 어간말에서 'ㄹ'은 설측음([l])으로 실현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도 기존 논의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간말 'ㄹ' 탈락 양상이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ㄹ' 음가의 변동을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 및 세대별 성조 변이

본 장에서는 조사 자료 중에서 80대 화자의 성조형을 이 지역의 기본 성조형으로 보고 4.1에서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41] 다음으로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에서 보이는 세대별 차이에 대해서는 4.2에서 중점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4.1. 노년층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

함북 육진 방언 체언 성조형에 대해 어간 음절수에 따라 분류하고 조사와 결합할 때의 성조 변동에서 나타나는 성조형의 양상을 보이도록 한다. 체언은 용언과 달리 단독형으로 쓰일 수 있으나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어간 성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다양한 조사와의 결합을 통해 어간의 성조형을 확인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가, -부터, -보다, -에, -에서, -으/르'와 같은 조사와 체언 어간의 결합을 통해 함북 육진 방언 체언의 성조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42]

4.1.1. 체언의 성조형

4.1.1.1. 1음절 어간

1음절 어간에 속하는 체언 어간들이 조사와 결합할 때 곡용형의 성조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함북 육진 방언의 1음절 체언의 어간 성조형은 대체적으

41) 제보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M_1 제보자의 성조형을 함북 육진 방언의 기본 성조형으로 보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곽충구(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1, 2》(제보자경3)의 자료를 참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자의 조사 자료 중에서 80대 제보자인 F_1 제보자의 성조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기본 성조형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42) 표준어에서의 조사 '-을/를'은 이 지역어에서 '-으/르'로 실현된다.

로 L형과 H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L형

L형에 속하는 체언 어간은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든 어간 성조가 변동하지 않고 항상 저조로 실현되는 어간이다. L형에 속하는 어간 중 폐음절 어간과 개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표 29] L형

	말(馬)	배(梨)
-이/가	마리′ [LH]	배가′ [LH]
-부터	말부터′ [LLH]	배부터′ [LLH]
-보다	말보′다 [LHL]	배보′다 [LHL]
-에	마레′ [LH]	배에′ [LH]
-에서	마레서′ [LLH]	배에서′ [LLH]
-르	마르′ [LH]	배르′ [LH]

[표 29]에서는 '말(馬)', '배(梨)' 어간이 조사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육진 방언에서의 성조 양상을 보여 준다. 중세 한국어에서 '말(馬)'에 조사 '-이'가 결합하면 곡용형의 성조는 'ᄆᆞ리[平去] <용가 5:11a>'와 같이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ᄆᆞᆯ(馬)', '빈(梨)'는 平聲형 어간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平聲형인 '말(馬)', '배(梨)'가 육진 방언에서 언제나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 중세 한국어와 육진 방언의 성조는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L형에 속하는 어간은 곡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2음절인 경우 LH, 3음절인 경우 LHL/LLH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L형에 속하는 1음절 체언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L형: 금(金), 꽃(花), 닭(鷄), 똥(糞), 말(馬), 배(梨), 집(家)

H형

1음절 체언 어간 H형에는 특정 조사와 통합될 때 어간 성조를 저조화시키는 어간 통합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고정적으로 H를 유지하는 두 부류의 어간이 있다.[43] 본고에서는 H1형, H2형으로 나눠서 기술하고자 한다.

H1형

H1형에 속하는 어간은 대부분의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H로 실현되지만 특정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만 어간 성조가 저조화하여 L로 실현된다.

[표 30] H1형

	말(斗)	눈(雪)
-이	마'리 [HL]	누'니 [HL]
-부터	말'부터 [HLL]	눈'부터 [HLL]
-보다	말'보다 [HLL]	눈'보다 [HLL]
-에	마레' [LH]	누네' [LH]
-에서	마레서' [LLH]	누네서' [LLH]
-으	마'르 [HL]	누'누 [HL]

[표 30]에서는 어간 '말(斗)', '눈(雪)'이 조사와 결합할 경우의 성조 양상을 보여준다. (30)에서 볼 수 있듯이 '말(斗)', '눈(雪)'과 같은 H 어간은 조사 '-에', '-에서'와 결합할 때 어간 성조가 L로 변하고 그 밖의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어간 성조가 모두 H로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말(斗)'은 去聲형 어간이고 '눈(雪)'은 上聲형 어간이다.[44] 중세 한국어나 경북 방언에서 상승조로 실현되는 어간이 이 지역에서는 모두 고조로만 실현된다.[45]

---

43) 중세 한국어에도 처격 조사 앞에서 平聲化하는 어간(h)과 항상 去聲을 유지(h·h)하는 두 부류의 어간이 있다(金完鎭 1973: 73).

44) 함북 육진 방언에서 상승조와 고조가 합류되어 항상 고조로만 실현되므로 이 지역에서의 '말(斗)'과 '말(語)'은 '동음이의어'로 쓰인다(전학석 1993: 109).

H1형에 속하는 어간은 곡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2음절인 경우 HL/LH, 3음절인 경우 HLL/LLH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H1형에 속하는 1음절 체언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H1형: 값(價), 골(頭), 길(路), 눈(眼), 눈(雪), 닢(葉), 말(語), 말(斗), 몯(釘), 밥(飯), 뿔(角), 술(匙)

H2형

H2형에 속하는 체언 어간은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든 어간 성조가 변동하지 않고 항상 고조로만 실현된다.

[표 31] H2형

	배(腹)	비(雨)
-가	배′가 [HL]	비′가 [HL]
-부터	배′부터 [HLL]	비′부터 [HLL]
-보다	배′보다 [HLL]	비′보다 [HLL]
-에	배′에 [HL]	비′에 [HL]
-에서	배′에서 [HLL]	비′에서 [HLL]
-으/르	배′르 [HL]	비′르 [HL]

[표 31]을 보면 H2형에 속하는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는 항상 고조로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去聲형에 속하는 '배(腹)', '비(雨)'가 이 지역어에서 항상 고조로 실현되면서 중세 한국어와 육진 방언의 성조가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2형에 속하는 어간은 곡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2음절인 경우 HL, 3음절인 경우 HLL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H2형에 속하는 1음절 체언 어간은 다음과 같다.

H2형: 개(狗), 배(腹), 비(雨), 새(鳥), 쇠(牛), 키(身高)

---

45) 함북 육진 방언의 성조 체계는 중세 한국어나 다른 방언의 성조 체계보다 단순하면서 '중세국어에서 단순화된 상태'를 잘 보여준다(곽충구 1994: 389).

4.1.1.2. 2음절 어간

함북 육진 방언의 2음절 체언 어간은 LL형, LH형, HL형과 같이 세 부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성조형들이 조사와의 결합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LL형

LL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 실현된다. LL형에 속하는 어간 중 폐음절 어간과 개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표 32] LL형

	다리(橋)	무룹(膝)
-이/가	다리가′ [LLH]	무루피′ [LLH]
-부터	다리부터′ [LLLH]	무룹뿌터′ [LLLH]
-보다	다리보′다 [LLHL]	무룹뽀′다 [LLHL]
-에	다리에′ [LLH]	무루페′ [LLH]
-에서	다리에′서 [LLHL]	무루페′서 [LLHL]
-으/르	다리르′ [LLH]	무루푸′ [LLH]

(32)에서는 어간 '다리(橋)', '무룹(膝)'이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육진 방언 성조 양상을 보여 준다. 중세 한국어에서 '다리(橋)'와 '무룹(膝)'은 平聲형 어간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平聲형인 '다리(橋)', '무룹(膝)'이 육진 방언에서도 언제나 저조로 나타난다. 중세 한국어와 육진 방언의 성조가 규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LL형에 속하는 어간은 곡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3음절인 경우 LLH, 4음절인 경우 LLHL/LLLH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LL형에 속하는 2음절 체언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LL형: 가슬(秋), 다리(橋), 드비(豆腐), 마을(村), 문지(塵), 무룹(膝), 바름(風), 점슴(午), 즘승(禽), 채깝(千葉)

LH형

LH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H로 실현된다. LH형에 속하는 어간 중 폐음절 어간과 개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표 33] LH형

	가시(刺)	내굴(烟)
-이/가	가시'가 [LHL]	내구'리 [LHL]
-부터	가시'부터 [LHLL]	내굴'부터 [LHLL]
-보다	가시'보다 [LHLL]	내굴'보다 [LHLL]
-에	가시'에 [LHL]	내구'레 [LHL]
-에서	가시'에서 [LHLL]	내구'레서 [LHLL]
-으/르	가시'르 [LHL]	내구'르 [LHL]

(33)에서는 '가시(刺)', '내굴(烟)' 어간이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육진 방언 성조 양상을 보여 준다. 중세 한국어에서 '가싀(刺)' 성조 또한 平去형 어간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平去형인 '가싀(刺)'가 육진 방언에서도 LH로 실현되고 있다. 중세 한국어와 육진 방언의 성조는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33)을 보면 LH형에 속하는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H로 나타난다. 곡용형의 성조는 3음절인 경우 LHL, 4음절인 경우 LHLL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LH형에 속하는 2음절 곡용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LH형: 가시(刺), 가새(가위), 개미(蟻), 감지(甘酒), 거미(蜘蛛), 경지(건더기), 껍지(皮), 내굴(烟), 니매(額), 달걀(蛋), 덩개(膝), 새비(蝦), 오놀(오늘), 하폼(하품)

HL형

HL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HL로

실현된다. HL형에 속하는 어간 중 개음절 어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HL형

	감지(薯)	엉치(臀)
-가	감′지가 [HLL]	엉′치가 [HLL]
-부터	감′지부터 [HLL]	엉′치부터 [HLL]
-보다	감′지보다 [HLLL]	엉′치보다 [HLLL]
-에	감′지에 [HLL]	엉′치에 [HLL]
-에서	감′지에서 [HLLL]	엉′치에서 [HLLL]
-르	감′지르 [HLL]	엉′치르 [HLL]

(34)에서 HL형에 속하는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HL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용형의 성조는 3음절인 경우 HLL, 4음절인 경우 HLLL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HL형에 속하는 2음절 곡용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HL형: 가래(痰), 감지(薯), 구룸(雲), 그림(畵), 사름(人), 제비(燕)

4.1.1.3. 3음절 어간

3음절 곡용 어간이 조사와 결합할 때 보이는 곡용형의 성조에 따라 어간 성조형을 LLL형, LLH형, LHL형, HLL형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LLL형

LLL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만 실현된다. LL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LLL형

	심바람
-이	심바라미′ [LLLH]

-부터	심바람부터′ [LLLLH]
-보다	심바람보′다 [LLLHL]
-에	심바라메′ [LLLH]
-에서	심바라메′서 [LLLHL]
-으/르	심바라무′ [LLLH]

(35)에서는 '심바람' 어간이 조사 '-이, -부터, -보다, -에, -에서, -으'와의 결합에서의 육진 방언 양상을 보여 준다. LLL형에 속하는 어간 '심바람'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용형의 성조는 4음절인 경우 LLLH, 5음절인 경우 LLLLH/LLLHL와 같이 실현된다.

LLL형: 심바람(심부름)

LLH형

LLH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LH로 실현된다. LLH형에 속하는 어간 중 개음절 어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LLH형

	시래기	미나리
-이/가	시래기′가 [LLHL]	미나리′가 [LLHL]
-부터	시래기′부터 [LLHLL]	미나리′부터 [LLHLL]
-보다	시래기′보다 [LLHLL]	미나리′보다 [LLHLL]
-에	시래기′에 [LLHL]	미나리′에 [LLHL]
-에서	시래기′에서 [LLHLL]	미나리′에서 [LLHLL]
-으/르	시래기′르 [LLHL]	미나리′르 [LLHL]

(36)에서는 어간 '시래기', '미나리'가 조사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으'와 결합할 때의 육진 방언 성조 양상을 보여 준다. LLH형에 속하는 어간 '시래

기'와 '미나리'에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는 항상 LLH로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용형의 성조는 4음절인 경우 LLHL(음절 축약이 일어나 3음절인 경우 LLH), 5음절인 경우 LLHLL과 같이 실현된다.

LLH형: 고사리(蕨菜), 까마귀(烏), 미나리(芹), 벌거지(蟲), 복숭아(桃), 부수깨(廚), 오모지/오미자(五味子), 시래기(靑莖), 코끼리(象)

LHL형

LHL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HL로 실현된다. LH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LHL형

	시금치
-가	시금′치가 [LHLL]
-부터	시금′치부터 [LHLLL]
-보다	시금′치보다 [LHLLL]
-에	시금′치에 [LHLL]
-에서	시금′치에서 [LHLLL]
-르	시금′치르 [LHLL]

(37)에서는 어간 '시금치'가 조사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르'와 결합하는 경우의 육진 방언 성조 양상을 보여 준다. LHL형에 속하는 어간 '시금치'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HL로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용형의 성조는 4음절인 경우 LHLL, 5음절인 경우 LHLLL와 같이 실현된다.

LHL형: 도랒/도라지(桔梗), 메느리(媳), 배깨미(蟻), 버버리(啞), 시금치(菠菜), 재개미(腋)

HLL형

HLL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HLL

로 실현된다. HL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HLL형

	무지개	이야기
-가	무'지개가 [HLLL]	이'야기가 [HLLL]
-부터	무'지개부터 [HLLLL]	이'야기부터 [HLLLL]
-보다	무'지개보다 [HLLLL]	이'야기보다 [HLLLL]
-에	무'지개에 [HLLL]	이'야기에 [HLLL]
-에서	무'지개에서 [HLLLL]	이'야기에서 [HLLLL]
-으/르	무'지개르 [HLLL]	이'야기르 [HLLL]

(38)에서 어간 '무지개', '이야기'가 조사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으'와 결합하는 경우의 육진 방언 성조 실현 양상을 보여 준다. HLL형에 속하는 어간 '무지개'와 '이야기'는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HLL로 실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곡용형의 성조는 4음절인 경우 HLLL, 5음절인 경우 HLLLL과 같이 실현된다.

HLL형: 기지개(伸), 무지개(虹), 이야기

4.1.1.4. 4음절 어간

LLLL형

LLLL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LLL로 실현된다. LLL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LLLL형

	새닥따리
-가	새닥따리가' [LLLLH]
-부터	새닥따리부터' [LLLLLH]

-보다	새닥따리보′다 [LLLLHL]
-에	새닥따리에′ [LLLLH]
-에서	새닥따리에′서 [LLLLHL]
-으/르	새닥따리르′ [LLLLH]

(39)에서 어간 '새닥다리'가 조사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으'와 결합할 때의 육진 방언 성조 양상을 보여 준다. LLLL형에 속하는 어간 '새닥다리'는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용형의 성조는 5음절인 경우 LLLLH, 6음절인 경우 LLLLLH와 같이 실현된다.

LLLL형: 새닥다리(梯)

LLLH형

LLLH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LLH로 실현된다. LLLH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0] LLLH형

	뽀두라지	아부재기
-가	뽀두라지′가 [LLLHL]	아부재기′가 [LLLHL]
-부터	뽀두라지′부터 [LLLHLL]	아부재기′부터 [LLLHLL]
-보다	뽀두라지′보다 [LLLHLL]	아부재기′보다 [LLLHLL]
-에	뽀두라지′에 [LLLHL]	아부재기′에 [LLLHL]
-에서	뽀두라지′에서 [LLLHLL]	아부재기′에서 [LLLHLL]
-으/르	뽀두라지′르 [LLLHL]	아부재기′르 [LLLHL]

(40)에서 어간 '뽀두라지', '아부재기'가 조사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으'와 결합하는 경우의 육진 방언 성조 양상을 보여 준다. LLLH형에 속하는 어간 '뽀두라지'와 '어부재기'는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LLH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용형의 성조는 5음절인 경우 LLLHL, 6음절인 경우 LLLHLL과 같이 나타난다.

LLLH형: 고슴도티(猬), 두두레기(疹), 딱따구리(鴷), 뽀두라지(痘), 수수께끼(謎), 아부재기(喊), 해바라기(葵)

LLHL형

LLHL형에 속하는 곡용 어간은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LHL로 실현된다. LLH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LLHL형

	미꾸라지
-가	미꾸라'지가 [LLHLL]
-부터	미꾸라'지부터 [LLHLLL]
-보다	미꾸라'지보다 [LLHLLL]
-에	미꾸라'지에 [LLHLL]
-에서	미꾸라'지에서 [LLHLLL]
-르	미꾸라'지르 [LLHLL]

(41)에서 어간 '미꾸라지'가 조사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르'와 결합할 때의 육진 방언 성조 양상을 보여 준다. LLHL형에 속하는 어간 '미꾸라지'는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LHL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곡용형의 성조는 5음절인 경우 LLHLL, 6음절인 경우 LLHLLL과 같이 실현된다.

LLHL형: 미꾸라지(鰍)

소결

이상에서 함북 육진 방언 체언 성조형에 대해 어간 음절수에 따라 분류하고 조사와 결합할 때의 성조 변동에서 나타나는 성조형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체언의 성조형을 어간 음절수에 따라 살펴보면 1음절의 경우, L형과 H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곡용형에서 보이는 어간 성조를 함께 고려하면 H형 또한 H1형과 H2형으로 나눌 수 있다. 2음절 곡용 어간의 성조형은 LL형, LH형, HL형으로 나타나고, 3음절 곡용 어간의 성조형을 LLL형, LLH형, LHL형, HLL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4음절 곡용 어간 성조형은 LLLL형, LLLH형, LLHL형과 같이 나타난다. 함북 육진 방언 체언의 성조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체언의 성조형

음절 수	성조형		-이/가	-부터	-보다	-에	-에서	-으/르
1음절	L형		LH	LLH	LHL	LH	LLH	LH
	H형	H1	HL	HLL	HLL	LH	LLH	HL
		H2	HL	HLL	HLL	HL	HLL	HL
2음절	LL형		LLH	LLLH	LLHL	LLH	LLHL	LLH
	LH형		LHL	LHLL	LHLL	LHL	LHLL	LHL
	HL형		HLL	HLLL	HLLL	HLL	HLLL	HLL
3음절	LLL형		LLLH	LLLH	LLLHL	LLLH	LLLHL	LLLH
	LLH형		LLHL	LLHLL	LLHLL	LLHL	LLHLL	LLHL
	LHL형		LHLL	LHLLL	LHLLL	LHLL	LHLLL	LHLL
	HLL형		HLLL	HLLLL	HLLLL	HLLL	HLLLL	HLLL
4음절	LLLL형		LLLLH	LLLLLH	LLLLHL	LLLLH	LLLLHL	LLLLH
	LLLH형		LLLHL	LLLHLL	LLLHLL	LLLHL	LLLHLL	LLLHL
	LLHL형		LLHLL	LLHLLL	LLHLLL	LLHLL	LLHLLL	LHLLL

위의 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어간 성조의 저조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정성 체언 어간에 '-게[H]', '-에게[LH]', '-ㄴ데/인데(한테)[LH]'와 같은 여격 조사가 통합할 때 어간 성조형 및 어간 음절 수와 관계없이 어간 성조는저조화하여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 실현된다.[46] 또한 기존 연구 곽충구(1994: 375)에 따르면 체언 어간의 성조를 기술함에 있어서 처격 조사 '-에'는 선행 어간을 선별적으로 저조화하지만 여격 조사 '-게'는 선행 어간을 필수적으로 저조화하는 차이가 있다.

4.1.2. 용언의 성조형

함북 육진 방언의 용언의 성조형에 대해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분류하고 어미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활용형의 성조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용언의 어간은 단독형으로 쓰일 수 없고 어미와 결합해야만 하나의 어절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언 어간과 다양한 어미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의 성조형을 잘 관찰해야 한다. 본고에서 살펴볼 어미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 -구, -ㄴ/는다/∅다, -더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계 어미 '-아/어서, -아/어두, -아/어라'와 '-(으)니/니까, -(으)무' 등과 같은 것이다.[47]

4.1.2.1. 1음절 어간

1음절 용언 어간과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활용형의 성조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1음절 용언 어간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중세 한국어 성조와 함북 육진 방언 성조의 대응을 잘 보여주기 위해 중세 한국어의 성조 실현도 함께 제시한다.

제1유형 (고정적 저조형)

제1유형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든 용언 어간의 성조가 변동하지 않고 항상 저조로

46)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여격 조사는 기원적으로 처격 조사 '-에'와 무관하지 않다. 중세국어의 통시적인 정보를 고려하면 '-게'는 '그+에'로 분석이 가능하다(곽충구 1994: 375).

47) 이하에서는 편의성을 고려하여 모음어미, 자음어미로 제시한다.

실현되는 어간이다. 제1유형에 속하는 어간 중에서 개음절 어간과 폐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표 43] 제1유형

	먹-(食)	매-(結)
-구	먹꾸′ [LH]	매구′ [LH]
-ㄴ/는다	멍는다′ [LLH]	맨다′ [LH]
-더라	먹떠′라 [LHL]	매더′라 [LHL]
-아/어라	머거′라 [LHL]	매′라 [L·HL]
-(으)니까	머그′니까 [LHLL]	매니′까 [LHL]
-(으)무	머그′무 [LHL]	매무′ [LHL]

(43)에서는 어간 '먹-(食)'가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의 육진 방언 성조 실현 양상을 보여 준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먹-(食)'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먹고[平去] <석보 9:22b>, 먹더라[平去去] <월석 22:53b>, 머거[平去] <석보 6:5b>, 머그니[平去去] <월석 1:42b>'와 같이 활용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平聲형인 '먹-(食)'는 육진 방언에서 언제나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 중세 한국어와 육진 방언의 성조는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43)을 보면 제1유형에 속하는 어간은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어미든 모음어미든 상관없이 항상 저조로 실현된다. 제1유형에 속하는 어간은 활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2음절인 경우 LH, 3음절인 경우 LHL이며 4음절인 경우에는 LHLL로 실현된다.

(43)에서는 어간 '매-(結)'가 어미와 결합할 때의 육진 방언 성조 실현 양상을 보여 준다. 중세 한국어 어간 '매-(結)'는 어미와 통합할 때 'ᄆᆡ오[平去] <법화 4:41a>, ᄆᆡ니[平去] <두해 17:34b>, ᄆᆡ면[平去] <월석 25:34b>'와 같이 활용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고정적 平聲형인 '매-(結)'는 육진 방언에서도 항상 저조로 나타나고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위의 (43)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음절 어간의 경우도 자음어미 또는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성조는 항상 저조로만 나타난다. 활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그 성조는

2음절인 경우 LH, 3음절인 경우 LHL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제1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다음과 같다.

[표 44] 음절수에 따른 성조형-제1유형(고정적 저조형)

	2음절	3음절	4음절
폐음절	LH	LHL	LHLL
개음절	LH	L·HL/LHL	

제1유형: 긁-(抓), 긋-(劃), 깆/깃/짓(咳)-, 깊-(深), 꿔/꺼-(夢),[48] 넓-(廣), 녹-(溶), 눅-, 늙-(老), 눕/눞-(臥), 닉/익-(熟), 니르/닐/읽-(讀), 뛰-(躍), 듣-(聽), 들-(擧), 맑-(淸), 매-(結), 맵-(辣), 먹-(食), 밝-(明), 받/뱓-(音), 붓-(注), 빗-(梳), 씹-(嚼), 앉-(坐), 잃-(矢), 즐-(泥), 찌/지-(肥), 핥-(舔), 훑-(擼)

제2유형 (고정적 고조형)

제2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의 성조가 항상 고조로 나타난다. 먼저 개음절 어간과 폐음절 어간의 예를 아래에 제시하도록 한다.

[표 45] 칩-(寒)/없-(無)

	육진 방언	육진 방언
-구	칩'꾸 [HL]	업'꾸 [HL]
-∅다	칩'따 [HL]	업'따 [HL]
-더라	칩'떠라 [HLL]	업'떠라 [HLL]
-아/어서	치'버서~치'바서 [HLL]	업'써서 [HLL]
-(으)니까	치'브니까 [HLLL]	업'쓰니까 [HLLL]
-(으)무	치'부무 [HLL]	업'쓰무 [HLL]

48) 중세 한국어 성조와 육진 방언 성조는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대응을 보이나 중세 한국어에서 고정적 去聲형에 속하는 '꿔/꺼-(夢)'는 육진 방언에서 고정적 저조형으로 나타난다.

(45)는 어간 '칩-(寒)'와 어간 '없-(無)'가 어미와 결합할 때의 육진 방언 성조 실현 양상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칩-(寒)'와 '없-(無)'의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칩-(寒)'는 어미와 결합할 때 '칩고[去平] <두해 17:19a>, 칩다[去平] <금삼 2:39b>, 치우니[去平去] <두해 25:44b>, 치우면[去平去] <금삼 4:17b>'와 같이 활용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없-(無)'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업고[上平] <금삼 2:35b>, 업다[上平] <월석 7:5a>, 업서도[上平去] <능엄 6:68b>, 업스니[上平去] <석보 6:6a>, 업스면[上平去] <월석 2:22c>'와 같이 활용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과 같이 '칩-(寒)'는 중세 한국어에서 去聲에 속하는 어간이고 '없-(無)'는 중세 한국어에서 고정적 上聲(金完鎭 1973: 54)에 속하는 어간이다. 육진 방언에서의 上聲은 고조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어간 모음은 언제나 고조로 실현된다(郭忠求 1994: 397).

위에서 '칩-(寒)' 활용형의 중세 한국어 성조와 육진 방언 성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중세 한국어와 육진 방언의 어간 성조는 항상 고조로 실현되는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없-(無)'의 성조도 '칩-(寒)' 성조와 같은 어간 성조가 항상 고조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제2유형에 속하는 폐음절 어간은 자음어미 또는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이 항상 고조로만 실현되는 고정적 고조형 어간이다. 활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2음절인 경우 HL, 3음절인 경우 HLL이며 4음절인 경우에는 HLLL로 실현되고 있다.

[표 46] 차-(冷)

	육진 방언
-구	차'구 [HL]
-∅다	차'다 [HL]
-더라	차'더라 [HLL]
-아/어라	차'서 [HL]
-(으)니까	차'니까 [HLL]
-(으)무	차'무 [HL]

(46)은 제2유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 '차-(冷)'가 자음어미 그리고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차-(冷)'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ᄎᆞ고[去平] <두해 8:9b>, ᄎᆞ더라[去平去] <월석 2:39b>, ᄎᆞ니[去平] <두해 11:11a>'와 같이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의 성조가 항상 거성으로만 실현된다. 제2유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중세 한국어와 육진 방언의 성조는 규칙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46)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이 개음절인 경우도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성조는 항상 고조로만 나타난다. 활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그 성조는 2음절인 경우 HL, 3음절인 경우 HLL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제2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다음과 같다.

[표 47] 음절수에 따른 성조형-제2유형(고정적 고조형)

	2음절	3음절	4음절
폐음절	HL	HLL	HLLL
개음절	HL	HLL	

제2유형: 갈-(磨), 갈-(耕), 같-(如), 곱-(麗), 끄-(滅), 둏/좋-(好), 따-(異), 딱-(煩), 많-(多), 섧-(憾), 없-(無), 옳-(是), 차-(冷), 티/치-(打), 칩/춥-(寒)

제3유형(고저 교체형1)

제3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 성조가 고정적인 저조로 또는 고정적인 고조로만 실현되는 제1유형, 제2유형과 달리,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 성조가 고조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제3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모두 개음절 어간이다. 이와 같은 어간들이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을 아래에 제시한다.

[표 48] 셔-(立)

	육진 방언
-구	셔구′ [LH]
-ㄴ다	션다′ [LH]

-더라	셔더′라 [LHL]
-아/어서	셔′서 [HL]
-(으)니까	셔니′까 [LHL]
-(으)무	셔무′ [LH]

(48)에서는 어간 '셔-(立)'와가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의 성조 실현 양상이다. 어간 '셔-(立)'는 부사형 어미 '-아/어서' 앞에서만 고조로 실현되고 부사형 어미를 제외한 다른 어미들 앞에서는 저조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셔-(立)' 어간은 '셔고[平去] <석보 19:12b>, 셔아[去去] <월석 2:64b>, 셔아셔[去去去] <석보 19:31a>, 셔면[平去] <법화 7:59a>'와 같이 활용된다. 즉 중세 한국어에서도 '셔-(立)' 어간은 '-아/어' 앞에서만 어간 성조가 고조로 실현되고 기타 어미 앞에서는 저조로 실현되며 육진 방언 성조와 일치한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인다.

제3유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활용형의 음절수에 따라 그 성조가 2음절인 경우 LH, HL, 3음절인 경우 LHL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제3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표 49] 음절수에 따른 성조형-제3유형(고저 교체형1)

	2음절	3음절
개음절	LH/HL	LHL

제3유형: 셔-(立), 케-(點), 페-(伸)

제4유형(고저 교체형2)

제4유형에 속하는 어간들의 성조는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불규칙적인 성조 변동을 보인다. 4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들은 모두 개음절 어간이다. 이와 같은 어간이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를 아래에 제시하도록 한다.

[표 50] 가-(去)

	육진 방언
-구	가구′ [LH]
-ㄴ다	간′다 [HL]
-더라	가′더라 [HLL]
-아/어서	가′서 [HL]
-(으)니까	가니′까 [LHL]
-(으)무	가무′ [LH]

(50)에서는 어간 '가-(去)'가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 (50)을 보면 어간 '가-(去)'의 성조는 어미 '-구, -(으)니까, -(으)무' 앞에서는 저조로, '-ㄴ다, -더라, -아/어서'와 같은 어미 앞에서 고조로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가-(去)'가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의 성조 실현 양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가-(去)'는 어미와 결합할 때 '가고[平去] <능엄 6:102b>, 가더라[去平去] <월석 2:28b>, 가아[去去] <석보 6:2a>, 가면[平去] <월석 1:38a>'와 같이 활용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가-(去)' 성조 역시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平聲 혹는 去聲으로 나타나는 불규칙적인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인다.

제4유형에 속하는 어간은 육진 방언과 중세 한국어에서 모두 후속어미에 따라 불규칙적인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는데 서로 대응되는 성조 실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0)에서 활용형의 성조는 그 음절수에 따라 2음절인 경우 LH/HL, 3음절인 경우 HLL/LHL로 나타나고 있어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L 또는 H로 실현되고 있다. 제4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다음과 같다.

[표 51] 음절수에 따른 성조형-제4유형(고저 교체형2)

	2음절	3음절
개음절	LH/HL	HLL/LHL

제4유형: 가-(去), 누-(便), 두-(置), 보-(視), 오-(來), 자-(眠), 주-(與), 하-(爲)

제5유형(고저 교체형3)

제5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는 통합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 성조가 다르게 실현된다. 이와 같은 어간들이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성조 실현 양상을 아래에 제시한다.[49]

[표 52] 넘-(越)/울-(泣)

	제5A유형	제5B유형
-구	넘′꾸 [HL]	울′구 [HL]
-는다/∅다	넘′는다 [HLL]	운′다 [HL]
-더라	넘′떠라 [HLL]	우′더라 [HLL]
-아/어서	너머′서 [LHL]	우러′서 [LHL]
-(으)니까	너무′니까 [LHLL]	우′니까 [HLL]
-(으)무	너무′무 [LHL]	울′무~우′무 [HL]

(52)에서는 어간 '넘-(越)', '울-(泣)'가 자음어미 또는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육진 방언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 어간은 자음어미 앞에서 고조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저조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49) 제5유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자음어미 앞에서 또는 모음어미 앞에서의 성조 실현이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유형으로 묶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유형을 5A유형과 5B유형으로 나눈 이유는 5B유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전부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들이고 어미 '-(으)니까'와의 결합에서 'ㄴ' 앞에서 'ㄹ'이 무조건 탈락하는 유음 탈락 현상을 겪으면서 활용형의 성조형이 5A유형의 그것과는 다른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기에 5A유형과 5B유형으로 나눠서 제시하도록 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넘-(越)', '울-(泣)'가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 양상도 함께 제시하면 '넘고[上平] <두해 3:64b>, 너머[平去] <능엄 9:69b>, 너므니[平去平] <금강 71b>, 너므면[平去去]<법화 7:91b>', '울오[上平] <금삼 1:21b>, 우더라[上平去] <월석 10:11b>, 우니[上平] <두해 15:27a>, 우러[平去] <월석 8:1a>'와 같이 활용된다.

육진 방언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과 중세 한국어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을 보면 육진 방언의 고조 어간에 대응하는 중세 한국어 어간 성조는 上聲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와 같은 어간들은 중세 한국어 시기 流動的 上聲((金完鎭, 1973:54))에 속했던 어간들이기 때문이다. 流動的 上聲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上聲으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平聲으로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 성조에서는 上平 교체형에 속했던 것들인데 上聲이 고조에 합류된 육진 방언에서는 고저 교체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52)에서 보여 준 활용형의 성조는 그 음절수에 따라 2음절인 경우 HL, 3음절인 경우 HLL, LHL, 4음절인 경우 LHLL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제5유형에 속하는 1음절 용언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표 53] 음절수에 따른 성조형-제5유형(고저 교체형3)

	2음절	3음절	4음절
제5A유형	HL	HLL/LHL	LHLL
제5B유형	HL	HLL/LHL	

제5A유형: 감-(눈을), 감-(머리를), 걺-(步), 곪-(膿), 굶-(餓), 굽-(炙), 넘-(過), 덥-(暑), 묻-(問), 볿/밟-(踏), 삶/삼ㅁ-(烹), 싣-(載), 얇-(薄), 옮-(染), 웃-(笑), 젊-(少), 젓-(混), 줏-(拾)

제5B유형: 길-(長), 돌-(廻), 멀-(遠), 몰-(驅), 불-(吹), 살-(生), 알-(知), 얼-(氷), 울-(泣), 절-(瘸)

4.1.2.2. 2음절 어간

2음절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의 성조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함북 육진 방언의 2음절 용언을 어간의 성조 실현 양상에 따라 LL형, LH형, HL형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중세 한국어 성조와 함북 육진 방언 성조의 대응을 잘 보여주기 위해 중세 한국어의 성조 실현도 함께 제시한다.

LL형

LL형에 속하는 어간이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실현되는 성조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개음절 어간과 폐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한다. 먼저 폐음절 어간의 활용 양상부터 보도록 한다.

[표 54] 승겁-(淡)

	육진 방언
-구	승걱꾸' [LLH]
-∅다	승겁따' [LLH]
-더라	승겁떠'라 [LLHL]
-아/어서	승거바'서 [LLHL]
-(으)니	승거부'니 [LLHL]
-(으)무	승거부'무 [LLHL]

(54)에서는 어간 '승겁-(淡)'가 어미와 결합할 때의 육진 방언 성조 실현 양상을 보여 준다. 육진 방언에서의 어간 '승겁-(淡)'는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 실현된다. 그럼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승겁-(淡)'가 어미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중세 한국어에서 '승겁-(淡)' 어간은 '슴거워[平平去] <남명 상:71b>'와 같이 활용되어 어간 성조가 平聲으로 나타나면서 육진 방언 성조와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50]

50) LL형에 속하는 폐음절 어간 '무겁-(重)'가 중세 한국어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문헌: '므겁고[去平去] <두해 10:38a>, 므겁다[去平去] <월석 11:126b>, 므거벼[去平去] <월석 11:117a>, 므거우며[去去平去] <금강 103a>'
16세기 문헌: '므거운[去平去] <개법 2:57b>/므거운[平平去] <번소 3:33a>, 므거우며[平平去去] <번소 8:14a>, 므겁게[平上去] <번소 4:13a>'

(54)에서 보여 준 활용형의 성조는 그 음절수가 3음절인 경우 LLH, 4음절인 경우 LLHL로 나타나고 있어 어간 성조가 언제나 LL로만 실현되고 있다.

LL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이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 양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5] 흐르-(流)

	육진 방언
-구	흐르구′ [LLH]
-ㄴ다	흐른다′ [LLH]
-더라	흐르더′라 [LLHL]
-아/어서	흘러′서 [LHL]
-(으)니	흐르니′ [LLH]
-(으)무	흐르무′ [LLH]

(55)를 보면 어간 '흐르-(流)'는 부사형 어미 '-아/어서'와 결합할 때에는 어간 성조가 LH로 나타나고 기타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저조로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흐르-(流)'의 성조도 함께 보도록 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흐르-(流)' 어간은 어미와 결합할 때 '흐르고[平平去] <두해 11:16b>, 흐르더라[平平去去] <월석 1:43b>, 흘러[平去] <석보 9:21b>, 흐르니[平平去] <두해 23:34b>, 흐르면[平平去] <능엄 8:10b>'과 같이 활용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흐르-(流)' 어간 성조도 어미 '-어'와 결합할 때 平去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흐르-(流)' 어간이 어미 '-아/어서'와 결합할 때 어간 성조가 LL에서 LH로 나타나는 것은 어간말 모음 'ㅡ'가 탈락하면서 어미 '-아/어서[HL]'의 성조가 어간 성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55)에서 보여 준 활용형의 성조는 그 음절수가 3음절인 경우 LLH, LHL, 4음절인

'무겁-(重)' 어간은 15세기 문헌에서 '去平'으로 나타나고 16세기 문헌에서는 '去平', '平平' 또는 '平上'과 같이 다양한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인다.

경우 LLHL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LL형에 속하는 용언들은 다음과 같다.

[표 56] 어간 성조-LL형

	3음절	4음절
폐음절	LLH	LLHL
개음절	LLH/LHL	LLHL

LL형: 끄스-(引), 따갑-(燠), 따르-(隨), 만나-(會), 무겁-(重), 새나-(厭), 아프-(痛), 쯔겁-(濕), 흐르-(流)

LH형

LH형에 속하는 어간이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실현되는 성조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폐음절 어간과 개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한다. 먼저 폐음절 어간의 활용 양상부터 보도록 한다.

[표 57] 맨들-(作)/애니-(否)

	맨들-(作)	애니-(否)
-구	맨들'구 [LHL]	애니'구 [LHL]
-ㄴ/∅다	맨든'다 [LHL]	애니'다 [LHL]
-더라	맨드'더라 [LHLL]	애니'더라 [LHLL]
-아/어서	맨드'러서 [LHLL]	애네'서 [LHLL]
-(으)니	맨드'니 [LHL]	애니'니 [LHL]
-(으)무	맨드'무 [LHL]	애니'무 [LHL]

(57)은 어간 '맨들-(作)'가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활용형 성조 실현 양상이다. 이를 보면 후속어미에 관계없이 어간 성조가 항상 LH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맨들-(作)' 어간의 성조 실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맨들-(作)'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밍ᄀᆞᆯ오[平去平] <두해 17:26b>, 밍ᄀᆞ더라[平去平去] <삼강 효:35a>, 밍ᄀᆞ라[平去平] <남명 상:70b>, 밍

ᄀᆞ니[平去平] <두해 21:35b>, 밍ᄀᆞᆯ면[平去平] <원각 상2-2:121a>'과 같이 활용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맨들-(作)'의 성조는 어떠한 어미와 통합하든지 항상 平去로 활용되면서 육진 방언 성조와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LH형에 속하는 폐음절 어간의 활용형의 성조는 그 음절수가 3음절인 경우 LHL, 4음절인 경우 LHLL로 실현된다.

다음으로 LH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의 활용형의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57)은 어간 '애니-(否)'가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 양상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57)을 보면 어간 '애니-(否)'는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든지 어간 성조가 항상 LH로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애니-(否)'의 성조 실현 양상도 함께 살펴본다. 중세 한국어에서 '애니-(否)' 어간은 어미와 결합할 때 '아니오[平去平] <두해 22:26a>, 아녀[平去] <능엄 2:30b>, 아니[平去] <삼강 효:7a>, 아니면[平去平] <금삼 2:60b>'와 같이 활용되고 어간 성조 역시 平去로 나타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애니-(否)' 성조는 육진 방언 성조와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LH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의 활용형의 성조는 그 음절수가 3음절인 경우 LHL, 4음절인 경우 LHLL로 실현된다. 육진 방언의 LH형에는 아래와 같은 용언 어간이 있다.

[표 58] 어간 성조-LH형

	3음절	4음절
폐음절, 개음절	LHL	LHLL

LH형: 건지-(撈), 끓이-(煮), 내굴-(煙), 다슬-(磨), 둥굴-(圓), 마시/마이-(喝), 맨들/만들-(作), 모두-(集), 무셉/무섭-(恐), 문대-(擦), 바꾸-(換), 배우-(學), 비우-(空), 애니/아니-(否), 아리-(疼), 어렙/어렵-(生疏), 잽히/잡히-(被捕)

HL형

HL형에 속하는 어간이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실현되는 성조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개음절 어간과 폐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한다. 먼저 폐음절 어간의 활용 양상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9] 더럽-(汚)/그리-(畵)

	육진 방언	육진 방언
-구	더′럭꾸 [HLL]	그′리구 [HLL]
-ㄴ/∅다	더′럽따 [HLL]	그′린다 [HLL]
-더라	더′럽떠라 [HLLL]	그′리더라 [HLLL]
-아/어서	더′러바서 [HLLL]	그′레서 [HLL]
-(으)니	더′러부니 [HLLL]	그′리니 [HLL]
-(으)무	더′러부무 [HLLL]	그′리무 [HLL]

(59)는 어간 '더럽-(汚)'가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형의 성조 실현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육진 방언에서 어간 '더럽-(汚)'의 성조는 후속 어미에 관계없이 항상 HL로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더럽-(汚)'는 어미와 결합할 때 '더럽고[上平去] <월석 9:24a>, 더러버[上平去] <석보 24:50b>, 더러우니[上去平去] <능엄 1:32a>'와 같이 활용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더럽-(汚)' 성조는 후속어미에 따라 上平 혹은 上去로 나타난다.

HL형에 속하는 폐음절 어간의 활용형의 성조는 그 음절수가 3음절인 경우 LHL, 4음절인 경우 HLLL로 실현된다.

(59)에서 개음절 어간 '그리-(畵)' 어간이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 양상도 함께 제시하였다. 개음절 어간 '그리-(畵)' 성조 또한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든지 어간 성조가 항상 HL로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그리-(畵)'는 어미와 결합할 때 '그리고[去平去] <월석 10:118a>, 그리더라[去平平去] <두해 16:27b>, 그려[去平] <두해 7:4a>, 그리니[去平去] <두해 16:28b>'와 같이 어간 성조가 언제나 去平으로 나타나면서 육진 방언 성조와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HL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의 활용형 성조는 그 음절수가 3음절인 경우 HLL, 4음절인 경우 HLLL로 실현된다. 육진 방언의 HL형에 속하는 용언 어간은 다음과 같다.

[표 60] 어간 성조-HL형

	3음절	4음절
폐음절	HLL	HLLL
개음절	HLL	HLLL

HL형: 가물-(旱), 그리-(畵), 꺼지-(陷), 놀라-(驚), 더럽-(汚), 반갑-(喜), 배잡/배좁-(窄), 우쁘-(笑), 웃겝/웃겹-(笑)

4.1.2.3. 3음절 어간

함북 육진 방언의 3음절 용언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 활용형의 성조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육진 방언의 3음절 용언은 어간의 성조 실현 양상에 따라 LLL형, LLH형, HLL형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중세 한국어 성조와 함북 육진 방언 성조의 대응을 잘 보여 주기 위해 중세 한국어의 성조 실현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LLL형

LLL형에 속하는 어간과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형의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LLL형 속하는 어간은 어간말 음절이 모두 개음절이다.

[표 61] 깜짜르-(緊)

	육진 방언
-구	깜짜르구' [LLLH]
-ㄴ다	깜짜른다' [LLLH]
-더라	깜짜르더'라 [LLLHL]
-아/어서	깜짜라'서 [LLHL]
-(으)니	깜짜르니' [LLLH]
-(으)무	깜짜르무' [LLLH]

(61)에서는 어간 '깜짜르-(緊)'가 자음어미와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활용형의 성조

실현 양상이다. '깜짜르-(緊)'는 '-구, -ㄴ다, -더라, -(으)니까, -(으)무'와 같은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성조가 항상 LLL로 나타나고 부사형 어미 '-아서'와 결합할 때에만 어간 성조가 LLH로 실현된다. 이는 어간말 모음 'ㅡ'가 탈락하면서 어미 '-아서[HL]'성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깜짜르-' 어간의 성조 실현 양상과 조금 다른 LLL형에 속하는 다른 어간 '시원하-'와 어미가 결합할 때 활용형의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2] '시원하-(爽)'의 활용 양상

	-구	-더라	-아/어서	-(으)니	-(으)무
시원하-	시원하구′ [LLLH]	시원하′더라 [LLHLL]	시원해′서 [LLHL]	시원하니′ [LLLH]	시원하무′ [LLLH]

(62)에서는 어간 '시원하-(爽)'와 자음어미,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의 성조 실현 양상을 제시하였다. 어간 '시원하-(爽)'는 어미 '-구, -(으)니, -(으)무'와 결합할 때에는 어간 성조가 LLL로 실현되고 '-더라, -아/어서'와 결합할 때는 LLH로 나타난다. 이는 접사 '하-(爲)'의 성조에 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1음절 용언 어간 제4유형에 속하는 '하-(爲)'의 성조 실현과 '시원하-(爽)'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함께 보면 그 대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63] 시원하-(爽)/하-(爲)

	-구	-더라	-아/어서	-(으)니	-(으)무
시원하-	시원하구′ [LLLH]	시원하′더라 [LLHLL]	시원해′서 [LLHL]	시원하니′ [LLLH]	시원하무′ [LLLH]
하-	하구′ [LH]	하′더라 [HLL]	해′서 [HL]	하니′ [LH]	하무′ [LH]

LLL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의 활용형 성조는 그 음절수가 4음절인 경우 LLLH/LLHL, 5음절인 경우 LLLHL/LLHLL로 실현된다. 육진 방언의 3음절 어간 LLL형에 속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 64] 어간 성조-LLL형

	4음절	5음절
개음절	LLLH/LLHL	LLLHL/LLHLL

LLL형: 고소하-(香), 깜짜르-(緊), 뜨뜨사-(暖), 시원하-(爽)

LHL형

LHL형에 속하는 어간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든 언제나 어간 성조가 LHL로 실현된다. 아래에 LHL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과 폐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한다.

[표 65] 3음절 어간-LHL형

	미끄럽-(滑)	두두리-(敲)
-구	미끄′럭꾸 [LHLL]	두두′리구 [LHLL]
-∅다	미끄′럽다 [LHLL]	두두′린다 [LHLL]
-더라	미끄′럽더라 [LHLLL]	두두′리더라 [LHLLL]
-아/어서	미끄′러바서 [LHLLL]	두두′레서 [LHLL]
-(으)니	미끄′러부니 [LHLLL]	두두′리니 [LHLL]
-(으)무	미끄′러부무 [LHLLL]	두두′리무 [LHLL]

(65)에서는 어간 '미끄럽-(滑)'. '두두리-(敲)'가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형의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해 제시하였다. (65)를 보면 '미끄럽-(滑)', '두두리-(敲)'의 어간 성조가 항상 LHL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미끄럽-(滑)'의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 어미와 결합할 때 '밋그러우믄[平平去去平] <두해 16:53a>, 밋그러워[平平去去] <두해 25:41a>', '두드려[平去平] <월석 25:8b>, 두드리고[平去平去] <월석 11:8b>'와 같이 나타난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두두리-(敲)'의 성조는 平去平으로 실현되면서 육진 방언 성조 LHL과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미끄럽-'의 성조는 平平去로 실현되면서 육진 방언에서 실현되는 어간 성조

LHL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LHL형에 속하는 어간의 활용형 성조는 그 음절수가 4음절인 경우 LHLL, 5음절인 경우 LHLLL로 실현된다. LHL형에 속하는 용언 어간은 다음과 같다.

[표 66] 어간 성조-LHL형

	4음절	5음절
폐음절, 개음절	LHLL	LHLLL

LHL형: 두두리-(敲), 미끄럽-(滑), 부꾸럽-(羞), 시끄럽-(繁), 오시랍/오시럽-(忧)

HLL형

육진 방언의 HLL형에 속하는 어간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여도 항상 HLL로 실현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 성조는 첫음절에 고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 음절의 성조는 모두 저조로 실현된다. 아래에 HLL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과 폐음절 어간의 예를 각각 제시하도록 한다.

[표 67] 3음절 어간-HLL형

	어즈럽-(亂)	모주라-(乏)
-구	어′즈럭꾸 [HLLL]	모′주라구 [HLLL]
-∅다	어′즈럽따 [HLLL]	모′주라다 [HLLL]
-더라	어′즈럽떠라 [HLLLL]	모′주라더라 [HLLLL]
-아/어서	어′즈러바서 [HLLLL]	모′주라서 [HLLL]
-(으)니	어′즈러부니 [HLLLL]	모′주라니 [HLLL]
-(으)무	어′즈러부무 [HLLLL]	모′주라무 [HLLL]

(67)에서는 어간 '어즈럽-(亂)', '모주라-(乏)'가 자음어미,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형의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해 보여 준다. 앞서 간략하게 HLL형에 대해 서술했듯이

(67)의 예를 보면 어간 ‘어즈럽-(亂)’와 ‘모주라-(乏)’는 후속 어미에 관계없이 언제나 HLL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어즈럽-(亂)’, ‘모주라-(乏)’의 성조 실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어즈럽-(亂)’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즈럽고[去去平去] <법화 5:21b>, 어즈럽더라[去去平平去] <두해 3:22b>, 어즈러워[去去平去] <능엄 2:59a>, 어즈러우면[去去平去去] <능엄 1:70b>’와 같이 활용된다. 어간 ‘어즈럽-(亂)’의 성조는 去去平으로 실현되면서 육진 방언에서의 성조 실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육진 방언 성조에서는 두 개의 고조가 연결되지 못하므로 첫 음절이 고조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중세 한국어 성조와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HLL형에 속하는 개음절 어간 ‘모자라-’가 중세 한국어에서 어떤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중세 한국어에서 ‘모자라-(乏)’’ 어간은 어미와 결합할 때 ‘모ᄌᆞ라디[上去平去] <월석 12:33b>, 모ᄌᆞ라며[上去平去] <금삼 2:34b>, 모ᄌᆞ란[上去平] <금삼 2:33b>’와 같이 실현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모자라-(乏)’는 언제나 上去平 성조로 실현되면서 육진 방언 성조 HLL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사실 앞에서의 ‘어즈럽-(亂)’와 양상이 같다. 육진 방언에서의 上聲은 고조에 합류되어 항상 고조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성조형 내에 하나의 고조만 가질 수 있는 육진 방언에서의 HLL형은 上去平 성조로 실현되는 중세 한국어 성조의 단순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세 한국어에서 去去平 또는 上去平로 실현되는 어간들은 육진 방언에서는 HLL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HLL형에 속하는 어간의 활용형 성조는 그 음절수가 4음절인 경우 HLLL, 5음절인 경우 HLLLL로 실현된다. 육진 방언의 HLL형에는 아래와 같은 어간이 존재한다.

[표 68] 어간 성조-LHL형

	4음절	5음절
폐음절, 개음절	LHLL	LHLLL

HLL형: 까부르-(憍), 모주라/모즈라/모자라-(乏), 어즈럽/어지럽-(亂), 조심하-(愼)

소결

이상으로 함북 육진 방언 용언 성조형에 대해 어간 음절수에 따라 분류하고 어미와 결합할 때의 성조 변동에서 나타나는 성조형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용언의 성조형을 어간 음절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음절의 경우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1유형은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 실현되는 고정적 저조형이고, 제2유형은 어간 성조가 항상 고조로만 나타나는 고정적 고조형이며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은 결합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 성조가 저조 또는 고조로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이 지역의 2음절 용언 어간이 보이는 성조형은 LL형, LH형, HL형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고, 3음절 용언 어간 성조형 또한 LLL형, LHL형, HLL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함북 육진 방언 용언의 성조형을 1음절인 경우와 2, 3음절인 경우로 나눠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9] 용언의 성조형(1음절 어간)

	1유형 (먹-, 食)	2유형 (딱-, 燜)	3유형 (셔-, 立)	4유형 (가-, 去)	5유형A (넘-, 過)	5유형B (울-, 泣)
-구	먹꾸′ [LH]	딱′꾸 [HL]	셔구′ [LH]	가구′ [LH]	넘′꾸 [HL]	울′구 [HL]
-∅/ㄴ/는다	멍는다′ [LLH]	딱′따 [HL]	션다′ [LH]	간′다 [HL]	넘′는다 [HLL]	운′다 [HL]
-더라	먹떠′라 [LHL]	딱′떠라 [HLL]	셔더′라 [LHL]	가′더라 [HLL]	넘′떠라 [HLL]	우′더라 [HLL]
-아/어서	머거′서 [LHL]	따′가서 [HLL]	셔′서 [HL]	가′서 [HL]	너머′서 [LHL]	우러′서 [LHL]
-(으)니까	머그′니까 [LHLL]	따′그니까 [HLLL]	셔니′까 [LHL]	가니′까 [LHL]	너무′니까 [LHLL]	우′니까 [HLL]
-(으)무	머그′무 [LHL]	따′그무 [HLL]	셔무′ [LH]	가무′ [LH]	너무′무 [LHL]	울′무~우′무 [HL]

[표 70] 용언의 성조형(2, 3음절 어간)

	2음절			3음절		
	LL형	LH형	HL형	LLL형	LHL형	HLL형
-구	무걱꾸′ [LLH]	맨들′구 [LHL]	더′럭꾸 [HLL]	깜짜르구′ [LLLH]	미끄′럭꾸 [LHLL]	어′즈럭꾸 [HLLL]
-∅/ㄴ/는다	무겁따′ [LLH]	맨든′다 [LHL]	더′럽따 [HLL]	깜짜른다′ [LLLH]	미끄′럽따 [LHLL]	어′즈럽따 [HLLL]
-더라	무겁떠′라 [LLHL]	맨드′더라 [LHLL]	더′럽떠라 [HLLL]	깜짜르더′라 [LLLHL]	미끄′럽떠라 [LHLLL]	어′즈럽떠라 [HLLLL]
-아/어서	무거바′서 [LLHL]	맨드′러서 [LHLL]	더′러바서 [HLLL]	깜짜라′서 [LLHL]	미끄′러바서 [LHLLL]	어′즈러바서 [HLLLL]
-(으)니	무거부′니 [LLHL]	맨드′니 [LHL]	더′러부니[HLLL]	깜짜르니′ [LLLH]	미끄′러부니 [LHLLL]	어′즈러부니 [HLLLL]
-(으)무	무거부′무 [LLHL]	맨드′무 [LHL]	더′러부무 [HLLL]	깜짜르무′ [LLLH]	미끄′러부무 [LHLLL]	어′즈러부무 [HLLLL]

4.2. 체언과 용언 성조형의 세대별 변이

앞서 4.1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체언과 용언 성조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 절에서는 체언과 용언 성조형의 세대별 변화 과정, 추세 및 그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4.2.1. 체언 성조형의 세대별 변이

함북 육진 방언의 세대별 체언 성조 변화를 대체적으로 어간 성조의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과 기존의 성조 패러다임 내부에서 특정 조사와의 결합에서만 성조 변화 보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전체 성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성조 변화(2음절, 3음절, 4음절 체언 어간)
성조 변화 ①: LL형→LH형, LLL형→LLH형, LLLL형→LLLH형
성조 변화 ②: LLH형→LHL형, LLLH형→LLHL형
성조 변화 ③: LHL형→LLH형

▷ 특정 조사와의 결합에서만 나타나는 성조 변화(1음절 체언 어간)
성조 변화 ④: H1형(조사 '-에서'와의 결합에서만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임)
성조 변화 ⑤: L형((조사 '-부터', '-보다', '-에서'와의 결합에서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임)
성조 변화 ⑥: L형, H2형(성조 패러다임 간의 유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성조형으로 변화함)

성조 변화 ①:

첫 번째 성조 변화는 다음절 체언 어간 성조가 조사와의 통합에서 항상 저조로만 실현되던 것이 마지막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성조형으로 바뀌는 변화이다. 2음절 어간 '문지(塵)'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한다.

[표 71] 문지(塵)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르
M_1(82)	문지가′ [LLH]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F_1(81)	문지가′ [LLH]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F_2(78)	문지가′ [LLH]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M_2(74)	문지가′ [LLH]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M_3(72)	문지가′ [LLH]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F_3(71)	문지가′ [LLH]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F_4(67)	문지가′ [LLH]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M_4(66)	문지′가 [LHL]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F_5(64)	문지가′ [LLH]	문지부터′ [LLLH]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LH]
M_5(60)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LHL]	문지에′ [LLH]	문지에′서 [LLHL]	문지르′ [LLH]
M_6(56)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F_6(55)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서 [LHL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M_7(54)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F_7(53)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M_8(49)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M_9(46)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F_8(44)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F_9(42)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M_{10}(37)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F_{10}(36)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M_{11}(35)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F_{11}(33)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F_{12}(29)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M_{12}(26)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F_{13}(23)	문지′가 [LHL]	문지′부터 [LHLL]	문지′보다 [LHLL]	문지′에 [LHL]	문지′에서 [LHLL]	문지′르 [LHL]

(71)을 통하여 LL형에 속했던 2음절 어간 '문지(塵)'는 조사와의 결합에서 어간 성조가 LL로 실현되던 것이 LH로 바뀌면서 이 지역의 세대 간의 성조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1)을 보면 특정 조사의 결합에서만 어간 성조가 LH로 나타나던 60대 화자부터 시작하여 50대 화자 그리고 더 젊은 세대에서는 어간 성조 전체 패러다임이 LH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음절 어간 '문지(塵)' 곡용형의 성조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2] 문지(塵)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가	문지가' [LLH]	⇒	문지'가 [LHL]	⇒	문지가' [LLH]	⇒	문지'가 [LHL]	⇒	문지'가 [LHL]
-부터	문지부터' [LLLH]		문지부터' [LLLH]		문지부터' [LLLH]		문지'부터 [LHLL]		문지'부터 [LHLL]
-보다	문지보'다 [LLHL]		문지보'다 [LLHL]		문지보'다 [LLHL]		문지보'다 [LLHL]		문지'보다 [LHLL]
-에	문지에' [LLH]		문지에' [LLH]		문지'에 [LHL]		문지에' [LLH]		문지'에 [LHL]
-에서	문지에'서 [LLHL]		문지에'서 [LLHL]		문지'에서 [LHLL]		문지에'서 [LLHL]		문지'에서 [LHLL]
-르	문지르' [LLH]		문지르' [LLH]		문지르' [LLH]		문지르' [LLH]		문지'르 [LHL]

[표 73] 성조 변화 ①-LL형→LH형

	LL형		LH형
-가	[LLH]		[LHL]
-부터	[LLLH]		[LHLL]
-보다	[LLHL]	⇒	[LHLL]
-에	[LLH]		[LHL]
-에서	[LLHL]		[LHLL]
-르	[LLH]		[LHL]

이와 마찬가지로 3음절 어간 LLL형과 4음절 LLLL형도 2음절 LL형과 같은 세대 간 성조 변화를 보인다. 즉 함북 육진 방언에서 저조로만 실현되던 다음절 어간 성조형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조 변화 ②:

두 번째 성조 변화는 마지막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3음절, 4음절 체언 어간 LLH형, LLLH형 성조가 조사와 결합할 때 기존 어간 성조에서 고조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음절 앞당겨서 실현되는 현상이다. 3음절 어간 '오모지/오미자'와 4음절 어간 '두두레기/뚜두레기/또두래기(疹)'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4] 오모지/오미자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르
M_1(82)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F_1(81)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F_2(78)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M_2(74)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M_3(72)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F_3(71)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F_4(67)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M_4(66)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F_5(64)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M_5(60)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M_6(56)	오모지'가 [LLHL]	오모지'부터 [LLHLL]	오모지'보다 [LLHLL]	오모지'에 [LLHL]	오모지'에서 [LLHLL]	오모지'르 [LLHL]
F_6(55)	오미자'가 [LLHL]	오미자'부터 [LLHLL]	오미자'보다 [LLHLL]	오미자'에 [LLHL]	오미자'에서 [LLHLL]	오미자'르 [LLHL]
M_7(54)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F_7(53)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M_8(49)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M_9(46)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F_8(44)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F_9(42)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M_{10}(37)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F_{10}(36)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M_{11}(35)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F_{11}(33)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F_{12}(29)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M_{12}(26)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F_{13}(23)	오미'자가 [LHLL]	오미'자부터 [LHLLL]	오미'자보다 [LHLLL]	오미'자에 [LHLL]	오미'자에서 [LHLLL]	오미'자르 [LHLL]

[표 75] 오모지/오미자

	기존 성조형	⇒	변화 後 성조형
-가	오모지'가/오미자'가 [LLHL]		오미'자가 [LHLL]
-부터	오모지'부터/오미자'부터 [LLHLL]		오미'자부터 [LHLLL]
-보다	오모지'보다/오미자'보다 [LLHLL]		오미'자보다 [LHLLL]
-에	오모지'에/오미자'에 [LLHL]		오미'자에 [LHLL]
-에서	오모지'에서/오미자'에서 [LLHLL]		오미'자에서 [LHLLL]
-르	오모지'르/오미자'르 [LLHL]		오미'자르 [LHLL]

[표 76] 두두레기/뚜두레기/또두래기(疹)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르
M_1(82)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F_1(81)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F_2(78)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M_2(74)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M_3(72)	뚜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F_3(71)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F_4(67)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M_4(66)	두두러'기가 [LLHLL]	두두러'기부터 [LLHLLL]	두두러'기보다 [LLHLLL]	두두러'기에 [LLHLL]	두두러'기에서 [LLHLLL]	두두러'기르 [LLHLL]
F_5(64)	또두래'기가 [LLHLL]	또두래'기부터 [LLHLLL]	또두래'기보다 [LLHLLL]	또두래'기에 [LLHLL]	또두래'기에서 [LLHLLL]	또두래'기르 [LLHLL]
M_5(60)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M_6(56)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F_6(55)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M_7(54)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F_7(53)	또두래'기가 [LLHLL]	또두래'기부터 [LLHLLL]	또두래'기보다 [LLHLLL]	또두래'기에 [LLHLL]	또두래'기에서 [LLHLLL]	또두래'기르 [LLHLL]
M_8(49)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M_9(46)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F_8(44)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보다 [LLLHLL]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르 [LLLHL]
F_9(42)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M_{10}(37)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F_{10}(36)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M_{11}(35)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F_{11}(33)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F_{12}(29)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M_{12}(26)	두두레'기가 [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두두레'기보다 [LLHLLL]	두두레'기에 [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두두레'기르 [LLHLL]
F_{13}(23)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표 77] 두두레기/뚜두레기/또두래기(疹)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가	두두레기'가 [LLLHL]		두두레'기가 [LLHLL]
−부터	두두레기'부터 [LLLHLL]		두두레'기부터 [LLHLLL]
−보다	두두레기'보다 [LLLHLL]	⇒	두두레'기보다 [LLHLLL]
−에	두두레기'에 [LLLHL]		두두레'기에 [LLHLL]
−에서	두두레기'에서 [LLLHLL]		두두레'기에서 [LLHLLL]
−르	두두레기'르 [LLLHL]		두두레'기르 [LLHLL]

위의 (74)와 (76)을 관찰해 보면 3음절 어간 '오모지/오미자'와 4음절 어간 '두두레기/뚜두레기/또두래기(疹)'의 어간 성조는 기존의 LLH형, LLLH형이 아닌 LHL, LLHL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LH'에서 'LHL'로, 'LLLH'에서 'LHLL'로의 변화는 어간 내 고조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음절씩 앞당겨 실현되는 양상으로 파악되는데, 기존 논의 Ramsey(1974)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액센트 推移 法則(Accent Shift Rule)'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Ramsey(1974: 116)에서는 현대 咸南北靑 지역과 慶尙 金海 지역의 성조와 중세 한국어의 성조 대응을 통해 경상 방언의 성조는 중세 한국어와 일관된 대응을 보이는 함남 방언 성조에서 '액센트 標識를 왼쪽으로 한 음절 옮긴다'라는 '액센트 推移 法則(Accent Shift Rule)'을 세웠다. 함북 육진 방언 3음절 체언 어간 '오모지/오미자'와 4음절 체언 어간 '두두레기/뚜두레기/또두래기(疹)'의 곡용형에서 보이는 세대별 성조 변화 또한 이와 같은 성조 추이로 볼 수 있다.

3음절 체언 어간과 4음절 체언 어간의 곡용형에서 보이는 세대별 성조형의 변화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 (78), (79)와 같다.

[표 78] 성조 변화 ②-3음절 어간

	LLH형		LHL형
-가	[LLHL]		[LHLL]
-부터	[LLHLL]		[LHLLL]
-보다	[LLHLL]	⇒	[LHLLL]
-에	[LLHL]		[LHLL]
-에서	[LLHLL]		[LHLLL]
-르	[LLHL]		[LHLL]

[표 79] 성조 변화 ②-4음절 어간

	LLLH형		LLHL형
-가	[LLLHL]		[LLHLL]
-부터	[LLLHLL]		[LLHLLL]
-보다	[LLLHLL]	⇒	[LLHLLL]
-에	[LLLHL]		[LLHLL]
-에서	[LLLHLL]		[LLHLLL]
-르	[LLLHL]		[LLHLL]

LLLH형에 속하는 4음절 체언 어간은 조사 항목 7개 중에서 7개 어휘 모두 성조 변화 ②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LLH형에 속하는 체언 어간은 조사 항목 9개 중에서 오직 '오모지/오미자' 한 개 어간에서만 위와 같은 세대별 성조 변화를 보인다.

성조 변화 ③:

세 번째 성조 변화는 LHL형에 속하는 3음절 어간 '도라지'가 조사와의 통합에서 기존 성조형인 LHL형이 아닌 LLH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변화는 LHL형에 속하는 6개 조사 항목 중에서 '도라지' 한 개 어간에서만 나타난다. 3음절 LHL형

어간 ‘도라지’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0] 도랒/도라지(桔梗)[51]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으/르
M_1(82)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F_1(81)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F_2(78)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M_2(74)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M_3(72)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F_3(71)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F_4(67)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M_4(66)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F_5(64)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M_5(60)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M_6(56)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F_6(55)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제 [LHL]	도라'제서 [LHLL]	도라'즈 [LHL]
M_7(54)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지에 [LHLL]	도라'지에서 [LHLLL]	도라'지르 [LHLL]
F_7(53)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지에 [LHLL]	도라'지에서 [LHLLL]	도라'지르 [LHLL]
M_8(49)	도라지'가 [LLHL]	도라지'부터 [LLHLL]	도라지'보다 [LLHLL]	도라지'에 [LLHL]	도라지'에서 [LLHLL]	도라지'르 [LLHL]
M_9(46)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지에 [LHLL]	도라'지에서 [LHLLL]	도라'지르 [LHLL]
F_8(44)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지에 [LHLL]	도라'지에서 [LHLLL]	도라'지르 [LHLL]
F_9(42)	도라'지가 [LHLL]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보다 [LHLLL]	도라'지에 [LHLL]	도라'지에서 [LHLLL]	도라'지르 [LHLL]
M_{10}(37)	도라지'가 [LLHL]	도라지'부터 [LLHLL]	도라지'보다 [LLHLL]	도라지'에 [LLHL]	도라지'에서 [LLHLL]	도라지'르 [LLHL]
F_{10}(36)	도라지'가 [LLHL]	도라지'부터 [LLHLL]	도라지'보다 [LLHLL]	도라지'에 [LLHL]	도라지'에서 [LLHLL]	도라지'르 [LLHL]
M_{11}(35)	도라지'가 [LLHL]	도라지'부터 [LLHLL]	도라지'보다 [LLHLL]	도라지'에 [LLHL]	도라지'에서 [LLHLL]	도라지'르 [LLHL]
F_{11}(33)	도라지'가 [LLHL]	도라지'부터 [LLHLL]	도라지'보다 [LLHLL]	도라지'에 [LLHL]	도라지'에서 [LLHLL]	도라지'르 [LLHL]
F_{12}(29)	도라지'가 [LLHL]	도라지'부터 [LLHLL]	도라지'보다 [LLHLL]	도라지'에 [LLHL]	도라지'에서 [LLHLL]	도라지'르 [LLHL]
M_{12}(26)	도라지'가 [LLHL]	도라지'부터 [LLHLL]	도라지'보다 [LLHLL]	도라지'에 [LLHL]	도라지'에서 [LLHLL]	도라지'르 [LLHL]
F_{13}(23)	도라지'가 [LLHL]	도라지'부터 [LLHLL]	도라지'보다 [LLHLL]	도라지'에 [LLHL]	도라지'에서 [LLHLL]	도라지'르 [LLHL]

(80)을 보면 ‘도라지’의 성조가 이 지역의 50대부터 80대에서는 LHL형으로 실현되다가 M_8(49) 화자를 비롯한 20대, 30대에서는 LLH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간 ‘도라지’와 조사 ‘-에’, ‘-에서’, ‘-으’와의 곡용형을 살펴보면 ‘도랒’이라는 2음절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어간 ‘도라지’의 성조는 ‘도랏[平去] <救簡 1:51b>’과 같이 平去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50대 화자부터 80대 화자들의 성조는 중세 한국어의 성조와 대응되는 LH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 도라지(桔梗)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이/가	도라′지가 [LHLL]		도라지′가 [LLHL]
-부터	도라′지부터 [LHLLL]		도라지′부터 [LLHLL]
-보다	도라′지보다 [LHLLL]	⇒	도라지′보다 [LLHLL]
-에	도라′제 [LHL]		도라지′에 [LLHL]
-에서	도라′제서 [LHLL]		도라지′에서 [LLHLL]
-으/르	도라′즈 [LHL]		도라지′르 [LLHL]

[표 82] 성조 변화 ③-LHL형→LLH형

	LHL형		LLH형
-이/가	[LHLL]		[LLHL]
-부터	[LHLLL]		[LLHLL]
-보다	[LHLLL]	⇒	[LLHLL]
-에	[LHL]		[LLHL]
-에서	[LHLL]		[LLHLL]
-으/르	[LHL]		[LLHL]

51) 필자의 사전 자료조사가 부족했던 탓에 노년층 화자들이 ‘도랒/도라′지’와 같은 다중 기저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여 제보자들에게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곡용형을 발음해주기를 부탁드렸다.

성조 변화 ④:

네 번째 성조 변화는 1음절 체언 어간이 특정 조사와 통합할 때에만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이고 기타 조사와의 결합에서는 세대 간의 성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유형이다. H1형에 속하는 '길(路)'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3] 길(路)

	-이	-부터	-보다	-에	-에서	-으
M_1(82)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F_1(81)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F_2(78)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M_2(74)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M_3(72)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F_3(71)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F_4(67)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M_4(66)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F_5(64)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M_5(60)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M_6(56)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F_6(55)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M_7(54)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F_7(53)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M_8(49)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M_9(46)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F_8(44)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LH]	기'르 [HL]
F_9(42)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M_{10}(37)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F_{10}(36)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M_{11}(35)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F_{11}(33)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F_{12}(29)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M_{12}(26)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F_{13}(23)	기'리 [HL]	길'부터 [HLL]	길'보다 [HLL]	기레' [LH]	기레'서 [LHL]	기'르 [HL]

(83)을 보면 H1형에 속하는 어간 '길(路)'의 곡용형의 성조형이 특정 조사 '-에서'와의 결합에서만 'LLH'으로 실현되던 것이 'LHL'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고조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음절씩 앞당겨 실현되는 성조 추이 양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84] 성조 변화 ④-H1형

	H1형		
-이	[HL]		[HL]
-부터	[HLL]		[HLL]
-보다	[HLL]	⇒	[HLL]
-에	[LH]		[LH]
-에서	[LLH]		[LHL]
-으	[HL]		[HL]

성조 변화 ⑤:

다섯 번째 성조 변화는 1음절 체언 어간이 특정 조사와 통합할 때에만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이고 기타 조사와의 결합에서는 세대 간의 성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유형이다. L형에 속하는 '말(馬)'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5] 말(馬)

	−이	−부터	−보다	−에	−에서	−으
M_1(82)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F_1(81)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F_2(78)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M_2(74)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M_3(72)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F_3(71)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F_4(67)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M_4(66)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F_5(64)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M_5(60)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M_6(56)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F_6(55)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M_7(54)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F_7(53)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M_8(49)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LH]	마르′ [LH]
M_9(46)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F_8(44)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F_9(42)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M_{10}(37)	마리′ [LH]	마알′부터 [L·HLL]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F_{10}(36)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M_{11}(35)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F_{11}(33)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F_{12}(29)	마리′ [LH]	말부터′ [LLH]	말보′다 [LH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M_{12}(26)	마리′ [LH]	말부터′ [LLH]	마알′보다 [L·HL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F_{13}(23)	마리′ [LH]	마알′부터 [L·HLL]	마알′보다 [L·HLL]	마레′ [LH]	마레′서 [LHL]	마르′ [LH]

(85)에서는 1음절 L형에 속하는 어간 '말(馬)'이 특정 조사와의 결합에서 세대 간의 성조 차이를 보이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보여 준다. 어간 '말(馬)'이 특정 조사 '-에서'와 결합할 때 보이는 변화는 위의 표(83)에서 보여준 H1형에 속하는 1음절 어간 '길(路)'이 조사 '-에서'와 결합할 때 보이는 것과 같은 양상의 변화이다. 즉 조사 '-에서'와 결합하는 경우 곡용형의 성조가 기존의 LLH로 나타나던 것이 LHL로 실현된다. (85)를 관찰하면 F_4(67)에서 기존의 LLH로 나타나던 성조가 성조 추이를 겪은 LHL로 실현되면서 세대 간의 성조상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M_{10}(37) 화자와 20대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말(馬)'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조사 '-부터', '-보다'가 후행하는 경우에도 세대 간의 성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간 '말(馬)'이 조사 '-부터', '-보다'와 통합할 때 'LLH', 'LHL'로 나타나던 곡용형의 성조가 'L·HLL'로 실현되는 것이다.

L형에 속하는 1음절 체언 어간 7개 중에서 7개 어휘 전부 이와 같은 성조 변화를 보인다. 이 변화는 20대와 30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어간 '말(馬)'의 곡용형 성조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6] 말(馬)

	기존 성조형	⇒		⇒		⇒		⇒	변화 後 성조형
-이	마리′ [LH]		마리′ [LH]		마리′ [LH]		마리′ [LH]		마리′ [LH]
-부터	말부터′ [LLH]		말부터′ [LLH]		마알′부터 [L·HLL]		말부터′ [LLH]		마알′부터 [L·HLL]
-보다	말보′다 [LHL]		말보′다 [LHL]		말보′다 [LHL]		마알′보다 [L·HLL]		마알′보다 [L·HLL]
-에	마레′ [LH]		마레′ [LH]		마레′ [LH]		마레′ [LH]		마레′ [LH]
-에서	마레서′ [LLH]		마레′서 [LHL]		마레′서 [LHL]		마레′서 [LHL]		마레′서 [LHL]
-으	마르′ [LH]		마르′ [LH]		마르′ [LH]		마르′ [LH]		마르′ [LH]

[표 87] 성조 변화 ⑤-L형

	L형		
-이	[LH]		[LH]
-부터	[LLH]		[L·HLL]
-보다	[LHL]	⇒	[L·HLL]
-에	[LH]		[LH]
-에서	[LLH]		[LHL]
-으	[LH]		[LH]

성조 변화 ⑥:

여섯 번째 성조 변화는 1음절 체언 어간에 속하는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성조형에 각각 성조 변화가 일어나 하나의 새로운 성조형으로 변해가는 유형이다. L형에 속하는 어간 '배(梨)'와 H형에 속하는 어간 '배(腹)'가 조사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8] 배(梨)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르
M_1(82)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F_1(81)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F_2(78)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M_2(74)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M_3(72)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F_3(71)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F_4(67)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M_4(66)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F_5(64)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M_5(60)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M_6(56)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F_6(55)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M_7(54)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F_7(53)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M_8(49)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M_9(46)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F_8(44)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F_9(42)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M_{10}(37)	배가′ [LH]	배′부터 [HLL]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F_{10}(36)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LH]
M_{11}(35)	배가′ [LH]	배부터′ [LLH]	배애′보다 [L·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F_{11}(33)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F_{12}(29)	배가′ [LH]	배부터′ [LLH]	배보′다 [LH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M_{12}(26)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F_{13}(23)	배가′ [LH]	배애′부터 [L·HLL]	배애′보다 [L·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LH]

[표 89] 배(腹)

	-가	-부터	-보다	-에	-에서	-으
M_1(82)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HLL]	배'르 [HL]
F_1(81)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HLL]	배'르 [HL]
F_2(78)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HLL]	배'르 [HL]
M_2(74)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HLL]	배'르 [HL]
M_3(72)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HLL]	배'르 [HL]
F_3(71)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HL]
F_4(67)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HL]
M_4(66)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HLL]	배'르 [HL]
F_5(64)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M_5(60)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HLL]	배'르 [HL]
M_6(56)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F_6(55)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HLL]	배'르 [HL]
M_7(54)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F_7(53)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HL]
M_8(49)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HL]
M_9(46)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LLH]	배'르 [HL]
F_8(44)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HL]	배'에서 [HLL]	배'르 [HL]
F_9(42)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M_{10}(37)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HL]
F_{10}(36)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LH]	배'르 [HL]
M_{11}(35)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F_{11}(33)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F_{12}(29)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M_{12}(26)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F_{13}(23)	배'가 [HL]	배'부터 [HLL]	배'보다 [HLL]	배에' [LH]	배에'서 [LHL]	배'르 [HL]

L형에 속하는 어간 '배(梨)'와 H형에 속하는 어간 '배(腹)'가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 곡용형의 성조형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0] 배(梨)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가	배가′ [LH]		배가′ [LH]		배가′ [LH]	배′가 [HL]
-부터	배부터′ [LLH]		배부터′ [LLH]		배애′부터 [L·HLL]	⇒ 배′부터 [HLL]
-보다	배보′다 [LHL]	⇒	배보′다 [LHL]	⇒	배애′보다 [L·HLL]	⇒ 배′보다 [HLL]
-에	배에′ [LH]		배에′ [LH]		배에′ [LH]	배에′ [LH]
-에서	배에서′ [LLH]		배에′서 [LHL]		배에′서 [LHL]	⇒ 배에′서 [LHL]
-르	배르′ [LH]		배르′ [LH]		배르′ [LH]	배′르 [HL]

[표 91] 배(腹)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가	배′가 [HL]		배′가 [HL]		배′가 [HL]		배′가 [HL]	배′가 [HL]
-부터	배′부터 [HLL]		배′부터 [HLL]		배′부터 [HLL]		배′부터 [HLL]	배′부터 [HLL]
-보다	배′보다 [HLL]	⇒	배′보다 [HLL]	⇒	배′보다 [HLL]	⇒	배′보다 [HLL]	⇒ 배′보다 [HLL]
-에	배′에 [HL]		배에′ [LH]		배′에 [HL]		배에′ [LH]	배에′ [LH]
-에서	배′에서 [HLL]		배′에서 [HLL]		배에서′ [LLH]		배에서′ [LLH]	배에′서 [LHL]
-르	배′르 [HL]		배′르 [HL]		배′르 [HL]		배′르 [HL]	배′르 [HL]

(88)에서의 1음절 L형 어간 '배(梨)'의 곡용형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보면 조사 '-에서'와 결합하는 경우 나타나는 'LLH'→'LHL'로의 변화는 앞서 다룬 1음절 L형 어간 '말(馬)'과 같은 양상의 성조 변화를 겪는 것이다.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부터', '-보다'와 결합할 때 F_{13}(23)와 M_{11}(35) 화자는 'LLH'→'L·HLL', 'LHL'→'L·HLL'와 같은 성조 변화를 보여 준다. 이 또한 L형에 속하는 기타 어간의 성조 변화와 같은 것이다. 추가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어간 '배(梨)'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부터', '-보다'와 결합할 때 M_{12}(26)와 M_{10}(37) 화자에게서 'LLH'→'HLL', 'LHL'→'L·HLL'와 같은 변화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는 '배애부터[L·HLL]', '배애보다[L·HLL]'에서 모음 'ㅐ'가 탈락하면서 'L·HLL'→'HLL'과 같은 성조 변화를 겪은 게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1음절 L형 어간과 조사 '-부터', '-보다'와 결합하는 경우, 어간 성조형이 L형이던 것이 H형으로 성조 변화를 보이는 어휘는 조사 항목 7개 중에서 어간 '배(梨)' 하나뿐이다. 어간 '배(梨)'는 L형 1음절 체언 어간 중에서 유일한 개음절 어간이다.

다음으로 (89)에서 보여 준 1음절 H2형 어간 '배(腹)'의 세대별 성조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어간 '배(腹)'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에', '-에서'와 통합할 시에만 세대 간의 성조 차이를 보인다. 어간 '배(腹)'에 조사 '-에', '-에서'가 결합하는 경우 'HL'→'LH', 'HLL'→'LHL'과 같은 성조 변화를 나타낸다. 1음절 L형 어간 '배(梨)'와 H2형 어간 '배(腹)'는 성조 패러다임 간의 유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성조형으로 변해간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조형의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2] 성조 변화 ⑥

	배(梨) L형		변화 後 성조형		배(腹) H2형
-가	[LH]	⇒	[HL]		[HL]
-부터	[LLH]	⇒	[HLL]		[HLL]
-보다	[LHL]	⇒	[HLL]		[HLL]
-에	[LH]		[LH]		[HL]
-에서	[LLH]	⇒	[LHL]	⇐	[HLL]
-르	[LH]	⇒	[HL]		[HL]

4.2.2. 용언 성조형의 세대별 변이

함북 육진 방언의 세대별 용언 성조 변화를 대체적으로 어간 성조의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과 기존의 성조 패러다임 내부에서 특정 어미와의 결합에서만 성조 변화 보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전체 성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성조 변화(2음절, 3음절, 4음절 체언 어간)
성조 변화 ①: 제1유형→제5A유형, 제1유형→제2유형, 제5A유형→제2유형
성조 변화 ②: LL형→LH형, LH형→HL형
성조 변화 ③: LLL형→LLH형, LHL형→HLL형

▷ 특정 조사와의 결합에서만 나타나는 성조 변화(1음절 체언 어간)
성조 변화 ④: 제1유형(어미 '-는다'와의 결합에서만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임)
성조 변화 ⑤: 제3유형, 제4유형(성조 패러다임 간의 유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성조형으로 변화함)

성조 변화 ①:

첫 번째 성조 변화는 1음절 용언 어간이고 제1유형이었던 활용형의 성조형이 다른 유형의 성조형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어간 '붓-(注)' 활용형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3] 붓-(注)

	-구	-는다	-더라	-아/어서	-(으)니까	-(으)무
M_1(82)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1(81)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2(78)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2(74)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3(72)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3(71)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4(67)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4(66)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5(64)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5(60)	북꾸′ [LH]	분는다′ [LLH]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6(56)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6(55)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7(54)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7(53)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8(49)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9(46)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8(44)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9(42)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10}(37)	북꾸′ [LH]	분′는다 [HLL]	붇′떠라 [HL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10}(36)	북꾸′ [LH]	분는′다 [LHL]	붇떠′라 [LH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11}(35)	북꾸′ [LH]	분′는다 [HLL]	붇′떠라 [HL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11}(33)	북′꾸 [HL]	분′는다 [HLL]	붇′떠라 [HL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12}(29)	북′꾸 [HL]	분′는다 [HLL]	붇′떠라 [HL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M_{12}(26)	북′꾸 [HL]	분′는다 [HLL]	붇′떠라 [HL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F_{13}(23)	북′꾸 [HL]	분′는다 [HLL]	붇′떠라 [HLL]	부서′서 [LHL]	부스′니까 [LHLL]	부수′무 [LHL]

(93)은 '붓-(注)' 어간에 '-구, -는다, -더라, -아/어서, -(으)니까, -(으)무'와 같은 어미가 후행할 때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이다. (93)을 보면 '붓-(注)' 어간은 자음어미 '-구', '-는다', '-더라'와 결합할 때 성조 실현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는다'와 결합에서부터 세대 간의 성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붓-+-는다'의 성조는 기존의 'LLH'로 실현되었으나 M_6(56세) 화자부터는 'LHL'로 나타나는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 'LLH'→'LHL'로의 변화 양상 또한 고조가 왼쪽으로 한 음절 옮겨지는 성조 추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조 변화1과 다른 점은 이미 한 차례의 추이를 겪은 'LHL'에서 고조의 위치가 또 왼쪽으로 한 음절 옮겨지는 현상이 M_{10}(37세) 화자부터 시작되어서 이 지역의 20, 30대에서는 '붓-+-는다'의 성조가 'HLL'로 나타나고 있다.

'붓-+-는다'의 성조가 'HLL'로 실현됨에 따라 어미 '-더라', '-구'와의 결합에서도 'LLH'→'LHL', 'LH'→'HL'과 같은 성조 변화가 나타난다. '붓-(注)' 활용형의 성조형 패러다임의 변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4] 붓-(注)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구	북꾸′ [LH]		북꾸′ [LH]		북꾸′ [LH]	북′꾸 [HL]
-는다	분는다′ [LLH]		분는′다 [LHL]		분′는다 [HLL]	분′는다 [HLL]
-더라	분떠′라 [LHL]	⇒	분떠′라 [LHL]	⇒	분′떠라 [HLL]	분′떠라 [HLL]
-아/어라	부서′라 [LHL]		부서′라 [LHL]		부서′라 [LHL]	부서′라 [LHL]
-(으)니까	부스′니까 [LHLL]		부스′니까 [LHLL]		부스′니까 [LHLL]	부스′니까 [LHLL]
-(으)무	부수′무 [LHL]		부수′무 [LHL]		부수′무 [LHL]	부수′무 [LHL]

제1유형에 속하는 어간 중에 '끗-(劃), 깆/깃/짓-(嗽), 빗-(梳)'와 같은 어간들이 '붓-(注)'와 같은 성조 변화를 나타낸다. 이들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성조형으로 실

현되면서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지만 변화 과정은 다 다르게 실현된다. 이 중에서 ‘빗-(梳)’ 활용형의 성조형 패러다임의 변화로 표로 제시한다.

[표 95] 빗-(梳)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구	빗꾸′ [LH]		빗꾸′ [LH]		빗′꾸 [HL]	빗′꾸 [HL]
-는다	빋는다′ [LLH]		빋는′다 [LHL]		빋는′다 [LHL]	빋′는다 [HLL]
-더라	빋떠′라 [LHL]	⇒	빋떠′라 [LHL]	⇒	빋떠′라 [LHL]	⇒ 빋′떠라 [HLL]
-아/어라	비서′라 [LHL]		비서′라 [LHL]		비서′라 [LHL]	비서′라 [LHL]
-(으)니까	비스′니까 [LHLL]		비스′니까 [LHLL]		비스′니까 [LHLL]	비스′니까 [LHLL]
-(으)무	비스′무 [LHL]		비스′무 [LHL]		비스′무 [LHL]	비스′무 [LHL]

비록 ‘빗-(梳)’ 활용형의 성조 변화 과정은 ‘붓-(注)’ 활용형의 성조 변화 과정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빗-(梳)’ 어간의 경우 역시 어미 ‘-는다’와의 결합에서부터 세대별 성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제1유형에 속하는 ‘끗-(劃), 깆/깃/짓-(嗽), 붓-(注), 빗-(梳)’와 같은 어간들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고조로 실현되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저조로 실현되는 제5A유형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보이는 어간들의 어간말음은 ‘ㅅ’ 또는 ‘ㅊ’으로 끝난다.

[표 96] 성조 변화 ①-제1유형→제5A유형

	제1유형		제5A유형
-구	[LH]		[HL]
-는다	[LLH]		[HLL]
-더라	[LHL]	⇒	[HLL]
-아/어서	[LHL]		[LHL]
-(으)니까	[LHLL]		[LHLL]
-(으)무	[LHL]		[LHL]

다음으로 다룰 성조 변화는 1음절 용언 어간이고 제1유형이었던 활용형의 성조형이 다른 유형의 성조형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어간 '매-(結)' 활용형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7] 매-(結)

	-구	-ㄴ/는다	-더라	-아/어서	-(으)니까	-(으)무
M_1(82)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1(81)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2(78)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M_2(74)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M_3(72)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_3(71)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_4(67)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M_4(66)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_5(64)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M_5(60)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M_6(56)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_6(55)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M_7(54)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_7(53)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HL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M_8(49)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HL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M_9(46)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_8(44)	매구′ [LH]	맨다′ [LH]	매더′라 [LHL]	매애′라 [L·HL]	매니′까 [LHL]	매무′ [LH]
F_9(42)	매구′ [LH]	맨′다 [HL]	매더′라 [LHL]	매′라 [HL]	매니′까 [LHL]	매무′ [LH]
M_{10}(37)	매구′ [LH]	맨′다 [HL]	매′더라 [HLL]	매′라 [HL]	매니′까 [LHL]	매′무 [HL]

F_{10}(36)	매구′ [LH]	맨′다 [HL]	매더′라 [LHL]	매′라 [HL]	매니′까 [LHL]	매무′ [LH]
M_{11}(35)	매′구 [HL]	맨′다 [HL]	매′더라 [HLL]	매′라 [HL]	매′니까 [HLL]	매′무 [HL]
F_{11}(33)	매′구 [HL]	맨′다 [HL]	매′더라 [HLL]	매′라 [HL]	매′니까 [HLL]	매′무 [HL]
F_{12}(29)	매′구 [HL]	맨′다 [HL]	매′더라 [HLL]	매′라 [HL]	매′니까 [HLL]	매′무 [HL]
M_{12}(26)	매′구 [HL]	맨′다 [HL]	매′더라 [HLL]	매′라 [HL]	매′니까 [HLL]	매′무 [HL]
F_{13}(23)	매′구 [HL]	맨′다 [HL]	매′더라 [HLL]	매′라 [HL]	매′니까 [HLL]	매′무 [HL]

(97)은 ‘매-(結)’ 어간에 ‘-구, -는다, -더라, -아/어서, -(으)니까, -(으)무’와 같은 어미가 후행할 때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이다. (97)을 보면 어미 ‘-더라’와 결합할 때 F_7(53세)에서 기존의 ‘LHL’로 실현되던 성조가 성조 추이를 겪은 ‘HLL’로 실현되면서 세대 간의 성조상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젊은 세대 M_{11}(35)부터는 전체 성조 패러다임이 바뀌어 어간 성조가 항상 고조로 실현된다. ‘매-(結)’ 활용형의 성조형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8] 매-(結)

	기존 성조형	⇒		⇒		⇒		⇒	변화 後 성조형
-구	매구′ [LH]		매구′ [LH]		매구′ [LH]		매구′ [LH]		매′구 [HL]
-ㄴ다	맨다′ [LH]		맨다′ [LH]		맨′다 [HL]		맨′다 [HL]		맨′다 [HL]
-더라	매더′라 [LHL]		매′더라 [HLL]		매더′라 [LHL]		매′더라 [HLL]		매′더라 [HLL]
-아/어라	매(애)′라 [L·HL]		매(애)′라 [L·HL]		매′라 [HL]		매′라 [HL]		매′라 [HL]
-(으)니까	매니′까 [LHL]		매니′까 [LHL]		매니′까 [LHL]		매니′까 [LHL]		매′니까 [LHL]
-(으)무	매무′ [LH]		매무′ [LH]		매무′ [LH]		매′무 [LH]		매′무 [LH]

[표 99] 성조 변화 ①-제1유형→제2유형

	제1유형		제2유형
-구	[LH]		[HL]
-ㄴ다	[LH]		[HL]
-더라	[LHL]	⇒	[HLL]
-아/어라	[L·HL]		[HL]
-(으)니까	[LHL]		[HLL]
-(으)무	[LH]		[HL]

'뀌/끼-(夢), 뛰-(躍), 지/찌-(肥)'와 같은 어간도 '매-(結)' 같은 세대별 성조 변화를 겪는다. 이들 어간은 전부 개음절 어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성조 변화 ①에 속하는 다른 성조 변화는 1음절 용언 어간이고 제1유형이었던 활용형의 성조형이 다른 유형의 성조형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어간 '덥-(熱)' 활용형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0] 덥-(熱)

	-구	-ㄴ/는다	-더라	-아/어서	-(으)니까	-(으)무
M_1(82)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LH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F1(81)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LH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F2(78)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LH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M_2(74)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LH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M_3(72)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LH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F_3(71)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LH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F_4(67)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LH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M_4(66)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LH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F_5(64)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더'바서 [LHL]~[HLL]	더부'니까~더'부니까 [LHLL]~[HLLL]	더부'무~더'부무 [LHL]~[HLL]

M_5(60)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더'바서 [LHL]~[HLL]	더부'니까~더'부니까 [LHLL]~[HLLL]	더부'무~더'부무 [LHL]~[HLL]
M_6(56)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F_6(55)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M_7(54)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LHLL]	더부'무 [LHL]
F_7(53)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M_8(49)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버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M_9(46)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F_8(44)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F_9(42)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M_{10}(37)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F_{10}(35)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M_{11}(34)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F_{11}(32)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F_{12}(29)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M_{12}(26)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F_{13}(23)	덕'꾸 [HL]	덥'따 [HL]	덥'떠라 [HLL]	더'바서 [HLL]	더'부니까 [HLLL]	더'부무 [HLL]

(100)은 '덥-(熱)' 어간에 '-구, -는다, -더라, -아/어서, -(으)니까, -(으)무'와 같은 어미가 후행할 때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이다. (100)을 보면 '덥-(熱)' 어간은 자음어미와 결합에서는 세대 간의 성조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만 성조 추이를 겪어 세대별 성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덥-(熱)' 활용형의 성조형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1] '덥-(熱)'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구	덕'꾸 [HL]		덕'꾸 [HL]		덕'꾸 [HL]		덕'꾸 [HL]
-다	덥'따 [HL]		덥'따 [HL]		덥'따 [HL]		덥'따 [HL]
-더라	덥'떠라 [HLL]	⇒	덥'떠라 [HLL]	⇒	덥'떠라 [HLL]	⇒	덥'떠라 [HLL]
-아/어서	더버'서 [LHL]		더버'서~더'바서 [LHL]~[HLL]		더'바서 [HLL]		더'바서 [HLL]
-(으)니까	더부'니까 [LHLL]		더부'니까~더'부니까 [HLLL]		더부'니까 [LHLL]		더'부니까 [HLLL]
-(으)무	더부'무 [LHL]		더부'무~더'부무 [LHL]~[HLL]		더부'무 [LHL]		더'부무 [HLL]

제5A유형에 속하는 18개 조사 항목 중에서 세대별 성조 변화를 보이는 어간은 '덥-(熱)' 하나뿐이다. 제2유형(고정적 고저형)에 속하는 '덥-(熱)'의 반의어 '칩-(寒)'의 성조형의 영향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표 102] 성조 변화 ①-제5A유형→제2유형

	제5A유형		제2유형
-구	[HL]		[HL]
-ㄴ다	[HL]		[HL]
-더라	[HLL]	⇒	[HLL]
-아/어서	[LHL]		[HLL]
-(으)니까	[LHLL]		[HLLL]
-(으)무	[LHL]		[HLL]

성조 변화 ②:

여기서 다룰 성조 변화는 2음절 용언 어간 LL형이 LH형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어간 '흐르-(流)' 활용형의 성조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3] 흐르-(流)

-구	흐르구′ [LLH]	⇒	흐르구′ [LLH]	⇒	흐르구′ [LLH]	⇒	흐르′구 [LHL]
-ㄴ다	흐른다′ [LLH]		흐른′다 [LHL]		흐른다′ [LLH]		흐른′다 [LHL]
-더라	흐르더′라 [LLHL]		흐르더′라 [LLHL]		흐르더′라 [LLHL]		흐르′더라 [LHLL]
-아/어서	흘러′서 [LHL]		흘러′서 [LHL]		흘러′서 [LHL]		흘러′서 [LHL]
-니까	흐르니′까 [LLHL]		흐르니′까 [LLHL]		흐르′니까 [LHLL]		흐르′니까 [LHLL]
-무	흐르무′ [LLH]		흐르무′ [LLH]		흐르′무 [LHL]		흐르′무 [LHL]

LL형에 속하는 조사 항목 9개 중 7개 어휘에서 이와 같은 세대별 성조 변화가 나타난다. LL형에 속하는 '끄스-(引), 따르-(隨), 만나-(會), 부르-(呼), 새나-(厭), 아프-(痛), 흐르-(流)'와 같은 개음절 어간에서만 세대 간의 성조 차이를 보인다.

[표 104] 성조 변화 ②-LL형→LH형

	LL형		LH형
-구	[LLH]		[LHL]
-ㄴ다	[LLH]		[LHL]
-더라	[LLHL]	⇒	[LHLL]
-아/어서	[LHL]		[LHL]
-니까	[LLHL]		[LHLL]
-무	[LLH]		[LHL]

다음으로 다룰 성조 변화는 2음절 용언 어간 LH형이 HL형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어간 '둥굴-(圓)' 활용형의 성조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5] 둥굴-(圓)

-구	둥굴'구 [LHL]		둥굴'구 [LHL]		둥'굴구 [HLL]
-∅다	둥구'다 [LHL]		둥'굴다 [HLL]		둥'굴다 [HLL]
-더라	둥구'더라 [LHLL]	⇒	둥'굴더라 [HLLL]	⇒	둥'굴더라 [HLLL]
-아/어서	둥구'러서 [LHLL]		둥'구러서 [HLLL]		둥'구러서 [HLLL]
-니까	둥구'니까 [LHLL]		둥'구니까 [HLLL]		둥'구니까 [HLLL]
-무	둥구'무 [LHL]		둥'굴무 [HLL]		둥'굴무 [HLL]

LH형에 속하는 조사 항목 17개 중 '둥굴-(圓)' 한 개 어휘에서만 세대별 성조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성조 변화 또한 고조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겨진 성조 추이를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6] 성조 변화 ②-LH형→HL형

	LH형		HL형
-구	[LHL]		[HLL]
-∅다	[LHL]		[HLL]
-더라	[LHLL]	⇒	[HLLL]
-아/어서	[LHLL]		[HLLL]
-니까	[LHLL]		[HLLL]
-무	[LHL]		[HLL]

성조 변화 ③:

성조 변화 ③에 속하는 성조 변화는 3음절 용언 어간 LLL형이 LLH형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어간 '깜짜르-(緊)' 활용형의 성조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7] 깜짜르-(緊)

-구	깜짜르구′ [LLLH]	⇒	깜짜르′구 [LLHL]
-ㄴ다	깜짜른다′ [LLLH]		깜짜른′다 [LLHL]
-더라	깜짜르더′라 [LLLHL]		깜짜르′더라 [LLHLL]
-아/어서	깜짤가′서 [LLHL]		깜짤라′서 [LLHL]
-니	깜짜르니′ [LLLH]		깜짜르′니 [LLHL]
-무	깜짜르무′ [LLLH]		깜짜르′무 [LLHL]

LLL형에 속하는 조사 항목 4개 중 '깜짜르-(緊)' 한 개 어휘에서만 세대별 성조 변화가 나타난다. 어간 성조가 LLL로 실현되던 것이 LLH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조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음절씩 옮겨지는 성조 추이를 겪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8] 성조 변화 ③-LLL형→LLH형

	LLL형		LLH형
-구	[LLLH]	⇒	[LLHL]
-∅다	[LLLH]		[LLHL]
-더라	[LLLHL]		[LLHLL]
-아/어서	[LLHL]		[LLHL]
-니	[LLLH]		[LLHL]
-무	[LLLH]		[LLHL]

다음으로 다룰 성조 변화는 3음절 용언 어간 LHL형이 HLL형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어간 '미끄럽-(滑)' 활용형의 성조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9] 미끄럽-(滑)

-구	미끄'럭꾸 [LHLL]		미끄'럭꾸 [LHLL]		미'끄럭꾸 [HLLL]
-∅다	미끄'럽따 [LHLL]		미끄'럽따 [LHLL]		미'끄럽따 [HLLL]
-더라	미끄'럽떠라 [LHLLL]	⇒	미끄'럽떠라 [LHLLL]	⇒	미'끄럽떠라 [HLLLL]
-아/어서	미끄'러바서 [LHLLL]		미'끄러바서 [HLLLL]		미'끄러바서 [HLLLL]
-니까	미끄'러부니까 [LHLLLL]		미'끄러부니까 [HLLLLL]		미'끄러부니까 [HLLLLL]
-무	미끄'러부무 [LHLLL]		미'끄러부무 [HLLLL]		미'끄러부무 [HLLLL]

LHL형에 속하는 조사 항목 4개 중 '미끄럽-(滑)' 어휘에서만 세대 간의 성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성조 변화 또한 고조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음절 옮겨지는 성조 추이를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0] 성조 변화 ③-LHL형→HLL형

	LHL형		HLL형
-구	[LHLL]		[HLLL]
-∅다	[LHLL]		[HLLL]
-더라	[LHLLL]	⇒	[HLLLL]
-아/어서	[LHLLL]		[HLLLL]
-니까	[LHLLLL]		[HLLLLL]
-무	[LHLLL]		[HLLLL]

성조 변화 ④:

네 번째 성조 변화는 용언 어간이 특정 어미와 결합할 때에만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이고 기타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성조상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특정 어미와의 결합에서 성조 변화를 보이는 '먹-(食)'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11] 먹-(食)

	-구	-는다	-더라	-아/어서	-(으)니까	-(으)무
M_1(82)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1(81)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2(78)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2(74)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3(72)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3(71)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4(67)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4(66)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5(64)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5(60)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6(56)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6(55)	먹꾸' [LH]	먹는다' [LLH]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7(54)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7(53)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8(49)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9(46)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8(44)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9(42)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10}(37)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10}(36)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11}(35)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11}(33)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12}(29)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M_{12}(26)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F_{13}(23)	먹꾸' [LH]	먹는'다 [LHL]	먹떠'라 [LHL]	머거'서 [LHL]	머그'니까 [LHLL]	머그'무 [L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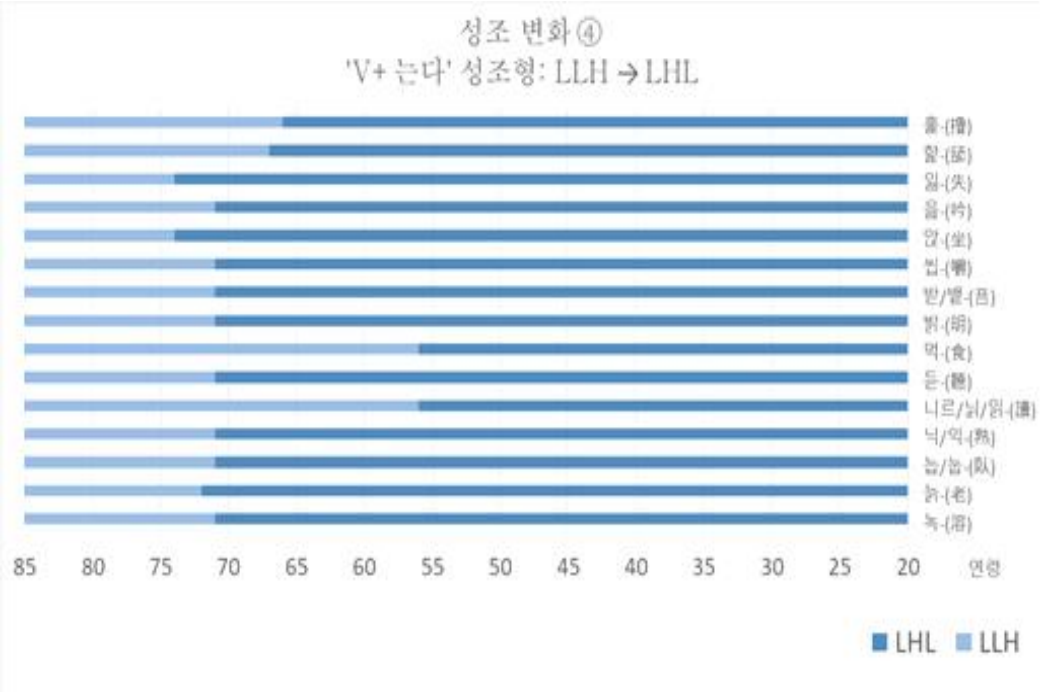
(111)은 '먹-(食)' 어간에 '-구, -는다, -더라, -아/어서, -(으)니까, -(으)무'와 같은 어미가 결합할 때 육진 방언의 세대별 성조 실현 양상이다. '먹-(食)' 어간이 어미 '-는다'와 결합할 때 성조 실현 양상에서의 세대 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기존의 성조형은 어간에 어미 '-는다'가 후행하는 경우 'LLH'로 실현되었는데 'LHL'로 나타나는 성조 변화를 보인다. 'LLH'에서 'LHL'로의 변화는 고조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음절씩 앞당겨 실현되는 양상으로 파악되는데 기존 논의 Ramsey (1974)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액센트 推移 法則(Accent Shift Rule)'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Ramsey(1974:116)에서는 현대 咸南 北靑 지역과 慶尙 金海 지역의 성조와 중세 한국어의 성조 대응을 통해 경상 방언의 성조는 중세 한국어와 일치한 대응을 보이는 함남 방언 성조에서 '액센트 標識를 왼쪽으로 한 음절 옮긴다'는 '액센트 推移 法則(Accent Shift Rule)'을 세웠다. 육진 방언에서의 '먹-(食)' 어간에 후행하는 어미 '-는다'가 결합할 때 보이는 세대별 성조 변화 또한 성조 추이로 볼 수 있다. '먹-(食)' 활용형의 성조형 패러다임의 변화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2] '먹-(食)'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구	먹꾸' [LH]		먹꾸' [LH]
-는다	먹는다' [LLH]	⇒	먹는'다 [LHL]
-더라	먹떠'라 [LHL]		먹떠'라 [LHL]
-아/어서	머거'서 [LHL]		머거'서 [LHL]
-(으)니까	머그'니까 [LHLL]		머그'니까 [LHLL]
-(으)무	머그'무 [LHL]		머그'무 [LHL]

제1유형에 속하는 어간들 중에 '먹-(食)'와 같이 어미 '-는다'와의 결합에서만 성조 변화를 보이는 어간은 다수(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조 변화를 보이는 어간은 '녹-(溶), 늙-(老), 눕/눕-(臥), 닉/익-(熟), 니르/닑/읽-(讀), 듣-(聽), 먹-(食), 밝-(明), 받/뱓-(音), 씹-(嚼), 앉-(坐), 읊-(吟), 잃-(失), 핥-(舔), 훑-(擼)'와 같은 어간들이다.

(112)에서 보다시피 '먹-(食)' 활용형에서의 'LLH'에서 'LHL'로의 성조 변화는 대체적으로 56세 남성 M_6 화자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성조 변화를 보이는 기타 어간들의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을 차트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림 5] 성조 변화 ④

그림 (5)를 보면 용언 어간에 '-는다' 어미가 결합할 때 'LLH'→'LHL'의 변화는 '먹-(食)', '니르/닑/읽-(讀)'의 경우에는 M_6(56세)부터 시작되고 기타 어간들은 대체적으로 70대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며 60대부터 변화를 보이는 어간도 존재한다.

따라서 성조 변화1은 이 지역의 80대 화자를 제외한 70대에서부터 시작되어 20대에까지 확산된 변화로 확인된다.

성조 변화 ⑤:

다섯 번째 성조 변화는 1음절 용언 어간에 속하는 두 가지 유형의 성조형이 같은 새로운 성조형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

기존의 제3유형에 속하는 어간 '셔-(立), 케-(點), 페-(伸)'는 어간 성조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고조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조로 실현되기도 한다. '케-(點)' 활용형의 성조형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3] '케-(點)'[52]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구	케구′ [LH]		케구′ [LH]	케구′ [LH]
-ㄴ다	켄다′ [LH]		켄다′ [LH]	켄′다 [HL]
-더라	케더′라 [LHL]	⇒	케더′라 [LHL]	⇒ 케더′라 [LHL]
-아/어서	케′서 [HL]		케′서 [HL]	케′서 [HL]
-니까	케니′까 [LHL]		케′니까 [HLL]	케′니까 [HLL]
-무	케무′ [LH]		케무′ [LH]	케무′ [LH]

기존의 '케-(點)' 어간은 '-아/어서' 어미와 결합할 때만 어간 성조가 고조로 실현되고 기타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간 성조가 항상 저조로 실현된다. (113)에서의 변화된 후의 성조형을 보면 '케-(點)' 어간은 어미 '-ㄴ다', '-니까'와 결합할 때에서 어간 성조가 고조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제4유형에 속하는 어간 '가-(去), 누-(便), 두-(置), 보-(視), 오-(來), 자-(眠), 주-(與), 하-(爲)' 중에서 '오-(來)' 활용형의 성조형 패러다임의 변화

52) 제3유형에 속하는 어간 '셔-(立), 케-(點), 페-(伸)' 중에서 '케-(點), 페-(伸)'만 위의 (44)에서와 같은 성조 변화를 보이고 '셔-(立)' 활용형의 성조는 세대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과정을 표로 제시한다.

[표 114] '오-(來)'

	기존 성조형				변화 後 성조형
-구	오구′ [LH]		오구′ [LH]	오구′ [LH]	오구′ [LH]
-ㄴ다	온′다 [HL]		온′다 [HL]	온′다 [HL]	온′다 [HL]
-더라	오′더라 [HLL]	⇒	오더′라 [LHL]	오′더라 [HLL]	⇒ 오더′라 [LHL]
-아/어서	와′서 [HL]		와′서 [HL]	와′서 [HL]	와′서 [HL]
-니까	오니′까 [LHL]		오니′까 [LHL]	오′니까 [HLL]	오′니까 [HLL]
-무	오무′ [LH]		오무′ [LH]	오무′ [LH]	오무′ [LH]

[표 115] 성조 변화5

	3유형		변화 後 성조형		4유형
-구	[LH]		[LH]		[LH]
-ㄴ다	[LH]	⇒	[HL]		[HL]
-더라	[LHL]		[LHL]	⇐	[HLL]
-아/어서	[HL]		[HL]		[HL]
-니까	[LHL]	⇒	[HLL]	⇐	[LHL]
-무	[LH]		[LH]		[LH]

(115)를 보면 기존의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성조 패러다임 간의 유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성조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상으로 용언 어간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성조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면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성조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無변화 ①(1음절 용언 어간-제1유형):

1음절 용언 어간 중에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유형도 존재한다. 이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떠한 어미와의 결합에서도 세대별 성조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세대별 성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어간은 '깊-(深), 눅-(廉), 맑-(淸), 맵-(辣), 즐-(泥)'와 같은 어간들이다. 이 5개 어간의 유사한 점을 꼽자면 이들 어간은 형용사 어간이라는 것이다.

無변화 ②(2음절 용언 어간-HL형):

2음절 용언 어간 중에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성조형도 존재한다. 이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떠한 어미와의 결합에서도 세대별 성조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세대별 성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어간은 HL형에 속하는 '가물-(旱), 꺼지-(陷), 그리-(畵)'등과 같은 어간들이다.

HL형: 가물-(旱), 꺼지-(陷), 그리-(畵), 놀라-(驚), 더럽-(汚), 반갑-(喜), 배잡/배좁-(窄), 우쁘-(笑), 웃겝/웃겹-(笑)

無변화 ③(3음절 용언 어간-HLL형):

3음절 용언 어간 중에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성조형이 존재한다. 이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떠한 어미와의 결합에서도 세대별 성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성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어간은 '까부르-(憍), 모주라/모즈라/모자라-(乏), 어즈럽/어지럽-(亂), 조심하-(愼)'등과 같은 어간들이다.

HLL형: 까부르-(憍), 모주라/모즈라/모자라-(乏), 어즈럽/어지럽-(亂), 조심하-(愼)

2음절, 3음절 용언 어간 중에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성조형은 HL형과 HLL형이다. 이들은 다 고조가 첫 음절에 놓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 결론

본고는 함북 방언의 변종인 중국 길림성 훈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에 따른 음운 현상과 성조형의 변화 과정, 변화 추세 및 변화하는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서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남은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의 2장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음소 및 성조소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자음을 살펴보면, 함북 육진 방언의 자음 목록은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ㅆ, ㅈ, ㅉ, ㅊ, ㅁ, ㄴ, ㄹ, ㅇ[ŋ], ㅎ/과 같은 19개의 자음 음소로 이루어져 있다. 활음의 경우를 보면, 이 지역에는 두 개의 활음 /y/, /w/가 확인된다. 또한 함북 육진 방언에는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와 같은 8개의 단모음이 있고 단모음 'ㅚ[ø]'와 'ㅟ[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북 육진 방언의 음소 목록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대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성조에 대해 살펴보면, 함북 육진 방언 성조는 저조[L]와 고조[H] 두 개의 음고를 가지고 있고 중세 한국어에서의 去聲과 上聲은 이 지역에서 고조[H]로만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이 지역의 성조는 중세 한국어 성조 체계의 간소화된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에서 보이는 음운 현상의 변화 과정, 변화 추세 및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음조화, 움라우트, 전설모음화, 자음군단순화, 어간말 'ㄹ' 탈락과 같은 음운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각 음운 현상을 살펴봄에 있어 먼저 80

대 화자를 대상으로 한 노년층에서의 실현 양상을 기술한 다음 세대별 화자들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모음조화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음조화는 이 지역의 80대 화자에게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다가 60대 화자에게서부터 다음절 'ㅜ' 말음 어간, 1음절 ㅂ-불규칙 어간, 1음절 ㅛ 말음 어간 및 ㅐ 말음 어간일 때 어미 '-아X'를 취하거나 어미 '-어X~-아X'가 수의적으로 선택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움라우트의 경우,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환경 조건에 따라 단어 내부(용언), 형태소 내부(체언) 및 형태소 경계(주격 조사 '-이')에서의 움라우트 실현 정도를 세대별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의 80대 화자들부터 60대 화자들까지의 움라우트 실현 정도는 90%~100%에 달하는 높은 실현율을 보였으나 젊은 세대로 갈수록 비교적 낮은 실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설모음화 부분에서는 선행 자음이 'ㅅ, ㅈ, ㅉ, ㅊ'인 경우 용언 어간과 체언 어간 내부에서의 전설모음화 실현 양상을 세대별로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의 80대 화자에게서는 전설모음화가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70대 화자에게서부터 전설모음화가 적용된 개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대 화자에게서는 거의 80%에 달하는 실현율을 보인다. 이 지역의 자음 체계에 대해 살펴본 바로는 'ㅅ, ㅈ, ㅉ, ㅊ'은 이 지역의 전 연령층에서 치조음으로 발음되며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보이는 개신형의 출현은 순수한 언어 내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교육에 의한 표준어의 차용으로 판단된다.

자음군단순화에 있어서도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ㅙ' 말음 체언 어간 '야듧/여덟'이 단독형 또는 조사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고 'ㅂ'으로 단순화되던 것이 어휘 형태소 '개(個)', '시(時)' 앞에서 '야득′깨/여덕′깨→여덜′깨', '야듭씨′/여덥씨′→여덜씨′'와 같이 'ㅂ'이 탈락하고 'ㄹ'로 단순화를 겪는 세대 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ㄺ' 말음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 '-구'와 결합할 때 이 지역의 80대에서 40대까지는 'ㄹ'이 탈락하고 'ㄱ'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던 것이 20대, 30대 화자에게서는 'ㄱ'이 탈락하고 'ㄹ'로 단순화를 겪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적용 양상이 달라진 것이 확인된다.

어간말 'ㄹ' 탈락의 경우, 이 지역의 80대 화자들에게서 어간말 'ㄹ' 탈락은 [+설정성] 자음인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물론이고, [-설정성] 자음인 양순음 'ㅁ' 앞에서도 탈락한다. 이런 현상은 이 지역의 70대, 80대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50대 이하 화자에게서는 'ㄹ' 탈락형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4장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에 대해 살펴본 뒤 곡용형과 활용형에서 보이는 세대별 성조 실현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함북 육진 방언의 성조를 기술함에 있어 80대 화자의 성조형을 이 지역의 기본 성조형으로 보고 먼저 노년층의 성조형에 대해 살펴본 다음 체언과 용언 성조형에서 보이는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래에는 본고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북 육진 방언의 체언·용언 성조형 및 체언·용언 성조형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 제시한다.

(1) 체언의 성조형

-1음절 어간: L형, H형(H1형, H2형)

-2음절 어간: LL형, LH형, HL형

-3음절 어간: LLL형, LLH형, LHL형, HLL형

-4음절 어간: LLLL형, LLLH형, LLHL형

(2) 용언의 성조형

-1음절 어간: 제1유형(고정적 저조형), 제2유형(고정적 고조형), 제3유형~제5유형(고저 교체형 1~3)

-2음절 어간: LL형, LH형, HL형

-3음절 어간: LLL형, LHL형, HLL형

(3) 체언에서 보이는 세대 간의 성조 변화

▷ 전체 성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성조 변화(2, 3, 4음절 체언 어간)

-변화1: LL형→LH형, LLL형→LLH형, LLLL형→LLLH형

-변화2: LLH형→LHL형, LLLH형, LLHL형
-변화3: LHL형→LLH형

▷ 특정 조사와의 결합에서만 나타나는 성조 변화(1음절 체언 어간)
-변화4: H1형(조사 '-에서'와의 결합에서만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임)
-변화5: L형(조사 '-부터', '-보다', '-에서'와의 결합에서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임)
-변화6: L형, H2형(성조 패러다임 간의 유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성조형으로 변화함)

(4) 용언에서 보이는 세대 간의 성조 변화
▷ 전체 성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성조 변화(1, 2, 3음절 용언 어간)
-변화1: 제1유형→제5A유형, 제1유형→제2유형, 제5A유형→제2유형
-변화2: LL형→LH형, LH형→HL형
-변화3: LLL형→LLH형, LHL형→HLL형

▷ 특정 어미와의 결합에서만 나타나는 성조 변화(1음절 용언 어간)
-변화4: 제1유형(어미 '-는다'와의 결합에서만 세대 간의 성조 변화를 보임)
-변화5: 제3유형, 제4유형(성조 패러다임 간의 유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성조형으로 변화함)

이제까지 함북 육진 방언의 여러 음운 현상과 체언·용언 성조형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의 음운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역 세대 간의 언어는 음운 현상 및 성조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세대별 변화 양상과 연령층에 따른 성조형의 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함으로써 이 지역어의 음운 변화에 대해 더 전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함북 육진 방언에

서 확인되는 음운 변화의 원인을 기술함에 있어 관련 이론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여 깊이 있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실증적인 자료와 이론을 결부하여 언어 내적과 언어 외적 측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면서 함북 육진 방언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화에 대한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순경(2001), 《북한어 모음체계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곽충구(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43.

곽충구(1986), 露韓會話와 咸北 慶興方言, 《震檀學報》 62, 79-125.

곽충구(1992), 咸鏡道 方言 硏究의 전개 과정과 그 전망, 《南北韓의 方言 硏究》(金英培 編著), 慶雲出版社.

곽충구(1994ㄱ),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20世紀 러시아의 Kazan에서 刊行된 文獻資料에 依한》, 國語學叢書 20, 태학사.

곽충구(1994ㄴ), 北韓方言에 대한 硏究 成果와 課題, 《人文科學》 10, 慶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263-294.

곽충구(1997), 연변 지역의 함북 길주·명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애산학보》 20, 179-274.

곽충구(2000), 재외동포의 언어 연구, 《어문학》 69, 1-41.

곽충구(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震檀學報》 92, 237-268.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國語學》 41, 59-91.

곽충구(2005), 육진 방언의 음운변화, 《震檀學報》 100, 183-220.

곽충구(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1, 2》, 태학사.

고쿠분 쓰바사(2021), 연변조선어 젊은층 화자의 용언 악센트에 대한 연구, 《방언학》 33, 77-86.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태학사.

김경아(2008), 패러다임 간의 類推에 따른 語幹 再構造化, 《語文硏究》 36-4, 103-128.

김고은(2016), 부산 지역어의 성조형과 성조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은(2020), 경상북도 방언 모음조화의 변화, 《國語學》 94, 205-233.

김동은(2021), 동남방언 모음조화의 변화-경상남도 방언을 중심으로-, 《國語學》

98, 299-328.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국(2004), 함북 육진방언의 '-어/-아' 교체 양상과 중립모음의 성격, 《배달말》 35, 321-341.
김성규(1987), 語彙素 設定과 音韻現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규(1988), 非自動的 交替의 共時的 記述, 《冠岳語文硏究 》 13, 25-44.
김성규(1994), 中世國語의 聲調 變化에 대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규(1997), 성조의 변화, 《國語史硏究》, 491-511.
김성규(1998), 중세국어 2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 《國語學》 32, 21-47.
김성규(2002), 유동적 상성 어간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1, 141-164.
김성규(2009), 15세기 한국어 성조의 성격에 대하여, 《國語學》 56, 3-31.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김세환(2012), 청송 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영(2021), 한국어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아름(2011),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 연구-활용·곡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배(1985), i모음역행동화와 그 개재자음, 《한국문화연구》 2, 101-116.
김완진(1963),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63-99.
김완진(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적 制約, 《學術院論文集》 10, 91-115.
김완진(1973), 《中世國語 聲調의 硏究》, 韓國文化硏究所.
김차균(1995), 연변 룡정 방언의 성조, 《인문학연구》 2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47-538.
김차균(1996), 육진 방언과 영남 방언 성조의 비교, 《SICOPS'S96, 제1회 국제 음성학 학술대회》, 566-573.
김춘자(2008), 《함경남도 삼수지역어의 음운론》, 역락.

김태균(1981), 咸鏡北道 鍾城郡方言(資料), 경기대학국어국문학과.
김태균(1982), 함북 육읍 방언 연구, 《경기어문학》 3, 11-27.
김태균(1983), 함북 방언 조사연구 1, 《牛步全炳斗博士華甲紀念論文集》, 17-35.
김태균(1986), 《咸北方言辭典》, 京畿大學校 出版局.
김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國語學叢書 54, 태학사.
김현(2012), 자유변이의 공시론과 통시론, 《형태론》 14-1, 53-72.
남광우(2015), 《敎學 古語辭典》, 敎學社.
박경래(1993), 충주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혁(2003), 중국 훈춘 지역 조선어의 복합어 성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혁(2014), 함북경흥 지역어의 성조론,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혁(2018), 함경 방언의 성조, 《방언학》 28, 5-38.
방언연구회 편(2001), 《方言學 事典》, 태학사.
배영환(2013), '뚫-'[穿]의 형성과 방언 분화, 《어문논집》 56, 63-91.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금란(2019), 함경남도 신흥 지역어의 성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宣德五·趙習·金淳培(1990), 《朝鮮語方言調查報告》,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소신애(2002), 연변 훈춘지역 조선어의 진행중인 음변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신애(2009),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의 상관성-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國語學叢書 64, 태학사.
소신애(2016), 다음절 어간에서의 방언권별 부사형어미 실현 양상, 《한국언어문학》 62, 123-143.
소신애(2016), 움라우트의 개재자음에 대한 재고찰, 《국어국문학》 176, 237-272.
소신애(2021), 구술 발화에서 관찰되는 음성·음운론적 변이, 《방언학》 34, 7-40.
오선화(2015), 《연변 방언 연구》, 박문사.
오종갑(2007), 부사형 어미 '아X'의 음운론적 변화와 영남방언의 위상, 《어문학》 95, 133-202.

이근규(1985), 중세국어 모음조화의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동(1987), 함경남도 북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문규(2017), 《형태소 성조형 중심의 국어 성조론》, 한국문화사.
이병근(1970),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學術院論文集》 9, 375-390.
이병근(1971), 雲峰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일조각, 473-487.
이병근(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223-246.
이상신(2008), 전남 영암지역의 공시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진호(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이진호(2009), 현대국어의 음운하적 고찰, 《國語史硏究》, 123-150.
이진호(2010), 국어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崔明玉先生停年退任紀念)國語學論叢》, 태학사, 561-584.
이진호(2012), 국어 pk-교체에 대한 종합적 고찰, 《國語學》 63, 247-273.
이진호(2014), 《국어음운론강의(개정판)》, 삼경문화사.
이진호 외(2015),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 박이정.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용언 사전》, 역락.
이토 다카요시(2015), 동남방언 성조의 지역적 분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혁화(2005),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석규(2007), 慶北北部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석규(2007), 다음절 어간에서의 방언권별 부사형어미 실현 양상, 《한국언어문학》 62, 123-143.
임석규(2021), 《국어음운론의 기초》, 역락.
전학석(1993),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태학사.
전학석(1998),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國語學叢書 25, 태학사.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정용호(1988), 《함경도방언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趙習·宣德五(1986), 朝鮮語六鎭話的 方言特點, 《民族語文》 5.
채옥자(2005), 《中國 延邊地域 朝鮮語의 音韻硏究》, 태학사.
천시권(1958), 방언에 있어서의 상성고, 《경북대학교 논문집》 2, 50-70.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최명옥(1988), 國語 UMLAUT의 硏究史的 檢討: 共時性과 通時性의 問題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65, 63-80.
최명옥(1992),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부사형어미 '아X'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73, 139-163.
최명옥(1998), 《國語音韻論과 資料》, 태학사.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최보람(2013),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최전승(1989), 국어 i-umlaut 현상의 기원과 전파의 방향, 《한국언어문학》 27, 27-61.
한성우(2006), 《평안북도 의주 방언의 음운론》, 월인.
한영균(1994),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진건(2000), 《륙진방언 연구》, 역락.
황대화(1986), 《동해안방언연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3, 한국문화사]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硏究》, 東京: 岩波書店.
田島泰秀(1918), 咸北方言의 訛言, 《朝鮮敎育硏究會雜誌》 2月號.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鋏語攷-》, 東都書籍. [河野六郎 저, 이진호

역(2012), 《한국어 방언학 시론: ‘ᄀᆞ시개(鋏)’ 고찰》, 전남대학교 출판부에 재수록]

Holmes, J(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Longman.

Hyman, L. M.(2009), How (not) to do phonological typology—the case of pitch—accent, *Language Sciences* 31, 213—238.

Ramsey, S. R.(1974), 咸南 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硏究, 《國語學》 2, 105—132.

Ramsey, S. R.(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 國語學叢書 9, 塔出版社.

[中文摘要]

咸镜北道六镇方言的音韵演变研究

朴美慧（Meihui PIAO）

本文以咸镜北道六镇方言变种之一的中国吉林省珲春地区方言为调查对象，旨在厘清不同年龄段的音韵现象及其之间的声调变化过程，并探讨其变化的趋势和原因所在。

本文共有五章。第一章主要介绍了研究主题、研究目的和相关的研究现状，并对调查资料和论文结构进行说明。

第二章讨论了咸镜北道六镇方言的音素及调素(toneme)目录。咸镜北道六镇方言的辅音目录由19个辅音音素构成。该方言具有/y/、/w/两种滑音，并拥有8种单元音。就该方言的音素目录而言，并不存在代际之间的差异。另外，该方言拥有“低调[L]”和“高调[H]”两种调素。

第三章从元音和谐、元音变音(umlaut)、前舌母音化、复辅音单一化、词干末尾“ㄹ”脱落等音韵现象出发，探讨了咸镜北道六镇方言中音韵现象的变化过程、趋势及其原因，并针对每一种音韵现象，具体讨论了从80岁高龄话语者到年轻话语者的代际之间的实际表现差异。

首先就元音和谐而言，该地区的80岁年龄层话语者普遍遵守这一发音规则，而到了60岁年龄层，开始有发音规则的变化或随意反复的现象出现。元音变音和词干末尾“ㄹ”脱落的现象亦如是，虽然它们在该地区80岁话语者之间是必然存在的规律，但随着代际的变化，年轻话语者当中遵守该规律的人越来越少。其次就前舌母音化而言，

其完全不见于80岁年龄层话语者之间，但20岁年龄层话语者身上出现这一现象的频率达到了近80%。不过，这一现象的出现并不是语言内部的原因所致，而是受到了当地语言教育的外部影响。最后就复辅音单一化而言，以“ㄾ”尾音的体词词干和“ㄺ”尾音的谓词词干为例，不同代际之间存在不同的单一化现象：高年龄层倾向于“ㄹ”的脱落，而低年龄层则倾向于“ㅂ”、“ㄱ”的脱落。

第四章以咸镜北道六镇方言中体词和谓词的声调类型为中心，考察了“体词+助词”和“谓词+语尾”两种形式当中所出现的代际之间的类型差异。本章在叙述该方言的声调时，以80岁年龄层话语者的声调类型作为该地区方言的基本类型，首先对其进行分析，进而考察了其中出现的代际之间的变化。

首先是体词的声调类型。从不同的词干音节来看，单音节词干可分为L型和H型两种类型，若再考虑“体词+助词”中的词干声调，H型又可分为H1型和H2型；双音节词干可分为LL型、LH型和HL型；三音节词干可分为LLL型、LLH型、LHL型和HLL型四种类型；四音节词干则同时出现LLLL型、LLLH型和LLHL型。

接下来是谓词的声调类型。从不同的词干音节来看，首先单音节词干可以分出五种类型：第一种类型是“固定式低声调”，其词干声调永远以“低调(L)”呈现；第二种类型是“固定式高声调”，其词干声调永远以“高调(H)”呈现；第三、四、五种类型的词干声调并不固定，随着添附语尾的不同而或高或低。其次，双音节词干可分为LL型、LH型和HL型三种类型，三音节词干则可分为LLL型、LHL型和HLL型三种类型。

以上述声调类型为基础考察其中出现的代际之间的类型变化，可以发现其变化主要存在两种形式，一是“不同类型之间的整体变化”，二是“某一类型当中结合特定助词和语尾后的特殊变化”。

第五章对本文主要内容进行了梳理总结，并指出本文存在的问题以及今后改进的方向。

关键词：咸镜北道六镇方言，庆兴方言，音韵现象，代际演变，声调类型
学　号：2017-38423